

parliamentary records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 선 집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 선집》은 속기인 스스로의 자화상, 외부에서 속기인을 바라보는 눈, 인터뷰, 논고, 회고 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기》를 남겼듯이 우리 스스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역경을 넘어설 때, 현세 더 멀리는 후대에까지도 그 자긍심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의회속기록의 기록은 1948년 5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 개원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어느덧 64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속기50년사》, 《속기개관》, 《속기총람》, 《현대 의정사관들》, 해마다 발행되는 《속기계》와 같은 책자들이 발간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기록이 미미하다는 자조와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 선집》은 속기인 스스로의 자화상, 외부에서 속기인을 바라보는 눈, 인터뷰, 논고, 회고 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모아 놓은 자료집입니다.

사마천이 궁형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사기』를 남겼듯이 우리 스스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역경을 넘어설 때 현세, 더 멀리는 후대에 까지도 그 자긍심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애써 주신 홍보부를 비롯한 모든 분들과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한국 속기계(速記界)의 발전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 12

대한속기협회 회장 고흥길



태평로 국회의사당(1960년대)



국회속기사 양성소 제1회 수료식(1969.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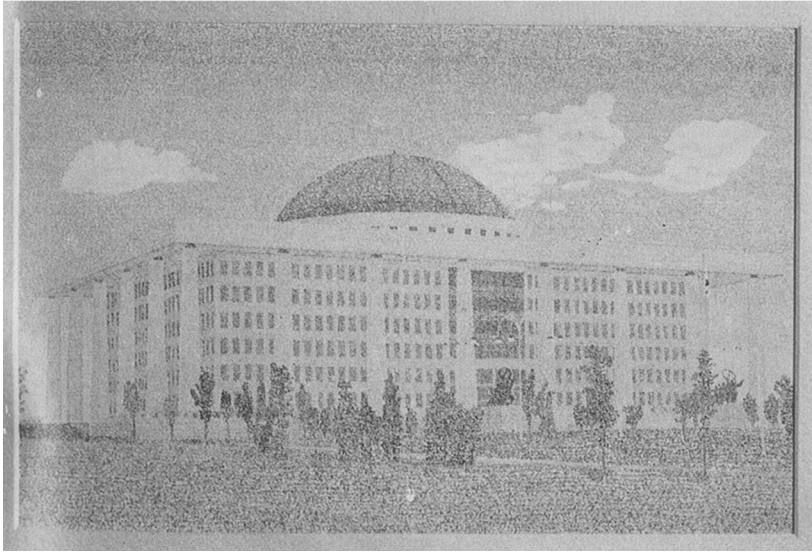
제1회 속기사 자격검정시험 공고문(1970. 5. 7.)



제1회 속기경기대회 시상식(1970. 5. 17.)



광복 25주년 기념 속기전시회(1970. 9. 7.~10.)에 속기문자로 그려 출품된
박정희 대통령 초상화(김종수 작)



속기문자로 그린 의사당(1975년 속기과 채강희 작)

태평로 국회의사당이 여의도 의사당으로 이전한 직후, 제9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속기문자로 국회의사당 본관을 그린 것으로 총 소요문자 수는 10만 2,000자이다.



국회개원 30주년 속기전시회 개최
테이프커팅 장면(1978. 9. 25.)



국회개원 30주년
속기전시회(1978. 9.
25.~9. 30.) 포스터
(유성수 회원 작품)



제42차 로잔느 인터스테노총회(1998. 7.)



국회속기사 양성소 제14기 수료식(1981. 2.)



제33회 대한속기협회 정기총회(2000. 1. 29.)



제47차 북경 인터스테노총회(2009. 8.)



제19회 속기학술세미나(안면도 리솜오션캐슬, 2011. 5. 27.)



제48차 파리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2011. 7. 15.)



I 의회속기록의 가치 _ 1

01.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예언·명언 강성재(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3
02. 국회 속기사와 출입기자 이경재(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42
03. 국회의원은 속기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권영기(월간조선 차장대우)	47
04. 미국에도 史官 있다 문명호(동아일보 주미 특파원)	68
05. 국회 속기록은 국보다 2008. 7. 17 KBS 제헌절 특집방송	80

II 논고 _ 93

01. 언어속도에 대한 고찰 김영춘(협회연구위원장)	95
02. 속기실무 향상을 위한 고찰 하양배	105
03. 나의 속기담 전해성(전문위원)	113
04. 속기사, 왜 전문직인가 홍기표	119
05. 속기사의 조건 홍기표	127
06. 인터스테노와 대한속기협회 이경식 이사장	163
07. 중국의 속기...탕아웨이(唐亚伟) 북경일보 장홍안(張洪安)	171

III 특별기고 _ 188

01. 사회 일반이 본 속기관 정준(민의원 의원)	191
02. 전시회 개최에 기(壽)함 이재학(민의원 부의장)	194
03. 속기사와 독서 신현경(민의원 도서관장)	196
04. 내가 보는 속기계 김대곤(신동아 기자)	200
05. 속기까지 가르치는 국어교육이 필요하다 강성위(한국외국어대 교수)	203
06. 천 낭 주머니와 무죄 증명 이영아(여성동아 기자)	208
07. 국회의원과 속기사 양선모(국회의원 비서관)	213
08. 한국 속기 50년사 집필기 유순태 회원(도음사 대표)	217

IV 언론 인터뷰 _ 221

01. 말을 찍는 사진사 ‘국회 속기사’ 김진기 고문 인터뷰	223
02. 될 말, 안 될 말 그 가감 없는 기록을 위하여 홍기표 인터뷰	246
03. 국회 ‘여의도 시대’ 30년 최예숙 인터뷰	264
04. 국회 마을 30년 터줏대감, 속기사 3인 이경식·조영기·고경효 인터뷰	267
05. 5분 쓴 꼬부랑글씨 ‘해독’하는 데 50분… 엄의숙 인터뷰	273
06. 촛불 속기, 골목 속기—수필속기의 위력! 김미라 인터뷰	279
07. “의원님들 욕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백순정·박윤혜 인터뷰	285



I
의회속기록의
가치

01.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예언·명언 강성재(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02. 국회 속기사와 출입기자 이경재(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03. 국회의원은 속기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권영기(월간조선 차장대우)
04. 미국에도 史官 있다 문명호(동아일보 주미 특파원)
05. 국회 속기록은 국보다 2008. 7. 17. KBS 제현철 특집방송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예언·명언

강성재(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소설보다 재미있는 영국 의사록

영국 의회의 의사록을 읽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소설보다 더 재미 있다”는 평들을 한다. 그것은 폭력의 해독제인 유머와 재기 넘치는 기지가 있는가 하면 폐부를 찌르는 야유와 멋진 응수, 기막힌 임기응변들을 거기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실에 바탕을 둔, 드릴 있는 ‘폭로’가 있는가 하면 사리사욕을 떠나 국익에 주안점을 둔 정론이 깊은 경륜을 배경으로 도도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학식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의 하나.

50년대 초 노동당의 맹장 베빈이 긴 연설 끝에 셰익스피어의 『맥베드』(희곡)에 나오는 몇 구절을 예거하면서 단어 하나를 잘못 인용, 처칠을 위시한 많은 의원들의 고소를 자아낸 일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필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편집위원, 언론자유 주장으로 4년간 해직(80년), 국회 의장 비서실장, 15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참군인 이종찬 장군』 등 저서 5권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고 하겠다. 그런저런 이유로 19세기 영국의 명재상 디즈레일리는 영국 의회를 “세계에서 가장 연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그 신경을 파괴하는 청중”이라고 일찍이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 의회가 20, 30년 아니 100여 년 앞으로 부닥치게 될 ‘일’들을 미리 상정, 활발한 토론 끝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는 ‘각박한’ 우리 국회 운영과 관련,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식민지 처리 문제였다고 한다.

영국 의회는 세계의 역사는 ‘자유의 신장’ 쪽으로 발전해 갈 것이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영국이 갖고 있는 식민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 금세기 중엽에는 대부분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는 역사 인식에 따라 식민 통치의 방법 및 철폐 시기, 독립 후의 상호 관계 등에 대해 19세기 중엽부터 수없는 난상토론을 벌여 왔다는 것. 글래드스톤과 디즈레일리가 의회를 무대로 눈부시게 활약하던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년~1901년) 치세 때의 일이다.

“유니언 재크(영국 기)가 휘날리는 곳에 해 지는 날이 없다”던 영국은 과연 의회의 예견대로 제2차대전 후 갖고 있던 식민지들을 속속 내놓았다. 그래서 현재는 인구 500만 명(홍콩의 450만 명 포함)에 3만 평방마일도 못 되는 10여 군데의 속령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나 프랑스 또는 네덜란드와는 달리 영국이 인도 파키스탄 등 과거 식민지에서 ‘추하지 않게’ 물러난 것도 의회가 일찍이 마련해 둔 정치적 지혜 때문이었다.

유머 적은 우리 국회속기록

그러면 우리 헌정의 발자취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우리 국회의 회의록(속기록)은 어떤가. (『국회속기록』이 『국회회의록』으로 그 명칭이

바뀐 것은 5대 때인 60년 9월의 37회 임시국회 때부터였다)

우리의 국회회의록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 가는 논법, 유머, 정치적 안목 등 여러 면에서 영국의 그것에 견줄 수 없다는 게 두 나라 의사록을 읽어 본 인사들의 중평이다. 연설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입마, 내려와!” “무슨 잡소리여, 저게” “월남(패망)으로 보내라”는 따위의 야유와 응수는 영국 의사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또 우리 속기록을 보면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당리당략, 더러는 사리(私利)에 뿌리를 두고 행해지는 것들도 많다. 특히 많은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기정 방침을 맹목적으로 대변하거나, 건강부회한 논리로 정부를 감싸고 있음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국무위원들도 무성의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은 답변(후에 거짓으로 밝혀진 것도 있지만)을 한 예가 적지 않다.

우리 정치사상 첫 집권당인 자유당 이래 여야는 같은 시국을 두고도 견해차가 현저했다. 특히 유신 시절 야당이 “민주회복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해 온 데 대해, 여당권은 한결같이 “유신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를 고수해 온 사실도 속기록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또 지사풍의 연설도 크게 줄어들고 의원들의 유머도 5, 60년대에 비해 저급해진 느낌이다.

더구나 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자 국회는 유신체제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모두 삭제한 것은 주지의 일.

국회회의록은 유신을 거치면서 획일적이고 규격적인 발언들이 많이 게재돼 있어 재미도 그만큼 덜하다. 그것은 정당정치의 발달로 의원들의 개성이 그만큼 약화된 데다 특히 유신 이후 국회의 인적 구성이 ‘질적 저하현상’을 가져왔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수준이 저하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가시적·불가시적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인 정치규제, 정국 불안 등에 기인한 피해 의식, 지성인의 양식을 저버린 정쟁(政爭)에 기인한 정치에 대한 환멸, 제도권 정치(국회)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독재체제의 들러리라는 극단적인 논리 등에 따라 이 나라의 적지 않은 유위한 인재들이 현실 정치를 기피 내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 후 일부 노련한 정객들이 정계 은퇴를 한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런 국회의원 ‘감’이 되고도 남은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가 활약을 한다면 대정부질문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도 보인다.

현실 정치 참여를 기피해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획일적인 논리의 집권당이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 언로를 음양으로 봉쇄해 온 폐단 때문이라고 하겠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대 때 金玉仙 의원은 강경한 대정부 비판 발언을 하다 국회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와 불행한 전례 속에서 의원들이 양심에 입각한 진실을 토로하기는 어려우며, 창의성 있는 발언을 하기는 위험을 수반한 일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의원들의 발언 수준은 낮아져 왔다(국회사 무처는 회의록을 통상 1200부 만들어 의원들과 행정 각 부처, 언론 기관,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회의록을 자세히 보면 괄목할 만한 대목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동서고금의 지식과 명언과 경구를 곁들여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조리 있게 개진하고 있는 일부 의원(주로 야당 의원이지만)들의 국회 발언은 독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노련한 정객들의 대정부질문 중에는 교훈적이고 시사

적인 명언설도 적지 않다. 그런 연설 가운데 어떤 대목은 장차의 사태를 정확히 예언한 것도 있어 이채를 띠고 있다. 산전수전 겪으며 수십 년간 정치무대를 지켜오는 동안 저절로 정치의 본령을 터득한 때문일까.

우선 제3공화국의 분수령이 된 3선개헌을 앞두고 열린 국회에서 박 정권과 개헌 추진자들의 ‘앞날’을 예견한 야당 의원들의 대표적인 예언과 명언들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朴正熙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망합니다”(柳珍山 의원)

“한나라 한신이는 여후에 의해 죽을 때 교토사이(嬌兎死而)면 주구팽(走狗烹)이라고 토끼를 모두 잡은 사냥개는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냥개를 삶아먹었다는 글을 지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지금의 이 개헌을 지지하는 분도 한신이의 입장이 될 날이 머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趙漢栢 의원)

“만약에 쿠데타가 군에서 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정권은 여당에도 안 가고 야당에도 안 가고 또 군인이 잡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을 것입니다”(金炯一 의원)

“3선개헌은 내가 총을 맞고 칼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라고 분명히 밝힌 金大中 의원(신민)도 “나는 이 특정인을 위한 이 개헌이야말로 그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특정인을 망치는 길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이 불행하게도 또 한 번 역사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명했다.

『李 대통령은 3선, 4선하게 돼』

또한 제1공화국 시절 李承晩 대통령이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인 「5·26」 정치파동을 계기로 장기집권을 시도하자 당시의 金性洙 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부통령 사임서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지난번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관권의 압박을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 직접선거라는 것은 곧 현 집권자(주: 이 대통령)의 재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가 재선되면 장차 국회는 그의 추종자 일색으로 구성될 것이며, 그 후에 그는 그의 3선, 4선을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을 자재(自在)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니, 이처럼 하여 종신 대통령이나 세습 대통령이 출현하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김 부통령의 이 같은 예언은 이 대통령이 2년 후 3선은 물론 몇 번이라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 뒤 4선을 위해 60년 3·15 부정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그대로 적중하게 된다.

69년 3선개헌 때나 52년 정치파동 당시의 이런 예언들은 자기 비대화와 영속화를 지향하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절대 권력자로 계속 군림하려던 이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를 간파한 데서 도출된 결론이었다. 또 두 대통령이 추구했던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신한 데서 나온 정치적 예지였다.

이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이라는, 당시로서는 폭탄선언과도 같은 예언은 군대까지 동원된 당시의 정치정세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부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 스타일과 함께 4년간의 비정을 종합한 데서 나온 결론이었다.

이 대통령의 카리스마적인 퍼스널리티는 48년 7월 24일 국회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취임식 1주일 전에 공포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취임식에 즈음하여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정작 취임식에선 “나 ‘이승만’은 국민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하다”고 ‘이승만’과 ‘하나님’을 추가한 것이다. ‘하나님’도 이론을 달 소지가 없지 않지만 ‘나 이승만’이란 표현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그의 오연(傲然)한 성격과 정치관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이 문제는 국회에서 며칠 후 위헌 여부의 논란을 야기한다).

취임식에서의 이 같은 언동은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7월 20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196명 의원 가운데 무려 180명의 찬성표를 얻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많은 제헌의원들은 민족의 원수이자 구원자라는 최대의 찬사로 그의 당선을 축하했고 또한 기대해 마지않았다.

속기록에 의하면 徐廷禧 의원은 “유사 이래 오늘 같은 경사가 없고 우리가 3000만의 원수를 추대했다”면서, “방청석과 국회의원들이 총기립, 우리 대통령 이승만 박사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우리의 기쁜 의사 표시를 하자”고 제의했다. 또 이승만의 후임 의장이자 후일 정치적 라이벌이 된 申翼熙 의원도 “우리 민족의 원수이자 우리 독립운동의 노선배이시며 앞으로 우리 전체 민족을 구원해 주실 인물은 오직 이승만 박사 한 분이 계십니다”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것.

대통령에 취임한 이 대통령은 며칠 후 목사인 李允榮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 인준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를 59 대 132로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부결시켜 버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 내의 정파 간 이견으로 총리 인준이 되지 않았음을 은근히 비치면서 인준 부결은 민의에 배치된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의 리더인 언론인 출신 盧鎰煥은 7월 말 그의 독선적 면모를 제일 먼저 지적, 주목을 끌었다.

그는 “이번에 총리 인준이 부결된 것을 마치도 민의가 아닌 것처럼 해석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 대통령의 독선적 해석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고 전제, “그것은 마치 제국주의에 있어서의 ‘짐이 국가다’나 천황적 제도에 유사한 어법의 점이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고 공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독재자의 면모를 가진 정치인’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라 하겠다.

다음은 박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한 69년의 3선개헌을 비롯, 6·3 사태, 국가비상사태선언, 7·4공동성명, 유신체제, 긴급조치 등과 관련, 열렸던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의원 발언 중 결과적으로 적중한 명언, 경구, 이색발언 등을 추려 보기로 한다.

『3선개헌은 권력의 개인 소유화』

3선개헌을 반대하고 나선 많은 야당 의원들은 3선개헌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3기의 임기를 끝내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숨 돌린 후 본격적인 영구집권 음모를 꾸밀 것을 경계했고 우려했다. 69년 8월 7일 공화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3선개헌안에 대한 국회 질의는 9월 10일부터 시작됐다.

변절 3의원(成樂紘, 曹興萬, 延周欽)의 의원 직을 상실케 하기 위한 신민당 해체가 단행된 후여서 ‘신민회’라는 교섭단체 이름으로 첫

등단한 조한백 의원(제헌의원·체신장관)은 “장기집권을 할 때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그러한 야욕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는 정권욕에 불타가지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재를 감행하기 쉬운 것이요, 독재를 해 나가는 긴 동안 정권이 부패에 이르기 쉬운 것”이라고 지적했고, 鄭相九 의원(현 신민당 의원)은 “3선개헌은 뢰벤스타인 식 신대통령제를 제안하여 권력구조를 개인 소유화하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해 김대중 의원은 “박 대통령이 없으면 그를 둘러싸고 지금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니면 반공이나 건설이 안 된다는 억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다각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움직임이 안 보이자, 徐範錫 의원(6선 의원, 73년 정계 은퇴)은 “박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가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민족의 위대성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히 짓밟을 만한 것이 아니다”고 상기시켰다.

金泳三 의원도 “이 박사도 국민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박정희 씨가 국민을 이기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다”고 전제, “만일에 박정희 씨가 3선개헌을 포기한다고 이 시간에 선언한다면 그를 독재자라고 공격해 온 나는 그 말을 고쳐 박정희 씨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위대한 애국자요, 이 나라에 영원히 남는 정치적인 심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숭앙하자는 얘기를 하겠다”고 색다른 제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의 개헌 공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명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화당의 崔熙松 의원은 “개헌을 한뎀자 민주주의는 없어지지 아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니하고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세요. 정치는 힘이에요 현실인데, 현실을 무시한 정치가 어디 있어요. 또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법의 구애를 받아요?”라는 견해를 표시했고, 盧載弼 의원은 “나도 가족이 있고 70 넘은 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부흥을 위해서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고 피력했다.

『정보정치의 뒷받침으로 추진』

더욱이 李丁錫 의원은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어째서 독재가 되며, 어째서 부패가 조장되며, 어째서 장기집권을 하면은 이 나라가 안 된다는 그러한 이론을 아직도 발견 못 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개헌을 지지하는 사람은 역적이 되고,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다, 이거 어디서 나온 문자요. 이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히틀러보다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3선개헌 반대론자를 히틀러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인 것.

아무튼 3선개헌 반대 발언엔 야당에서 20여 명의 중진 의원들이 나서 나름의 논리를 구사, 열변을 토했다. 그중에서 압권은 維石 밑에서 원내총무를 지내기도 하면서 폭넓은 정치 식견을 익힌 유진산 의원의 명연설이었다.

당시 俞鎮午 신민당 총재 아래 수석부총재였던 유 의원은 박 정권이 끝내 3선을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 의해 망한다는 말을 했음은 이미 밝힌 대로다. 이날의 발언 경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공화당을 대표해서 白南檣 의원 등이 나와 답변하는 내용이 15년

전(54년) 소위 4사5입 개헌안 상정 당시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던 자유당 張暲根 의원 말과 어찌면 그렇게 어구 하나도 틀리지 않느냐”는 말로 서두를 댈 유 의원은 3선 금지 조항은 1인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라는 점에서 국체를 규정한 헌법 제1조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3선개헌은 정보정치에 뒷받침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의 생리와 본질을 역설한 그는 “3기를 해서 12년에다 2년 7개월의 군정 기간을 합쳐 모두 14, 15년의 장기집권을 해 가지고서 박 대통령이 물러갈 용기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박 대통령을 5·16혁명 이단자라고까지 몰아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1기를 더해서 몰락한 10년 전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고 개탄한 진산은 특히 일본이 변명을 이룩한 것은 정보정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 의해 망한다”고 결론지었다.

국회속기록은 「소란」 「웃음」 「취소해요」 등 본회의장의 분위기까지도 그때그때 사실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진산의 연설 중 소란 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날 여당 의원들은 진산의 그 같은 강경한 발언을 조용히 들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진산의 논리가 정연했고 충정에 겨웠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진산의 그런 ‘예언’이 있는 후 10년 만인 79년 10월 26일, 金載圭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마쳤다.

진산은 박 대통령의 ‘운명’을 딱 부러지게 예언한 셈이지만, 조한백 의원은 개헌을 앞장서서 추진한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운명을 그런대로 적중시켰다고 하겠다. 물론 “개헌을 앞장서서 추진한 인사”라고는 표현하지 않고, “이 개헌을 지지하는 분”이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지만, 전후 맥락으로 보아 ‘개헌 추진 인사들’을 지칭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조 의원은 모두에 인용한 대로 토끼를 다 잡은 후의 사냥개의 운명과 ‘고조진(高鳥盡)이면 양궁장(良弓藏)’(높은 곳에 있는 새를 활로 다 잡은 후에는 좋은 활도 소용이 없으니까 쓰지 않고 감추어 둔다)이라고 쓸모없는 양궁에 비유하여 개헌 추진인사들의 ‘내일’을 빗댔다.

개헌 추진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金炯旭 씨가 맡았다.

당시 그가 정보부로 연행해 온 개헌 반대자들에게 설득한 논리는 다음과 같이 유치한 것이었다고 한다.

“너희들이 3선개헌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조함으로써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질서가 매우 문란해진다. 사회 질서가 문란해짐으로써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이북에 선전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럼으로써 이 적분자다”(77년 6월 27일 신민당 崔炯佑 의원 발언 중에서 인용)

“교토사이 주구烹(嬌兎死而 走狗烹)”이라는 2000여 년 전에 갈파한 독재권력의 생리를 잘 몰랐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유임’의 언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 씨는 3선개헌이 끝난 후에도 그대로 눌러앉아 있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한다.

3선개헌 후 4인체제 붕괴

김 씨와 함께 일하다 3선개헌 후에 정보부를 떠난 한 인사는 “이임 인사차 김 부장을 방문했더니 ‘개헌에 수고가 많았소. 대통령 각하께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던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면서 은근히 부장 유임을 시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전별금이라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나와 뜯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영이 하나 더 있었지요”라고 회고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탓인지 국회를 통과한 3선개헌안 국민투표가 끝난 꼭 10일 후인 69년 10월 27일 당일까지도 김 씨는 경질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날 오전 “청와대로 올라오라”는 전갈을 받고도 긴가 민가 했던 그는 청와대로 들어가던 중 무장해제를 당함으로써 뒤늦게 경질을 알아차렸다는 것.

3선개헌이 본격 추진되기 직전, 자택 부근에서 초산테러사건을 당한 김영삼 의원은 3선개헌안 첫 반대토론에 나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는 민족 반역자로서 길이길이 우리 역사에 남을 것이요, 민주주의의 반역자로서 남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튼 3선개헌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김 부장은 개헌 후 첫 요직 개편 때 李厚洛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제1차로 권좌에서 물러났었다.

국회 쪽에서 개헌을 추진했던 김성곤 의원(75년 작고)이나 吉在號 의원(작고)도 개헌이 끝난 뒤 실세(失勢)의 길을 걸었다. 당 재정위원장으로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주무르면서 이른바 4인체제의 리더격이던 김 의원은 약 2년 후인 71년 6월 당 요직 개편 때 재정위원장직에서 전혀 실권이 없는 중앙위 의장으로 밀려났다. 지역구 의원(충남 금산)으로 사무총장이던 길 의원도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4번)로 옮긴 데 이어 곧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3개월 후 ‘10·2항명’ 파동으로 박 대통령의 강권에 의해 공화당을 탈당, 의원 직을 상실함으로써 정계를 떠나게 된다. 길 씨는 8년 후인 79년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임명돼 2년 가까이 재임했다. 하지만 그는 재임 시 협회의 임직원들에게 정치에 관한 얘기는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4인체제의 한 사람으로 3선개헌안 제안설명을 맡았던 백남익 의원은 71년 2월 당 요직 개편 때 당의장서리를 맡았고, 역시 4인체제의 1인 金振晩 의원도 허울뿐이던 재정위원장에 임명됐지만 김성곤, 길재호 양 씨가 정계를 떠남에 따라 당내 주류 위치를 완전 상실하게 된다.

김재규의 정보부장 기용을 제외하고 보면 가위 천재적인 용인술을 구사해 온 박 대통령은 보다 권한이 적은 자리로 점차 밀어냄으로써 권력을 약화시키는, 단계적인 거세 방법을 4인체제를 붕괴시키는 데도 활용했다.

아무튼 이런 개인적인 문제 외에 3선개헌이 관철될 경우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당시의 야당 의원들은 보았을까? 많은 야당 의원들은 이 나라의 ‘내일’을 몹시 우려했으며, 더러는 쿠데타의 가능성을 예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金守漢 의원(현 신민당 부총재)은 “국헌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 나는 앞으로 이 나라는 중대한 판국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무소속의 서호 의원(작고)은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차 한번 잘못해 가지고 불행한 방향으로 결말을 보게 될 때에는, 외람되나마 나는 불원 장래에 중대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의 악순환을 예고한 사람은 첫머리에 소개한 대로 신민당의 金炯一 의원(78년 6월 향년 55세로 작고·예비역 육군 중장·신민당 사무총장, 원내총무·4선 의원)이었다.

46년 군사 영어학교를 나온 김 의원은 53년 미 육대를 졸업, 2군 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차장까지 역임하다 5·16 후 예편돼 야당인 민

중당 의원(전국구)으로 정계에 투신했었다.

경성법전(45년)과 미 프레즈노대(64년)를 졸업, 문무를 겸전한 김 의원의 해당 부분 발언을 그대로 옮겨 본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외부의 큰 힘에 의존해서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거나 어떠한 정권을 뺏으려고 해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쿠데타가 군에서 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권이 야당에 갈 줄 아십니까? 정권은 여당에도 안 가고 야당에도 안 가고 정권은 군인이 잡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러나가고 또 판 권력이 나와서 쿠데타의 악순환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에 의지해서 정권을 연장시키거나 또한 정권을 잡겠다는 이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일부러 데모 격화시켜서야』

군 출신 엘리트인 김 의원이 마지막 결론에서 말한 ‘어떤 힘’은 바로 군부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정권을 잡을 경우는 물론 정권을 연장하는 데도 이 ‘힘’을 이용하는 것을 극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6대 국회 개원 직후인 64년 1월 30일 제40회 본회의 석상에서도 “5·16 군사 정부는 잘한 것도 있지만, 총결산을 해 볼 적엔 완전 적자”라고 전제,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상례이므로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신민당 의원들은 물론 鄭求瑛 芮春浩 楊淳植 朴鍾泰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격양시킨 3선개헌안은 69년 야당 의원들의 간곡한 철회 호소에도 불구하고, 9월 14일 새벽 국회 제3별관에서 여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당 측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변칙 통과되고 말았다. 정부 여당의 권력과 금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한 달 후 실시된 개헌안 국민투표는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

3선개헌은 군사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박 정권의 생리와 병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른바 ‘무한정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박 정권의 그런 생리와 병리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첫 케이스는 64년 6·3사태 때 발동한 비상계엄에서였다.

한일회담 반대 및 박 정권 퇴진에 초점을 맞춘 6·3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그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며, 6월 12일엔 이를 따지기 위한 국회가 열렸다.

민정이양 후 처음 맞은 ‘핫 이슈’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은 많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에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부러 데모를 격화시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삼민회의 서민호 의원은 6·3사태가 격화된 데 대해 자신의 목격담 등을 인용해 가며 이렇게 증언했다.

“내무장관의 국회 보고에 의하면 막대한 경찰관 수가 피해를 당했고, 많은 파출소 등이 파손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비롯, 그 외의 여러 사람이 직접 목도한 것은 6월 3일 그 당시에 중앙청 앞으로 데모가 쏠릴 때에 얇은 노란색 작업복을 입은 30대가까운 청년 1000여 명이 같이 섞여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중앙청 앞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그 트럭에 뛰어올라가 학생들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고 전부가 군인이었습니다. 내 막내 자식 놈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파출소에 사람 하나가 없더라는 것이요. 깡패 구두땀이

등이 파출소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을 내 자식 놈이 말린 실례가 있습니다. 또 그 중요한 무기고를 사수한 사람도 학생들이 아니었습니까?”

6·3사태 전인 5월 21일 일부 공수단 군인들의 법원난입사건이 일어나자 열린 국회에서 민주당의 曹在千 의원(작고, 민주당 대변인·법무장관)은 5월 23일 서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정부를 추궁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생 데모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을 경찰관이 중간에서 분단을 하고 포위를 하고 그대로 데려가도 될 수 있는 것을, 도발을 해 가지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또 군인들이 내란의 성격을 가진 그런 망동(군인 법원난입사건)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동정과 옹호를 보내고 하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이러한 사태를 조성해 가지고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구실로 삼자 하는 저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64년 제안됐던 학원보호법안

이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물론 “계엄령을 선포할 저의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6·3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당일 밤 서울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만다.

비상계엄 선포 후 열린 국회에서는 많은 ‘명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늘날까지도 교훈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의 발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비상계엄이라 하는 것은 극약입니다. 사람이 병이 위독할 때에 잠깐 쓰는 약이에요. 이 극약을 장기간 사용할 것 같으면 그 신체 자체가 저절로 자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멸 상태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병은 고칠는지 알 수 없으나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李相喆 의원. 작고. 내무장관·국회부의장)

“중국의 梁啓超가 한민족은 정치 역량이 없다고 평가했다지만, 참 너무나 정치 역량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힘만 가지고 하려고... 정치가 그런 것 아니에요. 지혜와 덕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굽혀 드려야 합니다. ... 이 양반(박 대통령) 회개 안 하면 이 대통령 전철을 밟을 것이에요.”(錢鎮漢 의원. 작고. 초대 사회부장관·5선 의원)

6·3사태 후 정부가 성안한 것이 학원보호법인데 이 법안은 정부가 일단 보류한 작금의 학원안정법안과 발상에 있어 뿌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6·3사태라는 첫 번째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3선개헌까지 끝낸 박 정권은 야당 의원들이 이미 예기한 대로 영구집권의 정치작업에 착수한다.

그 첫 조치가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국가보위특조법안 강행 통과라고 볼 수 있고, 7·4공동성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안보 핑계로 정권 연장해서야』

이런 조치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헌정의 내일과 관련,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 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은 무엇이었던가. 실감나는 ‘어록’을 간추려 본다.

8대 국회의원 선거와 7대 대통령 선거 운동으로 야기된 선거 열풍이 한바탕 전국을 휩쓸고 간 71년도 저물어 가던 12월 6일, 박 대통령은 느닷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었다. ‘5·25선거’에서 89명이란, 우리 의정사상 초유의(당시까지)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 신민당은 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신민당수이던 金弘壹 의원(작고. 주중대사·외무장관·광복회장)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안보를 핑계한 정권안보에 주안을 둔 반민주적인 유예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많은 신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선언이 “정권 연장을 위한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 진상을 따지고 들었다.

“정부는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梁一東 의원. 작고. 통일당 총재·5선), “안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배후에 무슨 꿍꿍이속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朴炳培 의원. 신민당 정책심의회 의장·통일당 부총재·5선), “스케줄대로 헌정을 짓밟는 사태가 온다면 안보고 무엇이고 다 소용 없게 된다.”(劉沃祐 의원. 작고. 민한당 부총재·5선)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이런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당시 金鍾泌 총리는 “이 비상사태 선언이 결코 무슨 안보를 핑계대서 국민을 억누르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아무런 복선 없이 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일차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받아 달라”고 했다. 정권적 차원이 아닌 안보적 차원에서 이 선언을 발표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막간에 국가보위법과동이 있던 뒤 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문공부는 ‘북괴’를 ‘북한’으로 호칭하고 김일성에 대한 중상비방을 삼가토록 각 부처 등에 시달렸다.

북괴의 남침 위협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경고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까지 한 정부가 고위층 간의 대화 끝에

I. 의회속기록의 가치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은 커다란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씨가 민주주의의 꽃을 이 땅에 심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지만, 오늘날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점점 판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이번 남북회담을 통일을 빙자한 정권 연장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눈치가 보인다”고 넘겨짚었다.

신민당 尹吉重 의원(진보당 간사장·국회 부의장·현 민정당 의원·5선)은 “지금 뽕뽕 얼어붙은 민중의 마음을 통일이라는 한 개의 민족적인 이슈에다가 불을 붙여서 전환시키고 국내적으로는 보위법 비상사태 선언 등으로 다시 얼음과 같이 뽕뽕 얼어붙게 한다”고 전제, “이런 것을 결국 정권 연장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李世圭 의원(중앙공무원교육원장·사단장·육본 인사참모부차장·신민당 입당 후 전국구 의원)도 “비록 정치 일선에서 있기는 하나 과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옛 전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회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해야겠다”고 자신의 착잡한 감회를 털어놓은 뒤 “이번의 남북대화는 쌍방 모두 복잡한 내부 사정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비밀계획서 속에 政界改編案』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질문과 추궁은 문제의 핵심을 찌르지 못한 채 변죽만 올리는 답답한 것들이었다. 의원들의 질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박 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어 7·4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추진토록 했느냐 하는 일반의 의문을 풀어 주는 데는 미흡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의문을 鄭一亨 의원(작고, 외무장관·신민당 총재권한대행·8선)이 다소나마 풀어 준 것이다. 즉 머지않아 국회를 해산, 정계를 개편해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는 풍설을 국회에서 발설한 것이다.

“풍설에 의하면 지난 70년 10월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李厚洛 씨가 대통령에게 상신한 비밀계획서 속에 박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75년 이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정계를 개편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김 총리는 이 풍설을 알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일이 절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총화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통일 노력을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발상은 마땅히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이후락 정보부장을 상대로 한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이미 예정된 10월유신의 정치적 충격을 완화해 보기 위해 사전에 취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고, 7·4성명은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쏠리게 하는 돌파구로 이용된 것으로 풀이해 볼 수도 있다.

어쨌든 7·4성명 3개월 후인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비상조치들을 취했다. 군 탱크가 의사당을 점거한 17일 19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중지시켰으며,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른바 ‘10월유신’(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이라는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가 단행된 것이다.

지난 69년 3선개헌 이래 수많은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도 우려해 마지않았던 ‘헌정 중단’이라는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비상국무회의가 마련한 유신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91%의 찬성 투표율로 확정되고,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참석 대의원 2359명 가운데 2357표를 얻어 선출된 박 대통령이 72년 12월 27일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는 공식 출범했고, 정치 활동은 재개됐다.

‘10·17’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은 유신체제하에서의 ‘진로’를 놓고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종전과는 달리 대통령 선거 제도가 직선에서 ‘통대’의 간선으로 바뀐에 따라 선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계속 당 총재 직을 맡느냐에 대해 분명한 의사표시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 직 취임 여부를 잠시 주저한 것은 유신헌법하에선 대통령은 초당적 위치에 서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韓泰淵 교수 등은 위기관리의 성격이 짙은 드골헌법의 예를 들면서 공화당과의 관련을 끊어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다고 건의했었다. 이 같은 이론에 일부 행정부 인사들도 동조했다. 유신헌법은 드골헌법을 많이 본뜬 것이었다.

그런 탓이었는지 박 대통령이 72년 12월 30일자 丁一權 공화당 의장서리에게 보낸 친서는 “유신체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당의 진로가 정립돼야 한다.” 또는 “당의 모든 부면에서 유신 이념의 구현을 위한 전진적인 개혁과 당풍의 일신이 선행돼야겠다”는 등의 당부는 있었지만, 자신의 총재 겸임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았다.

『유신 도깨비 독재로 야당 압살』

그래서 공화당 당직자들이 한 교수 등에게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 건의를 하느냐”고 제동을 거는 한편 대통령을 찾아가 총재 직을 그대로 맡아 주도록 간청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런저런 점을 감안, 73

년 1월 1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총재 직을 그대로 맡겠다”고 밝히게 됐다는 뒷얘기다.

이로써 공화당은 집권당의 명맥을 잇게는 됐지만 유신 이전의 기세등등한 공화당은 이미 아니었다.

공화당 간부들조차 소외된 가운데 유신체제는 출범했다.

유감스럽게도 71년 대통령 선거전에서의 김대중 후보의 예언, 즉 만일 이번에 정권교체가 안 되면 1인의 영구집권을 뜻하는 총통체제가 될 것이며,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말은 적중한 셈이다.

또 박정희 후보의 ‘마지막 호소’—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한 번 더 뽑아 주십시오 하는 정치 연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도 그대로 맞아떨어졌다고 비꼬는 이들도 많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나를 뽑아 달라는 선거 연설을 하지 않고도 두 차례나 대통령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라는 것.

아무튼 79년 ‘10·26’으로 유신체제가 사실상 몰락할 때까지 ‘유신’을 둘러싸고 여야는 무려 6년 동안이나 평행선을 그으면서 지루한 공방전을 계속했다. 그런 가운데 갖가지 명언, 경구, 이색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예언 명언 중 일부는 국회의장의 직권삭제로 지금까지도 햇볕을 보지 못한 채 속기록 원본에만 기재돼 있다(속기록 원본은 의원이라도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10월유신 1년 만인 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생의 반정부 데모로 발단됐지만, 이 체제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신민당의 유진산 총재였다.

진산은 73년 11월 6일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1년간 유신체제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씨 납치사건(73년 8월)이 생겼고, 이에 따라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국가 위신이 손상됐다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새로운 손질’을 완곡한 표현으로 제의했다(당 간부들이 숙의해서 써 준 원고를 제쳐 두고 자신의 평소 소신을 중심으로 행한 이 연설은 결과적으로 진산의 마지막 의회 발언이 되고 만다).

그런 진산이 정면으로 유신헌법 개정을 들고 나온 것은 74년 초인 1월 8일이었다. 그는 “집권당이 ‘유신’이라는 도깨비 독재로 우리를 압살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 당의 노력은 아랑곳없고 독재만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주창한 것이다. 이 제의에 따라 신민당 정무회의는 참된 민주주의 헌법 체제로의 복귀를 위하여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데 진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결의문이 작성되고 발표된 후 진산은 “이제 신민당 의원들은 어찌면 국회를 박차고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진산의 ‘단호한 결단’에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당 간부 대부분은 내심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당황한 것은 관계 당국이었다고 한다. 신민당이 “아직은 개헌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던 당국은 서둘러 이날 오후 긴급조치 제1호를 발표했다.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 위반자 또는 이 조치의 비방자까지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한다는 것이 긴급조치 1호의 골자였다. 진산은 이 조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일품이었던 珍山の 대정부 질문

진산은 이틀 후 중앙청 옆 서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결장암 수술을 받았다. 끈질긴 투병 생활을 하

던 그는 74년 4월 28일 한양대부속병원에서 영면했다. 진산은 생전에 세인들에게 밝지 못한 이미지를 남겼지만, 그의 대정부 질문은 지금까지 인용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품이었고, 와병 직전의 개헌 결단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마지막을 훌륭하게 장식한 셈이다.

74년 들어 유신체제에 대한 첫 공방전은 8월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유정회의 한태연 의원과 신민당의 李宅敦 의원(대변인·정책심의회 의장·현 신민당 의원) 간에 전개됐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찬반의 논리를 펼치 때문에 그 요지를 전제한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얼마 전 한일민간협력위원회 멤버의 한 사람으로 동경에 가서 긴급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요즈음 한일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의 감귤 밭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제주도라는 섬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감귤은 더운 거기서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 감귤 밭에 묘목을 심기 전에 반드시 방풍림을 심고 바람막이를 한 다음에 감귤을 심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방어민주주의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 단계는 방어민주주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하기 위해서는 북방으로부터의 거센 바람을 막아야 한다, 바람을 막지 않고 민주주의를 심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제주도 감귤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뜻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유신체제의 근본 정신은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화원을 가꾸자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택돈 의원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

“제주도 감귤나무까지는 매우 마음에 끌리는 대목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바람을 막기 위해 벽을 친다는 데 대해서는 고개가 좀 외로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풍을 위해서 어떤 벽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 벽을 친 것이 아니냐, 왜 바람도 없는데 저렇게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를 할 부작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바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미풍 정도다, 이 미풍은 감귤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무 모든 삼라만상에 있어서, 더구나 사람으로 말하면 도수체조에 가까운, 나무의 건강에 좋은 그런 미풍을 돌풍으로 알아 가지고, 그야말로 태풍으로 알아 가지고 쓸데없는 장벽을 많이 친 것이 아니냐, 미풍이 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딧물도 떨어지고 또 줄기가 강해지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기도 한데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바람을 막다가 보니까, 너무 막아서 방풍이 아니라 아주 폐풍(閉風)이 되어서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까딱하다가 병에 걸려서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그런 우려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대학은 무한』

식물, 즉 자연과 인간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결들인 이 반론은 즉석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두 의원은 사제지간으로 이 의원은 서울법대 재학 시 한 의원으로부터 헌법 강의를 들었다.

자유당 시절 반정부 교수로 지목받기도 했던 한 의원이 저술한 명저 『헌법학』은 당국으로부터 한때 판금 조치를 당했었다.

그해 8월 23일 신민당 총재로 당선된 김영삼 의원은 10월 7일 대표질의에서 개헌 주장과 함께 후퇴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

의 하야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의 난국, 오늘의 위기는 그 원인이 1인 독재와 장기집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단정한다”고 언명했다.

74년의 정기국회에서는 그해 4월의 민청학련사건과 73년 말의 제1차 오일쇼크가 우리 경제를 강타한 후여서 경제 문제와 학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당시 신민당 소속이었던 陣懿鍾 의원(전 총리)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복귀와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지양될 때 이 나라에는 참다운 번영이 이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신 풍조를 시정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몇 특권층 간의 배급식으로 이뤄져 온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서 그야말로 경쟁과 창의, 그리고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하는 길만이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요, 또한 국민총화도 이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에 있어서 관권의 비호를 받는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 내지 부패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이 나라에는 참다운 번영이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李基澤 의원(신민)은 대학과 학생 문제에 언급, “정권은 유한해도 대학은 무한한 것입니다. 만약에 현실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대학생들이 반국가적이라면, 이 자리에 선 본인을 비롯, 수많은 그 당시의 4·19 세력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면서 독일의 저주스러운 운명과 비참은 그렇게도 많은 대학들의 자유 정의 진리를 위한 투쟁이 나약했기 때문이라고 개탄했던 토인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학생 문제에 대한 독특한 견해는 朴容萬 의원(현 신민 의원·3선)이 75년 7월 3일 柳基春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생각건대 아마도 학생들이나 교수를 귀하가 쫓아낸 것은 소위 말하는 문제 교수, 문제 학생이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장관께 문졌소. 우리가 20여 년 전 대학을 다닐 적에 문제 학생이니까 사회에 나와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다, 문제 학생이니까 국가에 봉사 못 했다,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20년 전을 회상해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본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단상에 앉아 있는 李哲承 국회 부의장, 저 공화당의 朴浚圭 의원, 신민당의 宋元英 의원, 심지어 유정희의 金龍奎 의원, 함중빈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 다 문제 학생들이오.”

서울 문리대 동창인 유 장관을 공박한 박 의원의 말이 이에 이르자, 의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속기록은 전한다. 박 의원의 발언은 계속된다.

유신체제 유지에 막대한 출혈

“십지어는 여기 앉아 있는 국무총리 김종필 씨도 학교 당시에 문제 학생으로서 학업을 못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귀하가 생각하듯이 모범적인 학생을 길러내고 모범적인 학생만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까? ...틀에 박힌 그와 같은 군대의 병영에서 빼내던 ...기계와 같은 학생들을 빼내서 뭘 하겠다는 거요!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문제 학생으로 있던 김종필 씨나 이철승 의원이나 나나 박준규나 오히려 국가에 크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웃음소리). ...귀하가 생각하듯이 그와 같은 대학생들을 만들어 내 가지고 사회에 나가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오. 나는 모름지기 대학교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한 나라를 양손에 걸머지고 요리할 수 있는 포부를 길러 주고, 그와 같은 배짱과 포부를 길러 주는 데 학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사람이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낭만을 키워 주는 데가 바로 대학의 교육이요,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가 바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임에 관해서는 하등의 규정을 결여한 유신체제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여러 가지 대형 사건을 일으키자 송원영 의원(신민)은 75년 3월 질의를 통해 이를 통렬하게 비난한다.

그는 “10월유신 이후 2년 반에 걸쳐서 속출되었던 큰 사건만 하더라도, 김대중 씨 납치 사건, 긴급조치 사건, 국민투표, 동아일보 광고 탄압, 그리고 고문 문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소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 “결국 유신체제라는 이 엉뚱한 제도는 그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막대한 출혈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의원의 유신 체제 비판에 대해 당시 김종필 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역사는 변천합니다. 오늘 판단한 것이 꼭 내일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사리를 제공해 주지만, 교훈은 못 됩니다. 그것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써 들어가는 것이지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 김대중 씨가 뭐라고 했건, 윤보선 씨가 무어라고 했건, 이와 같은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철학에서 나온 10월유신이기에 때문에 10월유신을 단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총리의 답변 중 주목되는 점은 역사는 교훈이 못 된다는 주장이다. 진산은 6년 전 같은 국회에서 3선개헌 반대 토론 때 9년 전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몰락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역사가 그대로 10년 만에 한 번씩 되풀이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참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나 100년이나 1000년이 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역사의 교훈 부정한 金鍾泌 총리

김 총리의 답변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연상케 하는 오연함을 풍기고 있다. 반면 진산의 말은 역사의 교훈, 즉 그의 표현대로 천리(天理)에 부응하려는 겸허한 인간과 철학을 연상케 한다.

75년 3월 열린 91회 임시국회는 체제 논쟁 등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소(牛)에게 물을 먹인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해서 전부 구속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먹인(고문을 가리킴) 자들은 어떻게 처벌하지 않느냐”고 따진 崔炯佑 의원(현 신민당 부총재)의 발언으로 폭소를 자아내 한때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도 했다.

재야인사와 학생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자, 야당 의원들은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형일 의원은 75년 7월 1일 “북괴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민주정치를 하고 있다는 실증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79년 7월 23일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자유의 유보가 아니라 자유의 신장이며, 인권의 탄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며, 언론의 통제가 아니라 자유언론의 창달이며, 1인체제가 아니라 민주체제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취지의 주장은 54년 11월 3선개헌 반대 토론에 나선 조재천 의원(민주당)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공산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독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에 충실한 길을 걸어갈 때 강력 정치는 결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야당 의원들도 동일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과 대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무려 30여 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테마라 할 수 있다.

75년 4월 30일의 월남 패망은 정부와 야당 또는 여야 의원 간에 격심한 논쟁을 몰고 왔다.

월남 패망 2개월 후인 75년 7월 열린 92회 임시국회에서 김 총리는 반(反)티우 운동 학생 및 재야인사들에 의한 민주화 운동, 민권 운동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적 단결을 저해해 해 결국 패망의 길을 걸었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일 의원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단결이 안 된 것은 집권자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독재정치로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집권층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월남과 크메르는 민주주의를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해서 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韓英洙 의원(구 신민당 대변인·민한당 정책심의회 의장)은 “티우는 월남은 나만이 수호할 수 있고 자기는 국가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하면서 독재와 부정부패를 하고, 결국은 국민의 불신을 당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좋은 무기와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졌으면서도 결국은 정치전에 패함으로써 월남은 망했다”고 말했다.

74년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유신체제를 ‘시험관 아기’에 비유한 바 있는 한 의원은 김 총리가 월남보다 더 독재를 한 월맹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역설적인 반문을 한 데 대해 맹공을 가했다.

“이 나라의 총리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안보상 중대 문제”라고 지적한 그는 “티우가 만약에 월맹보다 더 철저한 독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재를 했으면은 월남은 월맹한테 망하지를 앓는다는 결론이 유도되는 것이며,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김일성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북괴 공산집단보다도 더 강력한 독재체제를 굳혀야만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월남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0년 뒤의 사태는 어떻게 막나』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긴급조치로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1, 2년, 2, 3년의 통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뒤에, 10년 뒤에 오는 사태는 어떻게 막자는 것입니까?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상태로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0년 뒤에는 패망 직전의 월남과 같은 사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날 韓·金 두 의원의 발언은 여러 군데나 삭제됐다. 그러자 신민당은 회의록(속기록) 삭제 문제를 본격 거론키로 당론을 모았다.

당사자인 김형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모든 국사의 속기는 헌정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기록되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참고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삭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김수한 의원도 회의록 삭제는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긴급조치 9호에도 위반되므로 삭제된 발언들을 다시 게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삭제는 이에 앞서 73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영삼 의원이 73년 9월 24일 김대중 사건에 대한 질의 중에 “이 나라에는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국회 의장이 국회법에 의거, 일부 구절을 삭제했었다. 이에 당시 신민당

대변인인 蔡汶植 의원(전 국회의장·현 민정당 의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론을 제기, 시정을 촉구했다.

“국회법보다는 헌법이 상위법이고, 헌법은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 운운해 가면서 이것을 회의록에서 뺀다 하는 이런 행태가, 이런 비리, 비례(非例)가 자꾸 늘어져 나갈 것 같으면, 국회에서 발언해서 무엇 하느냐는 데까지 연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불행스런 일이고, 이런 조치가 철회돼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회의록 삭제는 75년 10월 8일 국회에서 金玉仙 의원(현 신민당 의원)이 강도 높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 절정을 이뤘다. 5분 남짓 연설하는 동안 무려 9군데나 삭제됐고, 여당권 의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자 끝내 연설이 중단됐다.

“(前略) 스탈린 히틀러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치체제를 분석한 뉴만 브레진스키 등은 독재체제의 통치 기술상의 특징을 대충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심리 조성, 둘째 사이버 민주주의적 제도, 셋째 경찰의 테러, 넷째 커뮤니케이션 독점, 다섯째 안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섯째가 지도자 원리의 강조라고 합니다. …… 독재자의 온갖 실정과 또 그로 인한 민생고는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아래 깔려 문히게 됨으로써 국민은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사병(私兵)이 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전투와 같은 상황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소란)

○ 부의장(金振萬) : 조용히 하세요.

○ 김옥선 의원(계속) : 의장!

○ 부의장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옥선 의원! 질문을 하시오. 질문을. 학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오.

○ 김옥선 의원(계속)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장내 소란)

물론 북괴의 남침 위협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극에 달한 전쟁 위기 조성의 이면에는 남침 대비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 부의장 : 김옥선 의원! 학술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질문을 하시오.

○ 김옥선 의원(계속) : 의장! 발언권 주시오. 저 잡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 부의장 : 좌석이 소란하지 않습니까? 좌석이 소란하니까 질문을 하시오!

○ 김옥선 의원(계속) : 지난여름 전국을 뒤흔든 각종…… 민방위대 편성, 학도호국단 조직, 요즘도 TV에 나오는 군가, 그리고 정부의 끊임없는 전쟁 위험 경고 발언,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구호, 실로 안보를 앞세운……

(장내 소란)

○ 부의장 :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 부분은 의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른바 김옥선 파동을 유발한 마지막 대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유신체제 종국은 서글픈 일』

군데군데 삭제돼 있어 발언 진상을 알 수는 없지만, 안보를 정권 유지 내지 정권 연장에 이용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발언이 있는 후 즉각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국회 법사위

에 회부됐고, 김 의원은 결국 의원 직을 사퇴하게 된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적인 반론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삭제 조치는 10·26 이후까지도 계속됐다.

吳世應 의원(당시 신민·현 민정당 의원)은 76년 11월 4일 열린 외무위에서 “박동선 사건에 대해 1시간 10분간이나 발언했는데 몇 줄밖에 나지 않았으며, 박동선이라는 이름을 아마 한 사오십 번 불렀지만 이 회의록에 ‘朴東宣’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77년 10월 5일 본회의 질문에서 폭로하기도 했다.

월남 패망의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될 수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이었던 우선 패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래서 안보 무드는 한껏 고조돼 갔다.

여당권은 ‘평시의 논리’보다 ‘전시의 논리’가 승할 수밖에 없는 안보 무드를 이용, 유신체제의 정당성 등을 역설, 체제 도전을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에 전력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75년 10월 대정부 질문에 나선 曷奉根 의원(유정)은 “10월유신 3년을 맞이 이 시점에 와서 모든 국민은 새삼 10월유신의 가치와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또는 “이 체제를 부정하는 국민이 있다면 정말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는 모든 국민의 유신체제의 생활화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신체제는 난국에 처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아나가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라면서 “개헌 운운하는, 유신체제에 대한 부정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한국화의 도전 행위, 아니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저지하는 행위”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구사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했다.

김옥선 의원의 사퇴 사건과 함께 안보무드의 팽배로 76년과 77년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의 정국은 대체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반년 앞둔 78년 3월 개최된 99회 국회에서부터 야당의 공세는 가열되기 시작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요리하는 작업”이라면서 느슨한 태도를 보여 왔던 이철승 의원(당시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마저 78년 봄엔 체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 1000달러짜리 비대해진 그 몸에 여전히 200달러 300달러짜리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이 거울에 비춰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총리! 각료 중에서는 총리께서 제일 몸이 건강하시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작은, 가령 재무장관(당시 김용환 장관) 옷을 총리가 입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웃음소리)…… 옷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현정의 실태입니다. 지금 바뀌 입지 않으면 언젠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한 정치 제도는 정치적 공황을 자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한적 급진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전에 점진적인 정치발전계획을 지체 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 위해 정권 이양해야』

이 의원은 또 이충무공이 임진란 때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제, “하물며 국민의 시대인 오늘에 있어서 민주화를 통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 없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역사적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78년 정기국회에서 千命基 의원(신민. 전 보사부 장관)은 “긴급조치를 그대로 두고 200억 달러, 300억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설사 달성했다고 할 때 심화된 빈부격차, 사회 불

안 요인, 실질소득의 해외 유출, 신흥 특권계급의 부정부패와 극도로 타락한 사회윤리, 그리고 조세저항 등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나”고 따졌다.

유신체제 및 긴급조치 9호 해제와 관련된 공방은 10대 국회에 들어서 절정을 이뤘다.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송원영 의원은 79년 3월 23일 10대 개원국회에서 “종교라고 할지라도 개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전이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도전이 있을 때에 응전하여 설복시킬 힘조차 없다면 그 체제는 정말 허약한 체제일 것”이라고 질문 벽두부터 어조를 높였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과 국제사회에서의 시련, 정부의 비정상적 통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체제에 대한 갈등 불만 반대 또는 이에 대한 방어, 그런 데서 연유한 것”이라면서 민주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얼마 후 5·30전당대회에서 신민당 총재로 선출된 김영삼 의원은 7월 23일 임시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

“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민중의 소리 가운데 가장 순한 말”이라고 전제한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박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할 준비를 갖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오늘의 유신체제가 이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절대로 나라의 장래에 불행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며, 충심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에 호소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고 강조했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답변에 나선 崔圭夏 총리는 예의 유신체제 필요성과 함께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할 시기는 아니며, 계속 박 대통령의 영도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논리와 어휘로 유신체제를 옹호하고 민주회복 주장 인사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유정희의 李聖根 의원이었다.

79년 7월 23일 김영삼 의원에 이어 질문자로 나선 이 의원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내부에도 극히 몰지각한 일부에서는 현재 이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자꾸 외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이 좋은 의사당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인식치 못하고 민주주의를 운운할 때 우리는 서글퍼집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철없이 민주주의 회복을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고 강변했다.

그는 마지막엔 “슬금슬금 애꿎게 순진한 신부나 수녀들이나 가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긴급조치가 불편할지 모르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긴급조치 때문에 불편할 것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구보존의 의사록은 反面教師

그가 질문하는 동안 11차례나 ‘장내 소란’이 있었다고 속기록은 전하고 있다. 그가 마지막 말을 마치고 하단하자 신민당 총무 黃路周 의원은 그를 향해 “국민의 소리가 두렵지 않은가”고 질타했다고 속기록엔 기록돼 있다. 그런가 하면 “잘 했소” 하는 이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말은 물론 여당권 의원의 찬사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어떻든 정부 여당에 의해 그 영도력이 계속적으로 요청된다던 박 대통령은 YH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사건에 이어 부마사태 후 돌발한 10·26사건으로 비명에 갔다. 진산을 비롯, 수많은 야당 의원들이 때

때로 경고하고 예언한 대로 비극적 최후를 맞은 것이다. 또한 건강부회한 논리로 그렇게도 강변했던 유신체제도 박 대통령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몰락했다.

강압적 분위기가 압도했던 3선개헌 때나 서슬이 시퍼렷던 유신 시절, 공사(公私) 간의 위협과 손실을 각오하면서 ‘개헌’과 ‘유신 타파’를 위해 소신 있는 의원들이 남긴 명언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함께 3선개헌을 위해, 또 유신을 비호하기 위해 쏟아 놓은 ‘발언’들도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불행한 과거의 반복 거부를 다짐하는 훌륭한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록은 우리 의정의 영욕이 그대로 담긴 역사적인 기록물로 일과성 아닌 ‘영구보존’의 기록이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후손과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기록들을 남겨야겠다.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나 발언이 사리(私利)와 당락을 떠나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이뤄지고, 이런 발언들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게재될 때 우리 의사록은 영국 의사록에 못지않은, 격이 높고 흥미 있는 의사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격조 높은 의사록은 우리 의정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날을 기대해 보는 것은 필자만의 바람일까.

— 신동아(1985. 11.)



국회 속기사와 출입기자

이경재(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내가 국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약 15년 전의 일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971년 10월 2일이다. 이날이 무슨 날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기록할 만한 이른바 「오치성 파동」 또는 「10·2 항명파동」이 있던 바로 그날이다. 정치부의 수습기자로 생전 처음 국회에 견학을 나온 바로 그날 항명파동의 현장을 목격하는 ‘행운’을 차지하게 됐다. 아니 ‘행운’이라기보다 10여 년 헌정사의 격랑에 휘말려들게 된 불행의 시발이었다.

내가 언론계를 떠난 후 옛 국회의사당이었던 태평로의 세종문화회관 별관이나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옆을 지나칠 때면 10여 년의 의사당 생활이 그리운 추억으로 머리를 스치곤 했다. 그러나 속기사에 관한 한 생각나는 추억은 거의 없었다.

의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원내 발언을 함께 듣고

* 필자: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정치부장·논설위원, 대통령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공보부차관. 제15·16·17·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함께 기록하는, 어찌 보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직업인들끼리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냈는데도 어찌 그리 기억에 남는 관계가 없었는지 이상스러울 정도이다.

내가 속기사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84년 8월 다시 언론계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다. 나는 옛날 그 부서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출판국에서 월간지에 정치비화를 기고하는 입장이 됐다.

정치 현장을 뛰었던 나로서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정치비화를 많이도 썼다. 아마도 85년도는 정치비화의 전성기로 월간지의 붐을 이룬 한 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독자로부터 받은 가장 많은 질문은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현역기자 시절 모든 자료를 모아두거나 메모해 둔 것들이 아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먼 훗날 정치비화를 쓰기 위해 미리부터 자료를 준비해 둘 만큼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

과거 정치적 사건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나는 대체로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첫째는 신문 잡지의 스크랩, 둘째는 당사자들의 회고록이나 증언, 세 번째로 국회속기록 활용이다.

그런 면에서 국회속기록은 내게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어떤 정치적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 국회속기록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자료의 보고가 된다. 내가 지난해 『신동아』 10월호부터 4회 연재한 「유신 쿠데타의 막후」는 국회속기록에 힘입은 바 크다. 평소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가볍게 들어 넘겼던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이 먼 훗날 역사를 재구성하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케 됐다. 어떤 정치적 사건을 전후하여 신문 잡지 방송에서 국회에서의 질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은 구우일모(九牛一毛)에 불과한 것이다. 기자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와 데스크와 편집자의 편견에 의해서 수많은 소재 가운데 극히 일부 분만 지면에 반영될 뿐이다. 때에 따라서는 질량과 표현 면에 최초의 발언과 크게 거리가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국회속기록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필자가 국회속기록의 사료적 가치를 새삼 인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조실록은 사관들에 의해 기록 보존됨으로써 현대의 역사 기술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속기록도 이조실록에 비견할 만하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이조실록은 특정한 사관의 편견에 의해 사실의 왜곡이 적지 않다. 그러나 속기록만은 그 속기의 본뜻처럼 발언 내용 그대로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 사실의 기록만은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발언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속기사가 훌륭한 회의록을 만들어 내야 기록 당시의 발언자의 주장이나 사상을 널리 전달하는 매체가 되고 후세에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발언의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속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속기사는 현대의 사관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신문기자와 역사가들도 현실을 기록하여 후세의 사료를 남긴다는 점에서 국회속기사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속기사와 다른 점은 신문기자나 역사가들은 어떤 관점, 어떤 사상, 어떤 가치를 갖고 현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국회 발언 그대로를 기록하는 속기사와는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속기사에게는 객관적 기술이 생명이 된다.

속기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속기사이다. 최초 발언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여과를 거쳐 나온다. 따라서 속기사는 우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발언자들은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다. 외교 과학 어느 한 분야 다루지 않는 것이 없다. 생소한 용어, 전문적인 용어, 첨단 용어가 나올 수 있다. 녹음테이프만으로는 알

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나 고문자, 합성어 등의 난해한 용어들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자에는 동음이의어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용어를 제대로 속기하려면 발원 내용의 문맥을 파악해야 하고,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요구한다. 신문기자도 국회 발언을 듣다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럴 때면 발언자의 원고를 빌려 보거나 본인에게 다시 확인한다. 속기사 또한 발언자의 발음을 그대로 기호로 옮겨 놓는 무의식적 작업만으로는 완벽한 속기를 할 수 없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면서 옮겨야 제대로 된 속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속기사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닌 해박한 지식인이 돼야 한다.

85년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열렸던 Intersteno 총회에 다녀온 어떤 속기사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참가한 외국 속기인들의 상당수가 대학교수나 박사학위 취득자들이었다고 한다. 지난번 한국에서 열렸던 IPU 총회에 다녀갔던 속기사 한 명은 영국 의회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신문기자 출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속기사 한 분이 영국에 간 길에 그의 집에 들렀더니 서재에 책이 산같이 쌓여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정도였다고 한다. 신문기자의 신분을 버리고 속기사를 택할 만큼 속기사의 신분이 우대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최초로 입법위원이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속기사는 속기수당 등 특별대우를 받았었다. 오늘날 속기사에 대한 대우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과 같지만 그것은 속기사의 가치를 단순히 기능인만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회인들의 그릇된 편견이 주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속기사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 속기인 자신이 기능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안주하려 들거나 다른 위치로 전신하기 위한 일시적 징검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속기인은 스스로의 벽을 헐고 꾸준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독서를 늘리고 사회전문을 넓히고 자신을 깊이 연마해 나가야 한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이와 함께 국회 측에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재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설 속기교육기관을 두어 공인 학사학위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속기사 자격의 격을 높여 속기사의 사회적 신분을 변호사, 계리사 등 ‘士’자 반열에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속기계 제26호(1986)

국회의원은 속기록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정치 40년」 김수한 국회의장의 국회·정치인論

권영기(월간조선 차장대우)

8년 만의 화려한 컴백

金守漢 국회의장(68)은 지난 7월 4일 15대 국회 전반기의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67년 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단상에 진출한 지 만 29년 만에 입법부 수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1952년 영남대 법과를 졸업한 후 徐相日이 이끌던 민주혁신당 청년부장으로 정치에 첫 입문한 것이 57년이었으니 그때부터 따지면 39년만이다.

7·8·9·10·12대에 이어 현재 6선을 기록하고 있는 그의 정치 역정은 한국 야당사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90년 金泳三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를 따라 3당 합당에 동참하기까지 그는 줄곧 야당에 몸담으며 부침을 거듭했다. 그에겐 지금까지도 「명대변인의 원조」라는 칭호가 꼬리처럼 따라붙는다. 64년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대변인을 시작으로 海葦 尹潽善이 총재로 있던 신한당과 68년 통합 야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당 신민당의 대변인 등 무려 7년 8개월 동안 야당 대변인을 지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朴正熙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별 유효한 투쟁 수단이 없던 당시 특유의 독설과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해 『金守漢의 입 덕분에 야당이 버틴다』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에겐 또 다른 기록도 따라다닌다. 8대 국회 최다 발언 기록을 세웠고, 10대 총선 때는 서울 관악구에서 22만여 표를 얻어 전국 최다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80년 신군부 출범 후 정치 규제를 당했다가 84년 신한민주당 창당 때 李哲承 씨가 주도하던 非民推協 지분으로 신한민주당 부총재를 맡아 다시 정치 일선에 돌아왔다.

그 후 야당이 金泳三과 金大中 두 사람의 분열과 권력의 균점 양상으로 치달자 확고하게 金泳三 씨 쪽에 섰다. 그러나 그의 金泳三 지지는 이후 정치적 시련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 金大中 씨는 그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구에 신진 李海瓚 씨를 내보내 그는 13대와 14대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것이다.

이번 15대에선 재기를 노렸으나 공천을 앞두고 세대교체란 청와대의 분위기를 재빨리 감지, 선뜻 지역구를 물려줘 정치인생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신한국당 전국구 6번으로 8년 만에 의정단상에 복귀한 데 이어 金泳三 정부의 마지막 국회의장을 맡음으로써 화려한 정치복귀를 이뤄냈다.

『말 아껴서 훔칠 일 없어』

金守漢 의장은 “13·14대의 정치 공백이 자기성찰의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11대 때 강제로 정치를 쉰 적은 있으나 선거에 떨어져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적은 지난 8년이

처음”이라며 “방전된 배터리에 다시 충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선수(選數)는 쌓였을지 모르지만 교만과 자기 과신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하거나 정치적 상이군인이 됐을지 모르고 국회의장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공백기에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어 성령의 과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를 통해 갈레보다 더 더러워졌던 탕아의 몸을 청결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 「정치는 곧 말」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만 의장께서는 오랫동안 대변인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정치」에 능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를 가리켜 달변이니 웅변을 잘 한다느니 과찬을 하지만, 이 순간도 가장 두려운 게 말입니다. 한번 뱉으면 주워 담지 못하는 게 말입니다. 말로써 자신을 세울 수도 있지만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면도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어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저도 초선 때나 과거 함부로 말을 뱉어낸 적이 많습니다. 초선 의원들에게 「말을 아껴라. 말을 아껴서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회 닿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개원국회에서 어떤 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둘러싸고 「국회는 말을 하는 곳 아닙니까.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하면 의장은 무조건 발언권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하던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저는 「말을 규칙 없이 무제한 하는 게 국회가 아니다. 말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게 국회란 조직체고 이에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따르는 게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속기록입니다. 다음 날 속기록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좌충우돌식, 감정의 발작 비슷한 말은 삼가야 합니다.』

『從多數 가결이 민주주의의 원칙』

- 여당은 「최초의 문민정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만 문민정부 들어서서도 국회는 계속 파행의 연속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종다수 가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국회는 299명의 의원이 함께 끌여가는 곳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도 안 되지만 종다수 가결을 날치기라고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의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도금이었지 순금은 아니었다고 비유할 수 있지요. 1년에 정기국회 한 번에 이따금 임시국회 한 번 열면 끝이고 언론자유도 제대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강경투쟁을 벌였습니다. 흑백논리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투쟁 방식은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선명과 강경만이 있었고 타협과 중도·온건은 사쿠라로지탄받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도 단상을 점거하고 며칠씩 농성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야 국민들은 잘 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실 과거엔 그 수단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투쟁의 시대는 갔습니다. 종다수 가결을 여당의 폭거

인 양 매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소수가 정의냐,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철저한 예산심의를 할 생각은 않고 정치투쟁만 일삼다가 법정기일이 엄연히 존재하는 예산안 통과를 꼭 시한을 넘겨 통과시키는 게 야당의 할 일인가,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조선 의원들에게 기대 크다』

- 3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법부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선 대통령인 여당 총재가 의장후보를 내천하고 국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게 관행입니다. 말을 바꾸면 야당에서는 왜 후보를 안 내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 총재인 대통령이 의장 후보를 내천했다 해서 국회의장의 자립성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의장의 당적 이탈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의장이 당적을 버린다 하더라도 이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선 불가피한 일입니다.』

- 우리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의회정치를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정책에 같은 당이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법부의 독립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가쟁명을 이상적인 국회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다. 당명이나 조직체의 규범은 필요 없이 의원 각자가 알아서 제각각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 용기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 국군의 월남 파병을 의결할 때 여당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사람도 있었고, 야당의 徐範錫 의원 같은 분은 국익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 정치 현실은 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해 당에 입당하고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만약 당선된 후 당론에 배치되는 일만 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식만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펴면 아마 우리 정당정치는 통제 불능으로 빠질 것입니다. 정당장치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룹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식의 방법으로 해도 민주주의는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서 당론의 형성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려고 권하고 싶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원총회에서는 병어리가 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 우리 국회는 말만 입법기관이지 의원입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입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정부에서 다 만들어 온 법안을 의원 이름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입법으로 가장 내지 위장하는 것입니다.

『통법부란 비판을 많이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초선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46%입니다. 신진들이 많고 해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한 촉발작용을 한다고는 봅니다. 또 신진들 가운데는 각계에서 중견으로 활

동하던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벌써 제가 결재한 법안 가운데 의원입법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5대 국회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제도적인 미비점을 많이들 지적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의원들 각자의 자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 법안을 제출했건 상정된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도 못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연말이 되면 법안 수백 개가 적체되어 쌓입니다. 일단 법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되어야 하는데 이걸 소홀히 하고 여야 간 정치쟁점만 놓고 싸우다 세월 다 보내고 맙니다. 그러니 그냥 쌓여 있다가 연말에 어떤 법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통과시키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야 지도부는 정치쟁점을 놓고 싸우더라도 의원 각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徐相日 선생이 정치입문의 길잡이』

- 국회의 본령을 생각하면 의원입법을 도와주는 국회사무처의 법제예산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려면 이 부서에 국회사무처의 엘리트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법제예산실로 발령이 나면 좌천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국회사무처의 분위기입니다. 또 국회 예산의 세부 항목도 재경원의 담당 과장이 일일이 따져서 된다 안 된다는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산의 독립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부에 매달려서야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비서가 3천 명이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잘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하기 나름입니다. 전문위원 보좌관이 아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무리 많아도 자문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 상임위를 연중 상시로 여는 방안에 대해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중무휴로 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해결할 일도 많고 지역구민들을 항상 접촉해야 합니다. 청원 처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자주 여는 방법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 의장께서는 현역 의원 중 50년대에 정치를 시작한 몇 안 되는 원로입니다. 특히 야당사를 증언해 줄 중요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의장께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 돌아가신 徐相日 선생 밑에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정치 입문의 길잡이, 스승은 東庵 徐相日 선생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시고 대한민국 제헌헌법기초위 위원장과 제헌의원, 그리고 한민당의 원내총무까지 지내신 분이시요. 굳이 분류하면 봉건지주 세력이요, 극보수·극우파였던 한민당 원내총무까지 지내신 분인데 李承晩 박사에 등을 돌리고 혁신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대한 분이시지요. 당시 평화통일이란 말 자체가 국시에 위반된다 하여 금기시되었는데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민주사회주의를 내걸었던 徐相日 선생이야말로 참된 반공을 하신 선각자였고 저는 그분을 이상적 정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徐相日 선생께서는 수업을 항상 길게 기르고 계셨는데 「선생님 수업 안 짧으십니까?」 하고 여쭙면 「난 李承晩 정권 타도하기 전엔 안 짧아!」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게 눈에 선합니다.』

- 그 후 張勉 박사, 尹潽善, 張澤相, 張利郁 씨 등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밑에서 대변인을 오래 하셨지요. 단순히 말만 잘 한다고 해서 대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장수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릇이 컸던 珍山

『그분들 말고도 俞鎭午 柳珍山 金弘壹 당수를 모시면서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보다 그분들이 그릇이 커서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지요. 珍山이 통합 야당인 신민당 당수가 되고 나서 제가 두 번인가 세 번 연달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나는 海葦 尹潽善 선생의 신한당에서 7대 의원이 처음 되고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시는 선명 경쟁이 치열할 때인데 공화당 외에 진산의 민정당을 준여당이라 해서 거의 매일 심하게 때렸고 내가 대변인으로서 그 선봉에 섰습니다. 야당 통합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朴正熙의 공화당과 柳珍山의 민정당 통합이 더 손쉬운 일이고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식으로 독설을 해 댔습니다. 진산 선생은 「우리 당에 청년당원이 그렇게 많으면서 金守漢이 아가리에 똥 집어넣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나」며 개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민정당 청년당원들에게 둘러싸여 턱밑에 주먹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곤경을 치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위가 물러나고 신한당과 민정당이 통합, 진산이 당수가 돼 신민당이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워낙 진산 비난을 많이 했고 새로운 당으로 새 출발하는 마당이라 대변인은 물론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진산이 상도동 집으로 저를 부릅니다. 나는 「진산이

I. 의회속기록의 가치

혼을 내려고 부르는 모양이다」 하고 각오를 하고 가 보니 「대변인을 계속 맡아 달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라 「가당찮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선생님 비난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독설을 뽐어 댔는데 어떻게 대변인을 계속합니까」 하고 간곡히 사양했지요. 진산은 눈을 부릅뜨고 「자네가 그동안 해위를 지극히 받들어 왔듯이 그런 자세로 나와 당을 위해 일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진산은 그릇이 대단하고 엄청난 분이었어요. 청년당원들이 몰려와 결사반대를 하는데도 진산은 「허허」 웃으시며 끝까지 저를 대변인을 시켰습니다.』

『날치기』란 말 처음 써

- 대변인은 통틀어 몇 년이나 하셨습니다.

『전부 해서 7년 8개월입니다. 그때는 대변인이 단지 대변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총재 연설문, 국회 대정부 대표 질문서까지 다 작성해야 했습니다. 온갖 굵은 일은 다 감당해야 했고, 그 때문에 테러를 당할 위험에도 처했었습니다. 徐珉濠 선생이 대중당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려 할 때 「또 하나의 공작정치의 소산이다」라고 논평을 냈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 의장께서 만들어 낸 조어 중엔 지금도 쓰이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다거나 하면 「夜盜의 수법」 「헌병 통치적 수법」 「날치기」라고 공격했지요. 전부 독설이지만 제가 다 처음 만들어 내 쓴 말입니다.』

- 「날치기」라는 말을 처음 쓰셨는데 앞으로 야당으로부터 ‘날치기 했다’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래서 안 되겠지요. 하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국회의장으로서 자존은 지키겠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15대 국회가 또 대치 상태로 날치기 통과를 연출하는 사태를 연출하면 여야 전부 공멸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의장께서는 명대변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국의 흐름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명성을 날리셨습니다. 과거 우리 야당가엔 김 의장이 가는 곳에 당권이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金守漢이 가는 곳엔 당권 있다」는 말은 저를 좀 비꼬아서 했던 말인데 그렇다고 저는 명분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가 金泳三 金大中 두 분이 갈라설 때인데 제가 권력만 좇는 바람개비였다면 당연히 金大中 씨를 따라갔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지역구였던 관악구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金大中 씨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의원 직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때 떨어질 것을 이미 각오하고 金泳三 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尹潽善은 독수리형 투사』

- 金泳三 대통령과는 언제 처음 만나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같은 진산 계보를 하셨지요.

『진산 계보 훨씬 이전입니다. 巨山(金泳三 대통령 아호)과 처음 만난 게 63년 거산이 민정당 의원을 할 때입니다.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도 같이 일했고... 당시 거산이 미 국무성 초청으로 해외에 나갔다 와서 동아출판사에서 낸 책이 「우리가 기뻐 언덕은 없다」였습니다. 지금 용어로 말하자면 「세계화」 「민족자존」을 하자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 두 분이 가까워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부터 가깝게 지냈지요. 7대 때 통합 야당인 신민당이 탄생했는데 당수였던 兪鎮午 박사가 金大中 씨를 원내총무에 지명했다가 의원총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어 버리고 세 번째 결국 金泳三 씨가 총무가 됐어요. 그때 나는 대변인이고... 당시 최고의 상임위는 재무위원회였는데 거산이 나를 재무위에 넣더라고요. 나는 고맙게 생각했으나 사양하고 내무위를 선택했던 일이 있습니다.

- 한때 金泳三 씨와 떨어져 素石(李哲承 씨의 아호) 계보로 분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 소석과 좀 가까이 지내고 거산과는 좀 떨어져 나를 소석계라고 했지요. 12대 때 대통령직선제 개헌 투쟁 때 온건노선을 견지한 소석과 결별했습니다. 그동안 소석이 많이 매도당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소석도 한 번도 야당 본류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강경이냐, 온건이냐 하는 노선의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소석을 여당과 야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진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진산도 야당의 본령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여러 선배 정치인들 모셨는데 이 기회에 그분들에 대한 인물 평을 한번 해 주시지요.

『평을 할 자격이 있네요. 다만 그분들의 개성이 다 다르고 장점을 한번 더듬어 볼 수는 있겠지요. 徐相日 선생은 長者之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위 선생은 한마디로 독수리형입니다. 내가 언젠가 쓴 글에서 그분을 「아파치 추장」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만, 오직 공격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아파치 인디언들이 마지막 한 사람 쓰러질 때까지 공격만 하듯 그분도 그런 분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폭진, 좋은 말로 하면 불퇴전의 용사입니다. 해위 선생의 안국동 자택 안방에 낮이고 밤이고 들어가 주무시는 걸 깨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당시엔 「尹潛善 얼굴에 金守漢 입으로 야당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 손톱과 손가락 끝이 독수리 발톱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흔히 잘 모르는 사람은 해위 선생이 만석꾼 아들로 태어나 다정하고 포시라운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칠고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滄浪 張澤相 선생은 버들가지 같은 분입니다. 기민하고... 어떨 때는 호들갑 떠다고 비난받기도 했지만 해위 선생도 감탄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해위 선생은 滄浪 선생을 가리켜 「나는 창랑보다 세 배나 더 오래 영국에 유학했는데 영어는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해위는 6년, 창랑은 2년 정도 영국에 유학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머·조크, 이런 데서 창랑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그렇게 호방할 수가 없지요. 해위는 농담을 할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랑은 이런 해위를 보고 「어, 저거 왜 저래. 선떡 쳐먹고 체한 놈처럼 똥해

가지고 왜 저래」 하고 농을 하시곤 하셨지요.

창랑은 정치적 길은 달라도 공화당을 하던 尹致暎 씨하고 친구였는데, 尹致暎 씨 만나면 첫 인사가 「니 에미 잘 있나?」였습니다. 尹致暎 씨가 모른 척하고 「그래 잘 있나? 건강은 괜찮은가」 하고 대꾸하면 「야 임마, 내 건강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니 에미한테 물어보면 잘 알잖나」 하고 또 농을 합니다. 尹致暎 씨는 「에이 고연 놈!」 하고 맙니다. 대일 굴욕외교 반대 데모를 한다고 창랑을 앞세워 尹致暎 씨한테 효창구장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가면 「이놈아, 해위 집 안국동 집 뜰 넓잖아, 거기서 해」 하고 소리칩니다. 지금 생각하면 옛 어른들의 이런 농담엔 해학이 있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서로 정치적 길은 달라도 지금처럼 각박하지 않았습디다.』

3金氏에 대한 인물평

- 柳珍山 兪鎮午 선생 같은 분은 어땠습니까.

『내가 대변인을 하면서 모셨던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徐相日 선생은 가장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徐相日 선생이 대구에 내려가 나한테 엽서를 몇 번 보낸 적이 있는데 주소 쓰는 데만 빼고 한 치의 여백도 없이 깨알같이 글을 씁니다. 그렇게 아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방식도 ① ② ③... 식으로 분류해 씁니다.

玄民 兪鎮午 선생은 성명서를 갖고 들어가면 다짜고짜 펜을 뽑아 들고 고치는데 대체로 골격에는 손을 안 대고 접속사 부사, 이런 것만 꼼꼼하게 손을 봅니다. 이에 반해 해위 선생은, 창랑도 그렇지만, 대체로 뼈대를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세세한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께넘치 않고 맡깁니다. 현민 선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진산은 더 대범합니다. 아예 올 것도 없이 전화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대표연설

할 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문장을 다듬어 갖다 쥐도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 연설할 때 보면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珍山도 원칙엔 그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 대변인 하면서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독설을 뿜어 댔지만 결정적으로 원한을 살 만큼 표독하지는 않았 습니다. 맺힌 짓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지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만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라 그럴 겁니다.』

- 金泳三 金大中 金鍾泌, 3김씨에 대한 인물평은 어떻게 할 수 있 겠습니까. 「정치인 金守漢」이 보면 뭔가 독특한 언급이 있을 것도 같 은데요.

『金泳三 대통령을 흔히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동심을 갖고 있습니다. 술 마실 때나 그 파안대소하는 것을 보면 그 바닥에 악기가 없어요. 역시 환경에서 온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찢어지고 멧히고 꼬이고 토라지고, 그런 게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맑고 순수한 점 그런 게 인상적이지요. 金大中 총재는 자기를 보완하 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게 대단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혼자 앉아서도 손가락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자 획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金鍾泌 총재와는 정당을 같 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게 접촉한 적은 없으나 꽤 오래 알고 지냈는데 풍류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풍류적이 라는 것은 다양한 정취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역에 다 계신 분들일뿐더러 지도자에 대한 평은 하기가 어렵습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니다. 하지만 지도자라고 100% 다 장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 대통령만 하더라도 빈 데가 많습니다. 비었다는 것은 여백이 많다는 것인데 나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뭔가, 마음에 여유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빈틈없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옷도 몸에 꼭 맞으면 운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金 대통령은 여백이 많아 비범한 것 같습니다.』

『4년 重任 대통령제가 바람직』

- 좀 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김 의장님에 대해 ‘권력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음 대권이 누구에게 갈지 보이십니까.

『이 시점에서 대권 향방을 점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좀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 잉태도 되지도 않았는데 사내애냐 여자애냐 점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 지금 대통령의 임기, 즉 5년 단임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正熙 씨가 중임하고 난 후 유신체제를 출범시켜 영구집권을 시도한 경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느 누구건 한 번밖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양분법적이고 단세포적인 사고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정적입니다. 벌써 단임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중임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탕만 하고 가 버린다」는 식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 번만 하면 끝이라는 생

각에 한몫을 챙기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고 봅니다. 1회용이라고 할 때와 다음에 또 쓰는 것이라고 할 때 마음가짐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중간 신임을 묻는 절차도 필요하고 또 5년 안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기는 생각 못하고 단기 계획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5년 단임보다는 4년 중임이 낫다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서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런 얘길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력구조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만 밝혀도 심한 앨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그 저의가 뭐냐고 의심하는 판 아닙니까. 내 개인의 소박한 원칙적 견해를 밝힌 것뿐이지 오해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양식에 입각해서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를 大權에 이용 말아야』

- 15대 국회가 다음 대선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올 정기국회만 끝나면 내년은 대선 때문에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이고 내후년에는 새 정부 구성으로 여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는 데 특별한 복안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내년 대선을 의식해 올 정기국회를 볼모로 잡고 파행으로 몰아가면 대권은 그 사람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 15대 국회는 2000년을 준비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국회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15대 국회의 과제를 어떻게 정해 놓고 계십니까.

『특별한 과제는 정해 놓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입법의 활성화 조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의원 연구단체가 14대에 비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가 공전되고 있을 때도 환경·보건복지·정보통신 등 이른바 미래 지향적인 21세기형 연구단체의 결성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추세는 여야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활발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대가 큼니다. 지금 여기 국회 본관 5층에 전시돼 있는 헌정 사진전을 보면 단상점거, 몸싸움, 농성, 가두데모 등 우리 헌정사는 난투극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난의 역사를 넘어 차분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혁 「마무리」란 개념은 불필요』

- 그 가운데 국회의장의 역할이랄까, 임무는 어떤 점에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국회의 3대 기능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 비판입니다. 더 요약하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의 심의권입니다. 이런 국회의 3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의 임무입니다. 오늘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찾아와 표적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던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장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는 골키퍼 역을 하겠다고. 그러나 과문한 탓인지 5·6공식의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의장께서는 김영삼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해 온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개혁이란 그렇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란 개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국가적 사업도 「내 임기 안에」라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 사람, 또 그다음 사람이 계속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영속적인 터전을 닦아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완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이 지금 지적하신 「내 임기 안에」라는 점을 의식하다 보니 무리가 왔다고 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도저로 밀다 보면 돌덩이도 나오는 법입니다. 땅을 다지고 포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누가 다음에 집권하더라도 개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해야지 마무리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그러다 보면 걱정스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金 대통령은 다행이 의회주의자이고 문민 대통령으로서 그런 무리를 한다는 조짐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제 본격적인 정권 교체기에 들어 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 전가는 아니지만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권 시리즈」니 뭐니 하며 써 대지 않습니다. 후보 등록이 다 된 것처럼, 대권만이 국민적 관심사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아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단임제에서 레임 덕이 일찍 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일부러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권이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국회의 수준은 곧 국민의 수준』

- 김 의장님께서서는 젊었을 때부터 아령과 역기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요즘도 계속하십니까.

『되도록 몸에 「국거리」를 안 붙이고 「정육」만 붙이고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국회의장이 뭐 몸매 자랑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계속 운동을 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40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5시 30분이면 일어나 한남동 의장 공관 뒷산을 올랐다 내려와 한남 초등학교 운동장을 10바퀴 뺍니다. 아마 4km는 될 겁니다. 그리고 공관으로 돌아와 구닥다리 「金守漢 체육기구」로 운동을 합니다. 8파운드짜리 옛날 주물 아령인데 이 아령에 「58년産」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볼 워커와 익스밴드, 그리고 역기 두 종류를 듭니다. 새벽 2시에 자건 3시에 자건 그 시간이면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사람이란 게 그 전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데 왜 그 시간이면 일어나 운동을 하느냐, 내게 운동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활의 일부분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했다 생각하면 의지력의 배양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매일 아침 뛰지 않습니까. 전에 모스크바나 도쿄에 같이 갔을 때, 새벽에 나가 보면 먼저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유익

한 시간인 것 같아요. 뛰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상념 같은 게 떠올라요. 오래 못 만난 친구 생각부터 오늘은 누굴 만나야겠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 아니면 그동안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한 책까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할달까요, 영감도 떠오르고, 아마 대통령도 아침마다 뛰며 국정을 생각할 겁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국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잘되려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언론도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너 나쁜 의원의 행동을 용기로 미화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국회와 의원들에 대한 고과를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 월간조선(1996. 9.)



미국에도 史官 있다

‘한 번만 고쳐 주라’
대통령 통사정해도 ‘NO!’

문명호(동아일보 주미 특파원)

매일 오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리는 마이클 매커리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기자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중년 신사 한 명이 거의 빠짐 없이 참석한다. 늘 오른쪽 입구 가까이 서서 대변인과 기자들이 주고받는 질의응답을 지켜보는 그는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 소속 공무원 마이클 설리번 씨. 직책은 「주간 대통령문서록(Weekly Compilation Presidential Documents)」의 편집장이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행하는 모든 발언, 대통령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성명서와 명령 등 각종 문건을 일주일 단위로 기록·정리하여 책자로 발행하는 백악관의 사관(史官)이다.

「주간 대통령문서록」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나온 자료를 마감해 관보국의 편집 작업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자로 발행된다. 편집·교정을 거쳐 정부 인쇄국에서 실제로 배포하는 날은 목요일. 매호 말미에 대통령의 출장 등 일정, 주요 인사에 대한 상원 인준 요청

현황, 백악관 공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 등 부수자료를 실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 준다.

국립문서보관소는 지난 9월 29일자부터 「대통령문서록」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활동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access.gpo.gov/nara/index.html>.

「주간 대통령문서록」이 처음 발행된 것은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인 1966년 7월이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를 지냈던 존슨은 의회 속기록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의 발언과 백악관의 움직임을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 보좌관들이 국립문서보관소와 협력하여 백악관 속기록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말한 그대로 기록한다

속기록의 생명은 정확성. 설리번 씨가 매일 대변인의 브리핑에 참석하는 까닭도 백악관의 흐름과 그날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속기록은 백악관 통신국(WHCA)에서 제작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파견된 현역 장병 581명으로 구성된 통신국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국내외 공식행사장에 통신시설을 하고, 모든 연설과 발언을 백악관 기자실로 중계하는 한편, 속기록을 만들어 공보실을 통해 보도진에 배포한다.

통신국에서는 또 대통령의 모든 공식 활동을 비디오로 녹화해 텔레비전 방송사에 제공한다. 업무 성격상 방송사 종사자들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비디오 녹화는 1996년 선거 때 클린턴이 거액 현금 기탁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베포 커피 모임까지 녹화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의회에서 물의를 빚었고, 백악관 법률고문이 대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배심에 소환돼 테이프를 늦게 제출한 경위를 추궁받는 등 불법 현금 스캔들에 새 전기를 불러왔다.

설리번 씨는 대통령 속기록을 정리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녹음테이프로 확인하고, 대통령이 국내외 출장에서 행한 발언은 주로 비디오테이프를 돌리면서 대조한다고 밝혔다.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문서 기록 작업을 백악관의 핵심 업무로 부각시킨 덕분에 백악관 참모들과 직원들은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통신국에서 제공하는 녹음테이프 이외에도 공보실은 모든 보도자료를 한 벌씩 챙겨 준다. 대통령 일정표도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보다 훨씬 상세한 백악관 내부용으로 제공받는다.

백악관과 맞붙은 옛 행정부 청사(OEOB) 5층에 자리잡은 설리번 씨의 사무실에는 백악관 공보실의 안내방송을 들려 주는 오디오 중계시설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브리핑룸 등 백악관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를 중계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설리번 씨는 틈날 때마다 백악관 기자실로 직접 가서 각종 보도자료를 직접 챙기는 등 정확한 기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정확한 기록을 위한 기본 원칙은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적는 것. 대통령 본인이 부탁해도 일단 내뱉은 말은 고쳐 주지 않는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맞이해 베푼 국민 만찬장에서 축사를 하던 포드 대통령은 이집트를 이스라엘로 착각, “우리의 우방 이스라엘”로 부르는 실수를 범했다. 당황한 대통령은 이튿날 정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대통령의 청탁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었던 설리번 씨는 알겠다고 말하곤 속기록에는 실수한 그대로 적었다.

대통령 보좌진에서 자기들 실수로 틀린 기록을 고쳐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부시 대통령 때의 일이다. 연설문 작성자의

실수로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숫자가 틀린 사건이 발생했다. 나쁜 기록은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 작성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간청했다. 설리번 씨는 평소 접촉하는 부대변인을 찾아가서 상의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기록하자는 것이었다.

하시모토의 정상외교

정확한 기록은 결국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업무에 도움을 준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학 같은 곳에서 연설을 할 때 과거 같은 장소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연설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역사적인 의미를 즐겨 부여한다. 최근 워싱턴 시내 아메리칸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클린턴은 34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같은 대학에서 행한 연설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2000년대를 맞는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장소로 국립문서보관소 본부를 선택,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도 했다. 영국과 호주 대사 등 각국 외교사절도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 클린턴은 “이렇게 훌륭한 장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의 그늘에 우리를 초대한 칼린 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주간 대통령문서록」에 기록돼 있다.

문서록 내용 가운데 외국인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에 갖는 공동 기자회견의 속기록. 각국 지도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펼친 정상외교의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다.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와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한 식량원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대목을 5월 5일자 「주간 대통령문서록」에서 찾아보자.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수행 기자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상황으로 말하자면, 북한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 국민, 북한인들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시모토 총리는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간 후 연락이 끊어진 일본인 처와 일본 해안에서 실종돼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들에 대한 의혹을 5분 정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다음 “북한이 이 사람들에게도 인도적인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91년 이후 백악관을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들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미국 대통령과 언론에 소개한 하시모토의 답변은 그로부터 반년도 안 돼 평양 당국으로부터 일본인 처들의 일시 귀국 허용 조치를 받아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하시모토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한 지 두 달 후인 6월 26일 유엔환경총회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잠깐 만났다. 그러나 이 회담은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거지 만남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다.

YS 정상외교

6월 30일자 「주간 대통령문서록」을 보면 말미에 클린턴 대통령과 김 대통령이 26일 오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만났다고 단 한 줄로 기록돼 있다. 공동성명 등 정상회담 뒤에 나오는 문건은 전혀 없었다. 클린턴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는 백악관 풀기자들도 이날 회담에 대한 별도 리포트를 한 줄도 작성하지 않아 기록상으로 볼 때

김·클린턴 회담은 미국 측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한 것으로 돼 있다.

문서록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같은 날 김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유엔환경총회에서 행한 연설문 등 9건의 문건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는 이날 오전 고향인 아칸소주 호프의 외가 어른 장례식에서 읽은 조사까지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강청해 유명무실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결과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국립문서보관소는 한 해 동안 발행한 「주간 대통령문서록」을 한데 묶은 「대통령문서록」을 매년 발행하며, 신임 대통령의 취임 첫해를 기록한 문서록은 특별히 가죽으로 제본해 대통령에게 증정한다.

20세기 들어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문서록을 처음 발행한 것은 1958년. 국립문서보관소 관보국에서 대통령의 공식문서를 담은 연감을 발행할 것을 건의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집권 2기의 전 반부인 1956년과 1957년 2년치를 각각 두 권의 책으로 발행했다. 관보국은 또 아이젠하워의 전임자인 트루먼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인 1951년과 1952년의 문서록을 역시 두 권으로 각각 발행하기도 했다.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 문서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문서록이 이미 발행돼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 재임 중의 모든 문서가 완벽히 정리돼 나왔기 때문에 국립문서보관소가 제작하지 않았다. 그 대신 루스벨트의 전임자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문서록은 후버 탄생 100주년 되던 1974년에 발행했다.

후버 대통령의 문서록 발행은 196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수정주의 사관에 따라 경제대공황을 일으킨 원흉으로 낙인찍혔던 그의 치적을 재평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확한 기록은 당대에 무능하다고 매도된 대통령을 후세에 엄밀하게 재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 사례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마이클 설리번 씨는 드레이크 대학에서 사학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1973년 후버 문서록 편찬에 참여하면서 대통령의 문서록과 인연을 맺게 됐다. 올해로 24년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하는 그는 최근 예산 감축으로 과거 3명의 직원이 하던 「주간 대통령문서록」 편찬작업을 혼자서 하고 있다. 문서록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이 자랑하는 기록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백악관과 의회를 연결하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문서보관소 북쪽 현관 좌우에는 남녀 조각상이 있다. 둘 다 무릎에 책을 놓은 좌상이다. 왼쪽의 여자 조각 아래 기단에는 “과거 지사는 전주곡(WHAT IS PAST IS PROLOGUE)” 오른쪽 남자 조각의 기단에는 “과거를 공부하라(STUDY THE PAST)”라는 경구가 각각 새겨져 있다. 날마다 백악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문건을 전 세계에 뿌리는 초강대국,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하는 명문들이다.

미니인터뷰

대통령 문서록 편집장 마이클 설리번 씨 “진실을 말하는 게 모두에게 최선”

백악관의 사관(史官)으로서 올해로 24년째 역대 대통령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마이클 설리번 씨. 지난 10월 3일 백악관 옆 옛 행정부 청사 536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 대통령 문서 기록을 맡게 된 계기는?

“1931년의 재정 위기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후버 도서관에서 연구했고, 이를 계기로 후버 대통령 문서 편찬에 참여했다.”

■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문서록을 일주일 단위로 묶어 발행키로 한 취지가 무엇인가?

“20세기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적 다큐멘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였다. 21세기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 대통령 문서록의 제작 기준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문서록은 리처드선이란 사람이 하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 리처드선 시리즈로 불리고 있다. 다른 대통령의 행정도 사실을 것처럼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다. 1929년 3월 20일 이후에 나온 백악관 보도자료는 모두 갖추고 있다.”

■ 편찬 작업에는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가?

“대통령이 쓰고 말한 대로 정확하게 실는 것이다. 몇 년 후 누군가가 연설문을 찾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확성이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문서들을 많이 이용하는가?

“워싱턴 정계와 언론계에서 활용하며, 학생들도 공식문서를 중요시한다.

공식문서란 무엇을 말하는가?

“공보실에서 발표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머리에 백악관대변인실이라고 찍힌 문건들도 대통령이 1인칭 주어로 발표하는 발언과 행정 명령, 각서, 대의회 메시지를 다 포함한다. 9월 말에 사임한 합참의장 살리카시빌리 장군에게 보낸 환송사도 실었다.”

대통령이 일단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 주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면 힘들지 않은가?

“가능한 한 좋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절대적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감돌게 마련이다. 우리가 신뢰받는 원천은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고쳐 달라고 부탁하면 백악관 부대변인에게 상의한다. 그러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준다.”

고쳐 달라고 압력 넣는 사람이 정말 없었나?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대통령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 후버 대통령의 기록은 어느 정도 있는가?

“모든 연설문을 확보하고 있다. 당시에 벌써 녹음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다. 1932년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행한 연설 녹음테이프를 거의 다 갖고 있다.”

■ 그 당시의 녹음 방식은?

“원래는 전선을 테이프로 사용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선 녹음기를 갖고 있었다. 당시엔 연설문을 폰 속기를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백악관 음향 전문가들이 속기록을 제작하며, 우리는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그것을 점검한다.”

■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 같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자주 받는가?

“이런저런 자료가 있느냐,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예전에 몇 차례나 있는지 묻는 전화가 가끔 걸려 온다.”

■ 대통령 문서록은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어느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알려면 그냥 찾아보기만 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사회에서 누리는 자유가 바로 이것이며, 민주주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일단 한 말은 돌이킬 수 없으며 왜곡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클린턴 대통령의 장점은?

“기꺼이 밖으로 나가서 진실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반대편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래서 공화당의 아이디어를 많이 취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을 버리고 사회보장을 삭감하고 경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예산균형까지 달성했다. 한마디로 적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특이한 인물이다.”

■ 하지만 클린턴은 말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말을 많이 한다. 버스 유세 때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워싱턴 주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 인기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참모들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좀 조용히 하라고 건의했다. 이제는 선거도 끝나고 재선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이 많아졌다. 대통령문서록을 보면 금방 안다. 최근 2주일 동안의 기록이 거의 전부 연설문으로 채워져 있다.”

■ 대통령 문서록이 실패자로 낙인찍힌 후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대공황이 전적으로 허버트 후버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냉전의 책임을 러시아에 모두 뒤집어씌우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파생된 수많은 것들이 대공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문서기록 전문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직장이다. 숙명적으로 과로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한 시간 반이 넘도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그는 부인으로부터 퇴근 여부를 묻는 전화가 두 번째 걸려오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콧수염 때문에 더욱 친근한 인상을 주는 그는 백악관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가량 걸리는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한다면서 웃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 신동아(1997. 11.)



국회개원 60주년 특집

국회 속기록은 국보다

2008. 7. 17. KBS 제1TV에서 특집방송

200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헌법을 서명하여 공포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 KBS 제1TV에서는 제헌절 60주년 특집으로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는 프로그램을 오후 10시부터 1시간여 방영하여 국회속기록이 집중 조명됨으로써 국회속기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 중 일부를 인용 또는 각색하여 국회속기록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가 “참다운 시간은 그 본질상 하나의 연속이자 동시에 영원한 변화이다. 과거는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에 불가결하다”고 설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궤적을 살피는 시간여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의 과정이란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영원한 변화이지

만, 어느 시대가건 역사의 재조명의 중요성은 ‘발전된 미래상을 창출하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회속기록은 현대판 사초”

2008년은 건국 60주년, 국회 개원 60주년, 제헌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순을 맞은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영욕으로 점철된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긴박했던 역사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속기사가 있었고, 국회 내 발언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역사로 남아 있다.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문화가 존재하고, 인류는 기록의 수단으로 문자를 발명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했다. 따라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헌국회 이래 현재까지의 한국 현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속기록만 한 것이 없을 듯싶다. 국회속기록은 50여 년 전 사관들에 의해 기록된 사초를 가지고 쓴 왕조실록에 버금간다 할 만하다. 아니, 그보다도 더 객관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조 실록은 어전에서 논의된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역사책이지만 국회속기록은 ‘현대판 사관’인 속기사들이 국민의 선량인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가감 없이 기록한 것으로 가장 사실에 가까운 사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국회속기록은 그 어느 사료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사초’ 바로 그것이다.

주: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는 ‘국회회의록(의사 내용의 요점만 기록)’과 ‘국회속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기록(속기 방법에 의하여 발언한 대로 기록) 두 가지로 작성하였다. 제5대 국회부터는 이 둘을 통합하여 ‘국회회의록’ 하나로 작성하였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국회 발언의 속기록 기재와 보존, 이것은 역사의 큰 증거물이고 역사 그 자체입니다.”
임채정 17대 국회의장

“나는 속기록을 가리켜서 국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의 산보물입니다. 그것은 한번 쏟아놓은 발언은 몽갓 수도 없는 거고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남기는 거냐, 후세를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김수환 15대 국회의장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속기사들이 역사적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로 빠짐없이 기록하여 역사로 남는다. ‘현대판 사초’인 국회속기록은 한 국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모두(2056권) 국회 지하 서고에 보관되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에 열린 제2대 국회(1950년 6월 19일에 개원) 제7회 국회 1·2차 회의는 기록이 되었는데 동란 발발 전후 3차 회의(인쇄 도중 분실)와 그 이후 9·29 서울 수복까지의 피난국회(8회 국회 1~37차) 회의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최예숙 국회 의정기록1과 서기관

참 조

‘제헌국회 시 의원선서문’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제헌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민족의 염원이 담긴 의원선서를 하게 된다.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빛나는 역사적 조국 재건과 독립 완수의 중임을 다하기 위하여 헌법의 제정으로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남북통일의 대업

을 수행하는 한편 모든 법률에 의한 정치·경제·문화 등 국가 만년의 기초 확립과 국민민복을 도모하여 국제친선과 우리나라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항구적 평화에 공헌함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다하기로 이에 순국선열과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험난한 사관의 길

국회속기록은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생생한 기록으로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속기사가 있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져 날아드는 기물(제헌국회 시 명패 투척 소동)에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의로 뿌린 오물을 뒤집어 쓴 일도 있었고, 야당 의원에게 속기 원문을 빼앗겼다가 간신히 되찾아 속기록을 만들어 낸 일(1958년 12월 보안법 파동 시 법사위)도 있었다.

날치기 현장에도 어김없이 속기사는 있었다. 심지어는 밤늦도록 은밀히 숨어 있다가 변경된 회의장에 도둑고양이처럼 들어가야 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때론 욕설이 오가거나 여러 분의 의원들이 동시다발로 얘기를 하면 어느 발언을 적어야 할지 분간하기 어려운 때도 많았다.

이처럼 국회속기록의 이면에는 속기사들의 남모르는 애환도 함께 서려 있다. 그러나 ‘현대판 사관’인 속기사들은 오로지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다”는 긍지와 역사적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오늘날 현대사의 생생한 기록인 국회속기록을 남겨 후세의 사초로서 이 시대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모든 발언은 빠짐없이 기록된다. 의원들이 막말로 역사에 남는다.

1966년 9월 21일 제58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 발언하던 김두한 의원은 발언 말미에 “그러니 우선 너희들이 밀수한 사카린 맛을 보라”며 국무위원석을 향해 사카린 상자를 쏟아 부었는데 뒤이어 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똥이나 쳐먹어, 이 새끼들아!”

(장내 소란)

(“산회 선포해요” 하는 이 있음)

기록은 여기서 끝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표현에서 아수라장이 된 그때 상황을 능히 짐작할 만하다. 그때 당시에는 국무위원석이 발언대 바로 왼편에 배치되어 의원석을 마주보며 앉게 되어 있었기에 국무위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오물의 파편을 그대로 맞았고, 발언대 가까이 있었던 속기사 또한 오물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날치기 처리의 전형으로 꼽히는 95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47개 법안을 30초 만에 처리)도 그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

“저희(속기사)는 그것이 설사 변칙처리라고 할지라도 길이 역사에 남는, 우리 의정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겨야……” 최예숙 국회 의정기록1과 서기관

7대 국회는 3선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섰다.
야당인 신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해 개헌안 처리를 막았다.
그러나 여당은 새벽에 국회 별관에서 새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 날치기 현장에도 속기사는 있었고 전 과정을 그대로 기록했다.

“새벽 한 2시경에 3별관으로 가라, 속기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3별관 쪽문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정문 쪽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3층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공화당 의원이(나중에 기록에 의해 확인) 122명인가 그랬어요.” 채강희 3선 개헌안 통과 기록 속기사

(2004년 3월 12일 246회 제2차 본회의) 속기록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17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정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34분 동안의 긴박했던 현장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의회 단상을 벗어난 방청석 발언도 기록됐다.

3선 개헌안은 1969년 9월 9일 제72회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0시 47분)되어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9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새벽(새벽 2시 29분~2시 38분 : 9분여 소요)에 통과되었다. 야당이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었으므로 여당 의원 122명이 국회의사당 본관 본회의장이 아닌 태평로 길 건너 제3별관 특별회의실에 은밀히 집결하여 통과시킨 것이었다.

이처럼 속기사에게는 변칙적인 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고뇌스럽고도 힘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역사 현장의 파수꾼’인 속기사들은 최대한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하여 밤을 꼬박 새워 가며 작업을 하기도 했다.

사라진 기록들

속기사는 ‘말의 사진사’로 말한 그대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그러나 모든 발언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발언들이 사후에 삭제돼 공식기록에서 사라져 갔다.

초대 국회는 정치적 혼란기에 탄생했지만 민의는 비교적 충실히 반영했다. 초대 국회의 속기록에서는 삭제를 찾아볼 수 없다. 입법부가 나름대로 독립적이었다는 증거다.

5·16 군사쿠데타와 함께 박정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최초로 헌정이 중단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를 대신했지만 발언이 삭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중앙정보부 해체 주장도 남아 있다.

권력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삭제되지 않은 건 야당의 견제 때문이었다.

국보위 입법회의록에는 삭제가 거의 없다. 정권에 소속된 입법위원들의 발언은 삭제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기 때문이다.

부산 피난 시절,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택상 부의장이 조병옥 내무부장관에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항의를 받은 장택상 부의장이 담당 속기사에게 속기록 삭제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속기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히 거부하였다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초대 국회(1·2대 국회) 당시에는 속기록 삭제는 물론이려니와 발언을 수정 보완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당시에는 틀린 말일지라도 그대로 적고 발언자가 자기 발언을 취소해도 취소한다는 발언까지 그대로 기록되었을 만큼 국회속기록은 가히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국회속기록에서 지워진 발언들은 권력의 속성과 시대상황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유신헌법에 기초해 9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독재권력의 들러리로 전락한다. 중앙정보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감시하고 검열했다.

106건 삭제(주: 여기서의 삭제는 불계재 부분을 의미함)된 9대 국회에서 정권 발언은 삭제 대상이었다. ‘긴급조치’와 ‘김대중’ 또한 최대 금기어였다.

여당인 공화당 출신 의장의 주도 아래 발언은 잇따라 삭제됐고 야당의 저항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말은 우리가 하겠다. 통치자가 하겠다. 듣기만 해라,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입으로 말하든 글로 말하든 말하는 것인데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 입에 족쇄를 물리는, 자물쇠를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임채정 17대 국회의장

“그 당시에 이렇게 속기록이 난도질을 하고 많이 고쳐졌느냐 하면 당시에는 속기록을, 고치고 삭제하는 권한이 의장한테 너무 강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김수환 15대 국회의장

쿠데타 주역이었던 신군부 인사들이 11대 국회에 대거 진입했다. 국회는 권력 앞에 엎드려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식물국회’에 불과했고 정당정치는 실종됐다.

“국회가 행정부의 통치에 필요한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 내부에서 그나마 유의미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 대 반민주의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부딪치던 그런 정도 역할 외에는 ‘통법부 거수기’라고 하는 당시의 비아냥이 표시하듯이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정 17대 국회의장

그런데도 전두환 치하의 11대 국회 때가 국회 역사 60년을 통틀어 의원들의 발언이 가장 많이 삭제(150건)되던 때로 나타났다.

5공 시절은 ‘광주’가 금기어였다.

이들 발언들은 글자 대신 삭제부호로 처리되었다.

6~7대 국회 중 12건은 아예 내용을 삭제하여 보존회의록에도 남아 있지 않았는데, 본회의록에서는 삭제 부분을 “……”로 표기하고, 회의록 말미에 “※본회의록 중 「……」 부분은 발언 취소된 것임”이라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고 표기하였다. 한편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삭제 부분을 “●●●●”으로 표기하고 회의록 말미에 “註: ●●●●은 삭제부분임.”이라고 표기한 것이 있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 부분에 그냥 “「●●●●●”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고, “○○○○”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어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표기 방식을 달리한 듯싶다.

1975년 7월 8일 시행된 임시회의록 발간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는 임시회의록에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과 취소하게 한 발언도 게재하여 의원에게만 배부·열람케 한 다음 당일 회수하고 배부 회의록에는 동 부분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1982년 4월 10일 제정된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불게재 부분은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있다.

제9대 국회에서는 삭제 부분을 배부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로 표기하고, 그 발언 말미에 “(—·—·—부분은 의장이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삭제)”라고 표기하였다.

제12대 국회 이후 불게재 부분은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로 표기하고, 회의록 말미에 “(—·—·—부분은 국회법 제111조제1항(현재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이라고 표기하였다.

참 조

- 불게재(비밀·국가안보 위해 필요한 때 불게재) 현황
 - 제헌~제5대 국회 : 불게재 사례 없음
 - 제6대~제7대 국회 : 내용 삭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12건)

- 제8대~제16대 국회 : 배부 회의록에는 불게재, 보존회의록에만 게재(436건). 다만 제13대 국회 이전에 10건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 있음

■ 제6대국회~제7대국회

대별	총 불게재 건수	기록 없는 건수	비고
6대	9	9	불게재 부분 삭제
7대	3	3	
계	12	12	

■ 제8대국회~제16대국회

대별	총 불게재 건수	기록 없는 건수	비고
8대	5	1	불게재 부분 삭제
9대	106	4	
10대	7	13	
국보위	1	·	
11대	150	1	
12대	127	·	
13대	12	1	
14대	6	·	
15대	5	·	
16대	17	·	
계	436	10	

“사라진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국회의원들의 몫”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국회회의가 생중계되고 국민에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속기록에서도 예전에는 흔하던 삭제 부호를 찾기 힘들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국회는 현재 6대 ~14대 국회까지는 오디오 파일로, 영상회의록은 본회의의 경우 15대 국회인 1998년 187회 국회부터, 위원회의 경우는 17대 국회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회의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속기록 불게재나 속기록 정정이 의미가 퇴색되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그런데 16대 국회 들어 속기록 삭제가 일어났다.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 국회속기록에는 여전히 삭제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에서도 2004년 2월 4일 속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며, 자구정정 발언이나 취소의 발언도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하게 하는 명문규정(국회법 제117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법 제118조제1항에 의한 불게재 부분이 있을 뿐 “속기록 삭제”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의원뿐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속기록 삭제”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과거 ‘속기록 삭제의 추억’ 때문일까……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기록은 역사를 담는다.
하지만 국회속기록을 보면 독재 시절 저항의 역사는 지워져 그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대신 권력에 대한 독점과 굴욕의 역사만 남아 있다. 이제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이 한 행위를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걸 역사의 기록에서 삭제를 한다면 이건 아마 왕조시대에도 없던 그런 횡포고, 물론 앞으로도 없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 전 의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그 기록을 살려내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또 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118조에 그렇게 된 건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니까 스스로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선 전 의원

“속기록에서 삭제된 기록도 역시 국회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공개해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과는 별도의 그러한 삭제 기록으로서 공개를 해서 속기록의 부록으로 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

참 조

불계재 부분의 열람·복사

- 의원의 경우 : 신청 후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가능함.
- 의원 이외의 경우 : 불가능함.

불계재 부분의 일반 공표는 불계재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국회법 제118조제4항). 다만 이에 관한 규칙 불비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윤언여한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역사이고, 올바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에 비로소 밝은 미래가 약속되기 때문이다.

I. 의회속기록의 가치

○ 「국회 60년, 삭제된 역사를 복원하라」 중

“의원님들도 각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다’, ‘윤언여한’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나라님 말씀은 한번 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는 표현은 비단 나라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자 헌법기관인 우리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 그런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예숙 국회 의정기록과 서기관

참 조

윤언여한(綸言如汗)

예기에 나온 말로, ‘땀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한번 내린 임금의 말은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을 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경구이다.

이순을 맞은 18대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과거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역사로 길이 남을 18대 국회속기록에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것은 온전히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우리 속기사는 오늘도 여전히 그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의 파수꾼’으로서 ‘역사의 증인’으로서 귀중한 보물을 빛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리 : 조영기 홍보이사)
— 속기계 제44호(2008)



II
논 고

01. 언어속도에 대한 고찰 **김영춘(협회연구위원장)**
02. 속기실무 향상을 위한 고찰 **하양배**
03. 나의 속기담 **전해성(전문위원)**
04. 속기사, 왜 전문직인가 **홍기표**
05. 속기사의 조건 **홍기표**
06. 인터스테노와 대한속기협회 **이경식 이사장**
06. 중국의 속기...탕야웨이(唐亚伟) **장홍안(張洪安)**

언어속도에 대한 고찰

- 말은 왜 빨라지느냐 -

김영춘(협회연구위원장)

1. 서론

창세 후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인류는 그들의 생활수단의 한 방편으로서 각자의 사상과 감정을 소리로서 나타내는 말,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지방과 민족 혹은 부족에 알맞은 무수한 말들이 발생 혹은 파생되었다가 어떤 말은 소멸되기도 했고 혹은 원시 상태 그대로 존속되어 오기도 하며, 어떤 말은 잔존하면서 개량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까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묘한 것이어서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속어나 억양, 장단, 쓰임새가 각각 그 지역별 특수성에 알맞게 짜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서 중공과 같이 넓은 나라들에서는

II. 논고

동일 민족이지마는 방언족과 표준어족의 언어가 판이해서 원거리 부족 간에는 서로가 의사소통에 매우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언어의 속도에 있어서도 이태리인이나 서반아인 독일인들처럼 다혈질적인 민족들은 매우 빠르고 힘차게 표현하지만 열대 지방 민족들은 매우 완만하고 나른하게 표현을 하여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순수한 제주도의 말은 그 외 타 도 사람이 잘 해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언어의 사용과 해득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판이하지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언어의 속도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영호남 지방어는 약간 속도감 있게 사용되고 있으며, 충청도 지방어는 느리고, 서울을 중심한 경기도 지방어는 보편 정도의 속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별 분류를 떠나서 연령별 분류를 보더라도 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 각기 그 말의 쓰임새도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소년기에는 용어의 사용폭도 빈약하거나와 성장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미숙한 까닭에 언어의 속도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나 중년기에는 용어의 사용폭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숙 단계인 까닭에 그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는 자연히 속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용어의 폭은 풍부하다 할지라도 기력의 쇠퇴와 인생의 막을 닫게 되는 황혼기에 접어든 그들에게는 인생의 회상이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언어의 속도감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언어의 쓰임새나 속도는 사회 각 계층별 연령별 환경별 지방별 차이가 약간씩 있겠으나 본란에서는 전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언어의 속도에 대해서만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언어의 속도가 왜 빨라지느냐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과연 언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증명해야 될 것 같다.

과거에는 언어의 속도가 약간 느렸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어느 정도 빨라졌는가, 빨라졌다면 어떤 원인들로 해서 빨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매우 추상적인 문제지만 검토해 보려고 한다.

언어의 속도가 빨라졌는가에 대한 증명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으나 책명이 『속기계』인 만큼 속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속기를 기준해서 보면 과거 십수 년 전에는 1분간 290~300자를 기록하면 당시로서는 속기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없었으나 그 후 수년이 지나서는 1분간 320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었고, 근래에는 1분에 330~340자까지의 속기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고속을 필요로 할 날이 곧 오리라는 전제하에 속기의 고속화에 대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 한 가지 실증만 가지고도 언어의 속도는 연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원인들로 해서 이와 같이 언어의 속도가 빨라지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검토 분석해 보려고 한다.

2. 시대적 배경(언어의 측면만을 볼 때)

우리 선조들의 생활 상태를 더듬어 보면 당시는 소위 양반사회와 상인사회로 혹은 지배계급사회와 피지배계급사회로 확실하게 양분이 되어 있었고, 전자는 사회의 지도계급으로 행세했었고 후자는 노예와 비슷한 생활로서 말 한번 크게 해 보지 못하고 지내야 했던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데,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지도급이라는 사람들

II. 논고

의 생활철학은 한마디로 「완(緩)」의 사상이므로 「완」만이 지상 최고의 생활윤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은 완만하게, 보행은 완보로, 언어는 “○○이라 여쭙어라” 하는 식으로 하인이나 상인을 중계인으로 세우고야 대화를 했던 간접 언어전달 방식을 택했고, 설사 동급인끼리 대면을 해도 부지하세월격으로 느릿느릿한 대화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법의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하여야만 자신들의 인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했던 당시 사회통념 때문에 결코 민첩함이나 질족(疾足)이 행세할 수 없었으며, 모든 언어는 그 속도에 있어서 매우 완만했었고, 더구나 필요불가결한 의사전달 외에는 매우 삼가고 조심했던 까닭에 언어의 사용빈도가 매우 적었고,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세대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 자연히 생활양상이 바뀌어 감에 따라 그와 같은 그릇됐던 사회통념은 서서히 불식되어 갔으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3. 생활형태의 변화

생활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가속화를 촉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종전의 단순화 생활형태로부터 다양화 생활형태로 생활방식이 변천되어 가면서 소위 사회지도계급이라 자처하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단순한 생업, 즉 원시적 농업형태나 상업(매우 천하게 여겼었다), 어업, 물물교환 정도의 사회생활 형태만을 갖추면 될 수 있었던 까닭으로 아주 제한된 소범위의 언어면 만사가 통하던 시대에서 오늘과 같이 전문화된 농업과 공업 형태,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거래 방법 등은 필연적으로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거래의 한 요소인 다양한 용

어의 발생을 수반하게 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복잡화된 사회생활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기 위하여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의 접촉이 보다 절실해지고 활발해지자 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생활이 되었으며 언어의 범위도 확대되어지고 일정한 시간 내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상대에게 납득시켜야 된다는 조급함에서 가능한 한 자세한 말을 빨리 하려고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습성을 낳게 된 것이며, 이러한 습성은 은연중에 사회 전체에 언어의 가속화를 촉진하게 했을 것이다.

4. 사회구조의 변화(정치 측면을 볼 때)

사회구조가 소수 지배계급사회 혹은 군주제로부터 민주제의 구조로 변모되어 감에 따라 여기에 따르는 언어의 형식 또한 소수인의 전유물로서 전유에 그치던 정치구조가 민주적인 정치구조로 바뀌면서 다수 국민이 주권자의 위치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말을 하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회구조의 변화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처세의 수단으로서 많은 말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며, 더구나 여유자적할 만한 형편이 못되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조급한 형편하에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표해야 되겠다는 충만한 의무감은 결국 그 언어의 가속화를 촉진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 각 분야의 중요 구성 요원이 과거와는 달리 혈기와 패기가 있는 청년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다.

II. 논고

전반적으로 이들의 언어는 박력이 있고 능변이며 달변인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자연발생적으로 언어학상으로 본 사회구조 전체를 짚게 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언어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대화의 광장이며 법의 산실이며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를 보더라도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연소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생활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언어의 양산을 수반하게 되었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현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언 속도가 빨라진 데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법 제97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법 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4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충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상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한두 시간 혹은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발언을 할 수 있었고, 시간제한이 없는 이점을 살려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도 종종 있었던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10여 시간 이상 발언한 기록을 세운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이 경우는 발언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을 끌어서 최대한 의사를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의 속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없애고자 새로이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전기

한 바와 같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자는 자기의 의견을 속히 상대 회중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의욕은 스스로 발언을 재촉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몇 분 남지 않은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 경우 보폭은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른 말을 해야 되는 의원들은 그러한 기회가 찾아질수록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져서 일상언어의 가속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또한 사회 일반에게도 직접·간접의 영향을 주게 되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5. 문명 발달의 소산

미개한 나라나 야만을 벗어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절박한 의식주 이외는 과히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식주 이외 분야는 문명인들의 그것처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언어도 미개한 원시적인 것이어서 겨우 의식주에나 필요할 정도의 극히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의식주라는 것조차도 문명인들의 그것과는 대조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 의식주 자체에 대한 용어도 문명인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한 나라나 야만인들에 대해서 언어의 속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이겠으나 반대로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 내지 중진국에서는 그 문명의 발달 때문에 자연히 생활이 분주스럽게 되고 그 분주스러움에 발맞추어 나가려다 보니 결국 거기에 그림자처럼

II. 논고

따라오는 것은 발달된 언어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말을 통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말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고, 말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말을 통해서 납득이 되어지고, 말을 통해서 거래가 성립되는 말의 홍수 속에서 문명인들은 해엄을 쳐야 되는 현실상황이 언어의 가속을 촉진시켰다고 본다.

또한 문명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처리해야 될 사안도 비대해졌고 그것들을 단시간 내에 완결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겠으며, 이로 말미암아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혹은 독서를 하는 데에도 한가롭게 한 자 한 자 눈여겨 보기보다는 속독해 버리고 다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조급함은 독서에 있어서도 속독을 요청하게 되어 이것 또한 언어의 가속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또한 언어의 예술이라 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외부적인 자극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각종 사건의 신속한 보도를 그 사명으로 하는 방송은 그것이 모두가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각종 중계방송의 경우 그것을 청취하는 다수인들은 중계자의 유창한 언어와 짧은 시간에 각각으로 변화하며 동작되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고속으로 하는 말에 자신도 순간순간 자극되어 그것이 언어생활에 가속화 영향을 나타내게 되리라고 본다.

또 원거리 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화를 이용할 때도 대부분 빠른 말로 통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분으로 제한된 공중전화나 일반전화 요금이 비싼 시외전화로 통화할 때 느릿느릿 통화하는 사람이 없으며,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빠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일상 생활언어는 자연히 가속

화되어지리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6. 투쟁의식의 팽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사회환경과 생활이 다양화되어지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서 각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경쟁을 위한 투쟁의식이 팽대해지는 것이다.

달리는 선수는 1초라도 빨리 달려야 승리한다는 의식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투쟁의식이 많은 사람일 것이며 이런 사람은 좋은 기록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투쟁의식이 없다면 오늘의 이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에서 낙오되어 적자생존의 원칙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우승열패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면에서도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투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 투쟁의 도가 심하거나 격할수록 거기에서 행해지는 언어는 매우 빠른 것이다.

예를 들면 번잡한 시장이나 경매장에 가 보면 말을 적게 그리고 천천히 하면서 자기 물품을 남보다 많이 팔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판매경쟁에 뛰어들 상인들은 상대의 구매욕을 자극시켜 주기 위해서 빠른 말솜씨로 장황한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생활화되고 더구나 시장경제가 발달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러한 시장 내의 경쟁 속에 묻혀야 되는 운명 때문에 자연히 이들 자신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에 직접 혹은 간접의 영향을 받고 주어 언어의 가속을 침입시켰다고 본다.

7. 결론

모름지기 현대는 스피드시대라고 한다. 이 스피드는 지구 이편에서 저편을 동시에 보고 들을 수 있고 가까운 이웃과 같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며칠 만이면 월세계를 왕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화했다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문명인들의 생활과 그 수단 방법 전체와 거기에 부수되는 것까지도 스피드화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완행보다는 초특급이 요청되고 일반도로보다는 고속도로가 요청되고 있는 시대이며, 안전제일주의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던 시대에서 지금은 빠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선 건너 놓고 봐야 되는 성급한 스피드를 필요로 느끼게 된 것이다.

폭주하는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생활 주변이 스피드화되어 가기 때문에 자석에 철이 끌리어가듯 언어도 예외일 수 없이 스피드화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언어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 원인들을 필자 나름대로 검토하고 분석해 봤으나 상기한 원인들 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속 시원하게 지적해 내지 못하는 것은 천학비재라더니 정말 아는 것이 없어 충분히 발췌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

다만 편집부에서 주어진 제목을 받고 한정된 지면에 좀 더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흔적만 남기고 끝을 맺는다.

속기실무 향상을 위한 고찰

하양배

I. 서론

한국 속기계에서 속기가 박여일 씨에 의해 1909년 최초로 발표된 이래 해방 후 속기의 시대적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 창안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론적 체계를 갖춘 기술로서 모습을 갖추어 의회 기록의 중임을 담당하고 사회 각계의 수요에 부응해 온 지도 어언 30여 년이 지났다.

대저 속기의 기능이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음성을 점과 선 그리고 각종 기호로 운필하는 까닭에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속기 창안 이래 실무향상을 위해 속기법식 개량과 속기사의 자질 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 녹음기라고 할 수 있는 속기사가 있을 리 없고, 방음 장치가 철저한 완벽한 회의장 등이 없으므로 언제나 약간은 불비한 가운데 속기사의 역량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충실한 속기

II. 논고

를 위해서는 우수한 속기법식, 유능한 속기사, 양호한 속기 분위기 등 3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여기에서 기존 속기 법식의 개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속기환경 문제도 일단 주어진 조건이므로 가변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속기실무를 향상시키는 데는 속기력(速記力) 증대를 위시한 속기사 자신의 자질 향상이 가장 요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제반 속기 특질에 대해서는 『속기총람』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실무에 임하는 속기사가 부딪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속기를 잘 하려면 속기를 둘러싼 제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속기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을 순수 속기적인 면, 속기를 보조 지원하는 부분을 부수 속기적인 면으로 나누고 이어서 속기인의 정신자세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순수 속기적인 면

속기사가 훌륭한 회의록을 만들어 내야 기록 당시에는 발언자의 주장이나 사상을 널리 전달하는 매체가 되고 후세에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발언의 가치를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속기를 잘 하려면 해박한 지식과 속기력 변문력 등이 밀받침되고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실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 기름진 땅, 알맞은 기후조건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속기하는 작업을 세분해 보면 발언자의 음성이 음파를 타고

속기사의 귀에 도달하면 이를 즉각 이해하여 속기문자로 운필하며, 이를 다시 일반문자화함으로써 종료된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의 부분작업을 완벽하게 하면 전체 속기가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속기를 비롯되게 하는 발언자의 음성이 천천히 정확 명료하게 들리면 속기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으나 보통은 발언자의 개성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어속에 차이가 있고, 거기에다 동서고금의 고전과 시사문제 등을 인용 발언하기 때문에 속기사는 항상 무슨 말이 나올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거기에 처음 듣는 난해한 말이라도 나올라치면 차후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가. 발언속도와 속기력

속기 과정에서 속기사가 부딪히는 제일 첫 문제는 우선 발언속도의 문제이다. 자기의 속기 기량 이상으로 말을 빨리 해서 발언을 빠뜨리거나 미처 내용을 파악지 못하고 적으면 번문 시 상당한 고충을 겪게 되므로 속기사는 고속발언에 대비해 언제나 충분히 받아 쓸 수 있을 정도의 속기실력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최소한 전문속기사라고 하면 속기협회 1급자격증을 가질 것은 물론이고 실무속기사로서 경험이 5년 이상은 되어서 언제 어느 종류의 회의에 임해서도 혼자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취력

흔히 초년생의 경우 회의장에 들어가면 우선 평상적인 말이 아닌 난해한 용어가 자주 나와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는 청취력에 관한 문제로 예를 들면 농산물의 신제품 이름이라든가 신조어 외국어나 토

II. 논고

속적인 말이 나오면 빨리 이해가 안 되어 핵심 되는 말을 놓치기 쉽다. 여기에서 속기력을 뒷받침하는 청취력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다. 해박한 지식

이 청취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방면에 넓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원단위(原單位) 농안기금(農安基金) 생력화(省力化) 등 사회 변천에 따른 신용어 출현과 시사에 항상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취력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것은 한자어에는 동음이의어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선도(先導)와 선도(善導), 실효(實效)와 실효(失效), 세대(世代)와 세대(世帶) 등 이를 적절히 구별해서 써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보전과 보존, 운영과 운용, 안정과 안전 등 유사음을 문맥에 맞게 정확히 문장으로 옮겨놓으려면 속기사는 평소에 풍부한 어휘력을 기르고 동음이의어 유사음에 대해서까지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번문력

속기실무에 있어 발언을 청취해 속기를 했으면 다음에는 번문을 해야 되는데 가끔 잘 써놓고도 풀리지 않아 애를 먹고 또는 잘못 번문하는 오역을 하기 쉽다. 속기문자 자체가 한글처럼 한 음절에 한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점일획 위치표기를 가지고 여러 문자로 해독하므로 오역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므로 속기문자를 바탕으로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내고 속기문자를 푸는 데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서 꼭 합당한 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번 오역한 것은 다시 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후는 틀리지 않도록 맹점을 분

석 시정하는 연습을 하고 처음 속기를 할 때부터 ‘이 정도 기록해 놓으면 번문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 주의를 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기록할 일이다. 또한 번문할 때 유의할 점은 속기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의장 분위기와 회의 진행 상황을 속기에 임할 때부터 잘 파악해 두어야 속기 및 번문이 수월하다. 또한 번문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한자 오기다. 한글음은 맞는데 한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위협(威脅)을 위협(危脅)으로, 진전(進展)을 진전(進前)으로, 경색(梗塞)을 경색(硬塞)으로 한다든지 해서 부주의와 무식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부수 속기적인 면

가. 문장력

속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속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를 지원 뒷받침해 주는 속기 외적인 요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속기 외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들어 보면 속기사는 상당한 문장력을 가지고 발언자가 의식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되풀이한 것이 아닌 한 중언부언한 발언은 번문 시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문법에 맞지 않는다면 말이 선후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명백히 틀리게 숫자나 법조문 등을 인용했다면 필요시에는 발언자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이를 맞게 고쳐 주는 것(修文)이 속기사의 친절스러운 실무라 할 것이다.

나. 수문(修文)의 한계

속기는 속기사 자신의 발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피동적이기는 하나 속기사가 발언 내용을 적절히 판단 기록해서 발

II. 논고

언을 재생하는 능동적인 면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번역 작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번역은 원저자가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과 감정까지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면 잘된 번역이라 하겠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속기도 발언 취지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여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발언자가 발언 내용을 미리 써 가지고 그대로 읽지 않는 한 이를 곧바로 문장으로 옮겨도 좋을 만큼 정연한 발언은 찾기 어렵다. 여기에서 속기 후 문장화하는 데 어느 정도 속기사의 적절한 판단에 의한 수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속기사의 자의적인 지나친 수문은 도리어 발언 의도를 흐릴 수 있으므로 삼가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한계가 미묘한 까닭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수문의 한계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발언 의도를 최대한 나타내는 전제하에서 발언 내용의 변경이 없이 시제의 불일치나 중복된 말의 정리 또는 명백한 착오의 시정, 이 정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또한 원고를 작성하는 데 지나치게 난필이면 원고 교열이나 인쇄식자 과정에도 지장을 주므로 정서를 해야 할 것이며, 행을 바꾸거나 띄어쓰기, 맞춤법, 외래어 표기에 이르기까지 평소에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될 줄 믿는다. 또한 회의 과정을 녹음했을 경우 녹음 대조 시에는 음성을 잘못 들을 수가 있으므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실례를 들면, ‘국회’와 ‘북괴’, ‘중개’와 ‘중대’, ‘사전’과 ‘사정’ 등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문장의 전후 내용을 잘 살펴서 적절한 낱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3. 속기인의 정신자세

첫째, “일은 사람이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발언자가 아무리 유익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한 속기사의 속기 역량 이상으로 회의록이 잘 작성될 수는 없다. 사실 상당 시간 발언한 사람이 자기 발언을 일자일언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은 속기사의 발언 재생 작업으로 그 발언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것인데, 속기사의 불찰로 발언 취지를 어그러뜨렸을 때에는 속기의 가치가 실로 의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속기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속기 업무에 임하여 성심성의껏 청취 및 속기 변문 작업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미심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찾아보고 발언자에게 확인하는 열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첨언할 것은 속기사가 회의장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몸가짐과 복장에도 신경을 써서 엄숙한 회의장 분위기 유지에 일조함은 속기사가 지켜야 할 예의라고 할 것이다.

둘째, 현대 사회는 비단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이 제창되는 시대이므로 끊임없이 변천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넘쳐나는 정보와 새 지식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속기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셋째, 사람 욕심에 누구나 영화를 누리고 싶지만 삶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꼭 권력과 명예, 금전 등의 배타적 소유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각 부서의 장이나 시정의 청소원이나 주어진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면 종사하는 바 길이 다를 뿐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기인도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사회에 유익의

II. 논고

공을 끼쳤다면 그로써 보람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간혹 자기 직업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내가 한번 선택한 직종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임할 때 일의 능률과 향상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III. 결 론

이상 속기사가 실무에 임해서 부딪히는 문제와 정신자세에 대해서 필자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사실 속기란 속기사 자신의 기능과 지혜, 경험을 총동원하는 작업인데, 천태만상의 언어를 받아써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일반문자화한다는 것이 보통 지난한 일이 아니다. 속기할 때는 온 신경을 모두어서 발언자의 말을 쫓아야 하니 장시간 속기할 때는 피로감이 엄습할 때마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듯이 평상시에 이러한 제문제를 인식하여 깊이 성찰 연마하는 자세가 긴요하다.

— 속기계 제21호(1980)

나의 속기담

전해성(전문위원)

1. 의회와 속기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한 영국 의회의 회의록 작성은 초기에는 속기가 아닌 약기로 주요 요점만 기록하던 것을 Isaac pitman이 속기법식을 창안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한 자도 빠짐없이 발언 그대로 기록하게 되었고, 이 속기가 영국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속기 창안자인 Isaac pitman은 1894년 Victoria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제헌국회 이래 속기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속기에 의해서 회의록이 작성된 국가는 많지 않다. 또한 지방의회 회의록도 속기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만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속기는 의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이 아니겠는가?

II. 논고

2. 나와 속기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6·25사변 이후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1957년이다. 당시 우리나라 속기는 그야말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개척 분야 중 하나였다.

속기라고 하면 글씨를 빨리 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어떤 특정 부호를 사용하여 연설 내용을 한 자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실례로 경찰관의 가두검문에서 속기연습장이 나올라 치면 영락 없는 난수표로 오해를 해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신원을 확인받아야 되는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으니 말이다.

국회(민의원)에서는 속기 능력자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국회 속기사 양성을 위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무처 내에 대한속기고 등기술학교를 국립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학교에 6기생으로 입학한 것이 내가 속기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이다. 그 당시 국회 속기사는 병역법에서 소집을 면제토록 한 것만 봐도 속기사 확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

1958년 나를 비롯한 6기생 6명이 국회 속기사로 취업이 되었고, 나는 그 후 줄곧 국회에서 속기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7년 법제관,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의 신속한 파악, 각종 교육에서의 이점, 그리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속기를 활용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가 속기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이와 같이 속기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또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 주었으니 속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3. 속기의 특성(장점)

사람의 삶은 거의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속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에 의한 것이다. 모든 사물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장점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은 전문속기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속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속기의 특성, 즉 장점을 이 기회에 살펴보려고 한다.

가. 신속성

사람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 말과 생각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과 생각을 오래 간직하는 수단으로 발명된 것이 바로 문자이다. 그러나 문자는 말과 생각을 기록할 뿐이지만 말이 말하는 것을 한 자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는 없다.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 사료로 남길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 절실한 필요성에 의하여 창안된 것이 속기다.

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에 속기과목을 포함시켜 누구든지 속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속기는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초기에는 속기가 주로 의회의 회의록 작성에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계획 수립, 강의요록 작성, 원고 대서, 전기, 일기, 메모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생활속기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II. 논고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속기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이보다 금상첨화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박정희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시 속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우리 속기사들이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와 기자들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속기하여 번문하여 주면 그다음 날 아침에는 그 내용이 책으로 발간되어 국내외에 배포되었는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속기의 신속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현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던가? 이와 같이 연설문 내용이 사실 그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은 속기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테니 그야말로 속기는 신비스럽기도 하다.

나. 정확성

영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것은 국왕, 재판관, 그리고 속기사다”라는 격언이 있다. 여기에서 공정하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속기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속기는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결여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경무대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었는데 경향신문이 오보를 함으로써 정간을 당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기자회견에 참가한 신문기자가 속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오는 동안 윗사람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한 번도 착오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것도 내가 속기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의회 회의록을 속기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은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설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 이를 확인해 주는 것도 바로 속기의 영역이다.

다. 신뢰성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된다. 바로 전에 생각한 것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이 거듭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속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속기해 놓으면 되니까.

나는 1983년에 국회의원들을 수행하여 해외시찰을 한 일이 있었다. 속기를 할 수 없었더라면 시찰보고서는 자료와 메모에 근거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나는 방문국 인사와의 대담 내용을 속기하여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한 결과 시찰 의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다.

앞에서도 속기의 장점이 신속·정확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 신속·정확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라는 의미로 이 두 가지가 보장되면 신뢰성은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라. 비밀 보장

현대에 있어서 속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밀 보장이 아닌가 싶다. 사람은 누구나 공사를 불문하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 물론 사람의 생활 모두가 공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국가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비밀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일반문자로 작성하는 것보다 속기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속기로 기록해 놓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 이것은 시간 절약도 되지만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II. 논고

이와 같이 유용하다면 속기를 누구나 배우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나는 “글썸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속기 교육과정은 기본문자, 변자, 약자, 속도교육 순으로 이어지는데 기본문자, 변자, 약자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눈물의 고개”라고 말하는 1분에 250자 이상의 속도교육에 들어가면 10자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에다가 300자 이상을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려면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은 것을 꼭 참고 견디어내야 하는 그 과정은 속기를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태평로 시절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문기자들의 요청으로 속기강습을 실시해 본 일이 있으나 속기 능력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속기는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피눈물나는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대는 스피드 시대, 전문화 시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에 이런 특성을 모두 갖춘 속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활용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속기인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속기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긍지와 역사를 기록한다는 보람을 가지고 속기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에 더욱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속기사, 왜 전문직인가

홍기표

1. 속기에 대한 몰이해

“기자가 공익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나는 기자가 결코 속기사가 아니라는 말도 하고 싶다. 속기사는 아무런 주관적 작업 없이 정확하게 옮겨 놓기만 하면 되지만, 기자는 그 내용의 의미와 경중을 가리는, 이른바 부가가치 작업을 해서 기사를 만들어 내는 책임이 있다.”*

위 인용문은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한 저명인사가 근 20년 전 어느 월간지에 기고한 글 중 한 대목이다. 신문기자는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라 공익에 봉사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을 속기사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속기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고약하다. 단지 말하는 그대로 받아쓰기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속기사라는 식이다. 받아쓰기만 잘 하면 되니, 거기에는 기사를

* 兩非論의 포로, 언제 면할 것인가(趙世衡), 월간조선 1991. 4.

II. 논고

작성할 때와 같은, 내용의 의미와 경중을 가릴 만한 판단력도 필요 없고, 따라서 아무런 부가가치 작업의 책임도 없다는 말이다. 속기록은 정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 정확함은 말하는 그대로 받아쓰기만 잘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저명인사는 언론계에서도 오래 종사하셨고, 몇 차례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다. 자기가 쏟아 낸 말들을 속기록으로 읽어 보았을 터인데도 속기사에 대한 인식은 고작 이 정도였다. 그의 눈에는 속기사가 단순 기능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속기사에 대한 이런 무지한 인식은 단지 이 저명인사만 그런 것도 아니요, 20년 전의 옛날 얘기만도 아니다. 오늘날에도 일반인들의 속기사에 대한 인식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어쩌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국회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들린다. 왜 속기사가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되어 있느냐, 속기사들이 사무원보다 힘들 게 뭐 있느냐, 속기록은 그냥 속기사들이 나누어 기록한 것을 결합만 시키면 되는데 무슨 편집 직원들이 필요하냐..... 마치 동네 장기관 훈수하듯 너도나도 아는 체를 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속기 업무가 단순 기능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구구히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지나 놓고 보면 말한 사람의 입만 아팠을 뿐이다.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의 변명쯤으로밖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속기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속기사를 무조건 기능인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저 말하는 대로 ‘받아쓰기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속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그런 의식이 특히 더한 것 같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손만 바쁘게 움직일 뿐 것처럼 편한 직업도 없는 것이다. 속기사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속기 업무 발전을 위하

여 우리 속기인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또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속기사는 보통 기능인과 다르다고 인정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언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 하나뿐이다. 오직 스피드 하나만이 속기의 전부요, 그 스피드만 익혀 놓으면 그저 말하는 대로(심지어는 들리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되니까 속기록의 작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선입견이나 몰이해야 속기에 대한 인식 부족 탓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속기인들 역시 속기 업무를 그저 말하는 대로 열심히 받아 적어서 그대로 문자화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자세로 속기록을 작성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속기사는 기능직 아닌 전문직이라고 핏대를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떤 면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평생을 속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헌국회 이래 60년이 다 된 오늘날까지 속기사가 전문직으로서 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말하자면 전문가라면 무엇보다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표준 국어 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II. 논고

그렇다면 전문직 속기사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속기 업무에는 어떤 분야에 대해 어느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험을 어느 정도나 축적해야 전문직 속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또 현직 속기인들 중에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충족하게 구비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속기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속기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속기사는 기능인이라야 맞을 것 같다. 그까짓 받아쓰기야 속기술만 익혀 놓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단순 기능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간단명료한 이유 앞에서 대부분의 속기사들은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러나 이견 대단한 속단이다.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속기의 대상이 인간의 ‘언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언어라는 용기(容器) 속에는 다종다양의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은 일반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동작’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다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달리 머리 쓸 것도 없이 일정한 동작에 숙달되지만 하면 누구든지 숙련공으로 인정을 받는다. 또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없이도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그 일에 능숙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속기술이 과연 단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인가? 일단 속기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아무런 ‘지식의 뒷받침’ 없이도 말하는 대로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속기사의 판

단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받아쓰기만으로도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속기 업무가 단순 반복적 기능의 습득으로 족한 것이라면 인간의 언어가 단순 반복적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언어라도 이 지구상에 단순 반복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명인의 언어일수록 그 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 어휘 수 또한 헤아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뿐인가. 문명사회일수록 각종의 신조어, 약어, 전문용어가 끊임없이 생산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전(變轉)해 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풍부한 어휘력과 이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정확하게 옮겨 놓는’ 작업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에는 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2. 기능직 속기사와 전문직 속기사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문제 발언을 했다고 하자. 신문기자는 그 발언 내용을 기사화할 것이요, 속기사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록에 담아 낼 것이다. 그러면 신문기사와 속기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비유컨대, 신문기사가 물고기를 잡아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은 생선 요리라고 한다면, 속기록은 물고기를 산 채로 채집하여 그 생태와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족관과 같다 할 것이다.

생선 요리를 만들자면 먼저 물고기를 죽여야 한다. 몸통은 토막을 내고, 내장이나 비늘 등 필요 없는 부분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갖가지 양념을 하고 지지든지 볶든지 굽든지 끓이든지 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반면에 수족관에는 모든 물고기가 숨을 쉬고 살아 있어야 한다.

II. 논고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선명한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죽거나 병들거나 상처 난 물고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족관에는 모래와 자갈을 깔아 주고, 수초를 옮겨 심거나 기포기를 설치하는 등 생태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물이 탁하거나 부유물이 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음성언어는 살아 있는 물고기와 같다.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옮겨 놓기만 할 경우, 다시 말하면 음성 하나하나를 축어적(逐語的)으로 ‘문자화’해 놓기만 할 경우 마치 토막 난 고기처럼 그 음성언어의 생명력은 이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진지하고 열띠었던 발언들이 맥 빠진 활자로만 누워 있게 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수질오염으로 등이 흰 고기처럼 음성언어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속기록의 작성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문자언어’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음성언어의 정확한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미세한 뉘앙스의 차이, 나아가서는 발언자의 심리나 회의장의 분위기도 속기록에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 때로는 조용조용 오가는 질의응답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치열한 기싸움까지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속기록에는 속기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속기록의 작성은 작품을 쓰는 것도 아니요, 또한 작문을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을 가미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말한 그대로만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언 내용에 한해서이다. 그 발언 내용이 문자언어로 정확하게 살아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속기사의 판단이 가해져야 한다. 살아 있지 않으면 살아나게 해야 한다. 거기에는 발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요, 고도의 언어적 판단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속기사는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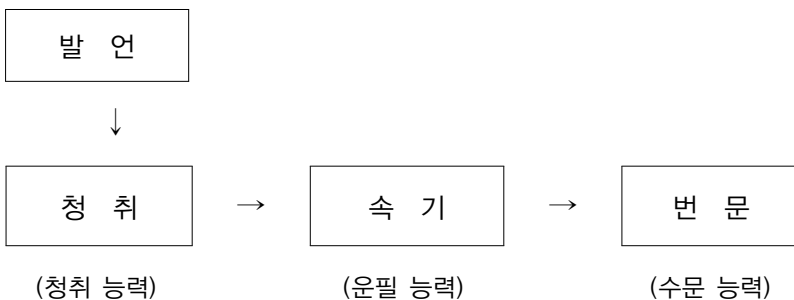
성언어와 문자언어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 위에 오랜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성을 단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감각적으로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속기사에게는 특별한 자질과 소양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유능한 속기사가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이다.

유능한* 속기사를,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하며,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설명에서 우리는 속기사에겐 세 가지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말과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청취 능력(聽取能力)이요, 둘째는 발언 내용을 어그러뜨림 없이 기록할 수 있는 운필 능력(運筆能力)이요, 셋째는 자유로이 용어를 구사하며 번문에 비판적 판단을 가할 수 있는 수문 능력(修文能力)이다. 속기 업무 과정에 이 세 가지 능력을 대비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도표를 그릴 수 있다.



* 원문에는 ‘우수한’으로 되어 있으나 ‘eminent’ 혹은 ‘prominent’의 번역일 것으로 보아 필자 임의로 ‘유능한’으로 바꾸었음.

** 速記概觀(1969. 국회사무처 간)

II. 논고

어느 분야의 일이든 그 분야의 실무를 능숙하게 처리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는데도 실적이 따라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속기 업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제아무리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라 해도 다 같은 속기사가 아닌 것이다. 실무 능력은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속기사의 실무 능력은 곧 속기록의 질을 결정한다. 실무 능력의 우열, 속기록의 질의 우열은 곧 그 사람이 속기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유능한 속기사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된다. 속기록의 생명인 정확성은 물론이요, 동시에 음성언어의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 있는 속기록의 작성은 바로 청취 능력과 운필 능력, 수문 능력을 제대로 겸비한 속기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손이 빠르다는 것 외에 높이 살 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전문직 속기사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속기술을 익힌 ‘기능인’일 뿐이다. 정확하고도 생명력 있는 속기록은 속기술이라는 기능만 가지고는 절단코 작성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속기인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자신이 속기인으로서 전문가임을 자임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속기인으로서 당신은 어떠한 전문성을 얼마나 구비하고 있는가?

— 『의회속기록 작성의 원리와 실제』(2008)

속기사의 조건

홍기표

1. 청취 능력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學力)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가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를 듣고 기록한다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나 제대로 소화하고 정리해 낼 수 있을까.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유는 그 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할 만한 청취 능력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1급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어떨까. 속기술을 이용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받아 적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점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속기사는 못 알아듣는 소리가 없다고.

물론이다. 그러나 그건 속기사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다. 청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못 알아듣는 ‘소리’는 없다. 하지만 청취 능력은 ‘청력’과는 다르다. 누구나 못 알아듣는 ‘소리’는 없지만 못

II. 논고

알아듣는 ‘말’은 있는 것이다. 속기술을 익힌다고 하여 못 알아듣는 말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유식해질 수는 없다. 1급 속기사라 하여 1급의 청취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경험 있는 속기사라면 ‘장내 소란’ 속에서도 요령껏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발연 속도가 느리고 정확한 표준 발음으로 얘기를 한다 해도 자신의 청취 능력 범위를 넘어선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청취 능력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담부터 하나 소개하자. 속기사 초년병 시절, 농수산위원회(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장관 답변 중에 ‘시바루’라는 말이 나왔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아마 내가 모르는 외래어려니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시바루’라 기록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주무(主務)에게 물었다.

“아까 답변 중에 ‘시바루’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 말에 주무는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야 이 사람아, ‘시바루’가 뭐야, ‘10a(아르)’지.”

얼굴이 화끈 했다. 장관이 일제 시대에 교육받으신 분이라 일본식 영어 발음(아르 → 아루)에다 연음현상이 겹쳐서 10a의 발음이 ‘시바루’라고 들린 거였다. 당시 필자의 청력은 정상이었지만 청취 능력은 전후 발연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런 특이한 발음을 새겨들을 만큼 따라 주지를 았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속기의 대상은 인간의 언어(말)다. 언어란 인간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을 남에게 알리기 위하여 입으로 내는 소리(음성)다. 말이 되는 소리는 반드시 그 속에 뜻(의미)을 담고 있다. 속기술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 적는 기술이다. 소리는 설사 ‘바담뽕’ 하더라도 속기사는 마땅히 의미를 지닌 ‘바람풍’으로 새겨들을 수 있는 능력자여야 한다.

그러면 다시 묻는 이가 있을 것이다. 누가 바람풍을 바담뽕이라 하겠느냐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렇게 혼한 일이라고.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런 오류는 발언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서, 청취 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혼한 것 중의 하나가 숫자를 잘못 읽는 경우다. ‘13억 5319억 달러’ 식으로 말이다. 지금은 옛날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지만, 한자를 혼용하던 시절에는 ‘眞摯’ ‘收賄’ ‘嗜好食品’ 같은 한자어를 ‘진집’ ‘수유’ ‘노호식품’이라고 발언하는 일들이 허다했다. 때로는 얘기에 치중한 나머지 천사-악마 정도의 정반대 낱말을 계속 바꿔 쓰면서도 정작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기도 한다. 이럴 때 속기사는 이러한 오류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청취 과정의 오류다. 그것은 대개 속기사 자신의 어휘력이나 지식 부족이 원인이다. ‘특계자금(特計資金)’을 ‘특혜자금’으로, ‘UR협상’를 ‘6월협상’으로 청취하고 또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이다. 일반 청중들이야 발언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자신의 청취 능력이 좀 부족해도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그만이다. 설사 내용 파악을 못한다 해도 누구에게 책임질 일도 없다. 그러나 속기사가 이러한 오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말하는 대로, 때로는 들리는 대로 ‘정확하게 옮겨 놓기만’ 한다면 그러한 속기록의 질적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더구나 속기사의 청취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오류가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 있게 된다면 그 속기록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오류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초로서 의회 속기록은 역사성과 증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초의 작성을 ‘청취 능력이 결여된 속기사’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하기에 청취 능력은 속기사가 구비해야 할 제일차적인 조건인 것이다. 물론 속기술이 중요치 않다

II. 논고

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도 청취 능력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속기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청취 능력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속기사 1급 자격증은 소질만 있다면 1, 2년 내에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청취 능력은 1, 2년 가지고는 어렵도 없다. 아니, 평생을 매달려도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청취 능력 문제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청취 능력의 결정 요인들

첫째로 청취 능력은 어휘력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널리 불린 노래가 있다. ‘오, 필승 코리아’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를 ‘Oh, peace Korea’로 알아들었다고 한다. 반면에 유치원 어린이들은 ‘오, 미스 코리아’로 따라 불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청취 능력은 대체로 이미 자신이 습득하고 있는 어휘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발언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단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와 일치시켜서 청취를 하는 것이다. 예문을 들어 보자.

- ① 오늘 질문하시는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주한 미 2사단을 우려한 미군 재배치에 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 ② 노사분규 경향을 보면, 종래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해서 주로 분규가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작업 중지권을 요하고 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수단으로 이런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요(圍繞)’란 한자어가 요즘은 잘 안 쓰인다. 젊은 사람들에게겐 무척이나 낯선 단어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 사람은 ‘위요한’을 ‘우려한’으로 들었고, 한 사람은 ‘위요하고’를 ‘요하고’로 들었다. 그리고 각각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모르는 어휘의 정확한 음을 잡아낸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

- ③ 일부에서는 한전을 聖域化하면 7600억인가 흑자 낸 것의 배를 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省力化’의 올바른 발음은 ‘생력화’다. 이것을 ‘성력화’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속기사는 이를 ‘성역화’로 청취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聖域化’로 기록해 놓았다. ‘바담뽕’ 했는데 ‘빠담뽕’으로 들은 것이다. 속기사는 잘못된 발음까지도 제대로 새겨들을 수 있을 만큼 어휘력이 풍부해야 한다.

나아가서,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취 능력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청취 능력은 지식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 ① 미국의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AFL, CIO에 미국 전체 근로자들 중 노조 가입 비율은 27% 정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 ② 이런 아황산가스 말고도 산이나 숲 사이에 길을 내는 소위 人道는 그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생태에 가장 어울리는 人道를 내지 않으면 그 인도로 말미암아 생태계가 분열이 되고 한쪽의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잘못된 인도는 생태계의 38선이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II. 논고

- ③ 저도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AFL-CIO는 미국의 ‘노동총연맹 산업별 노동조합회의’의 약칭이다. 그런데 예문 ①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단체가 마치 AFL과 CIO, 두 개인 것처럼 되어 있다. 예문 ②에서는 ‘임도(林道)’를 두 번은 ‘人道’로, 두 번은 ‘인도’로 기록하고 있다. 지식이 따라주지 않을 때 청취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반점(,) 하나가, ‘ㄴ’ 받침 하나가 속기사의 유식하지 못함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 놓게 되었다.

예문 ③을 꼼꼼 음미해 보라, 과연 어떤 오류가 숨어 있는지. 평소 독서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류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발언자는 ‘가이사’를 ‘카이저’라고 발음했고, 속기사는 이를 ‘가해자’로 청취한 것이다. 지식수준이 따라 주지 않으니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기록을 남겨 놓게 된 것이다.

또한 청취 능력은 이해력과 비례한다. 평범한 어휘도 어휘 나름이다. 논리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발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오청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 ① 잉여자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학력, 보충역, 편입 연도 등을 감안하여 제2 국민역으로 역종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②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가양대교 및 한강 둔치 지하수를 측정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이 기준치 6ppm보다 5배가량 높은 29.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 ③ 전두환 당시의 군부 정권을 뒷받침해서 그렇게 탄압하고 희생 당했고, 이런 일이 50 시절, 80년 앞뒤로부터 최근 10년까지…… 아니, 최근이 아니라 80년대 내내 자행됐고 그것이 6월 항쟁으로 끝났는데, 그때 82년도 말에 받은 표창은 여전히 학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것입니까?

예문들 중에서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다. 속기사의 청력도 정상이었다. 그러나 모두 청취 능력은 따라 주지를 않았다. 발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문자화해 놓았다.

①에서 ‘학력, 보충역, 편입 연도’는 ‘학력, 보충역 편입 연도’로, ②에서 ‘가양대교 및 한강 둔치 지하수’는 ‘가양대교 밑 한강 둔치 지하수’로, ③의 ‘50 시절’은 ‘5공 시절’로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받아쓰기를 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엉뚱한 기록을 남겨 놓기 십상인 것이다. 문장 부호 하나도, 맞춤법 하나도, 고유명사의 표기조차도 속기사의 이해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수많은 어휘의 갖가지 순열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음성언어를 순간순간 내용을 파악하면서 기록하는 일이 어찌 속기술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의 변수—특이한 발음

풍부한 어휘력과 폭넓은 지식 그리고 전후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 이 세 가지는 바로 속기사의 청취 능력을 결정하는 3대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문 직업 속기사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에 대해서는 이계진 의원님이 자신의 블

II. 논고

로그 ‘해바라기 피는 마을’에 그림과 함께 재미있는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어 소개한다.

“나는 국회에서 일하며 속기사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만약 내가 속기사라면 앞에 올린 상황을 (여야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그림) 어떻게 속기록에 남길 것인가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속기사가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천천히 하는 말을 기록하기도 바쁘는데 제각각의 속도와 제각각의 특이한 발음, 별말 별소리를 다 하는 의원들의 말을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궁금했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을 가진 전문가이겠지요만.

국회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 법안의 비정상적 상정 해프닝이 있던 날의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속기사의 속이 상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중략)- 속기사들은 숙련된 솜씨로 부호문자를 써서 하지만(속기 타자도 있음) 내가 만약 그 장면을 내 필기 속도로 썼다면—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면—뭐—야—국—안—(소란)—후다—상—야!—게—억—우루—합—그—구—억—끝—뻗—억—아—야—가—밀—막—똥—야!— …
(청취 불능, 엄청 소란, 개판 비슷했음, 울고 싶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속기사가 안 된 것이 다행입니다.”

“제각각의 속도와 제각각의 특이한 발음, 별말 별소리를 다 하는”—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시라 보는 눈이 다른 것 같다. 속기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시니 말이다. 따발총 식으로 마구 쏟아 내는 발언, 사투리 발음에다 말꼬리조차 맺고 끊음이 분명치 않

은 발언, 이빨 빠진 듯 입 속에서만 우물우물 뱀도는 발언…… 속기를 하는 순간순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실무 속기사 시절, 한 번은 동료 직원 한 사람이 녹음을 몇 번씩 들으면서 고민을 했다. “번개 노은 개 뜻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짐작을 못 하겠다고. 내가 들어 봐도 역시 그렇게 들렸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공청회(?)를 했지만 모두들 그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몇 번을 반복해 들으면서 앞뒤 문맥을 따져 비로소 찾아 낸 정확한 발음은 “번개에 놀란 개 뛰듯이”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차라리 낫다. 워낙 말이 안 되니 몇 번이라도 녹음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바로잡아 줄 수 있으니까. 한데, 때로는 이런 특이한 발음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 이때도 역시 속기사는 자신의 유식하지 못함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① 작년 현재 전국적으로 항구에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체선 체하로 인해서 받은 경제적 손실이 약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속기록에는 사투리는 사투리대로 다 기록한다. 사투리도 소중한 우리의 국어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투리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바꾸어 기록해야 한다. 의미가 달라지거나 이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간통 도로’나 ‘시계 경제’는 당연히 표준 발음을 좇아 ‘관통 도로’ ‘세계 경제’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걸 인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발언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를 못 했을 때는 특히 그렇다. 예문 ①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체선 체하’가 아니라 ‘체선 체화’다*.

II. 논고

- ② 국회의 관광 명소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③ 지금 우리 주한 미 사단도 굉장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 ④ 적어도 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권리는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예문 ②는 누가 읽어 보아도 어색함을 느낄 것이다. ‘관광 명소화안(案)은’을 ‘관광 명소와는’으로 오청하고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우리말의 특성 중 하나인 연음(連音)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들리는 대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관광 명소화’의 ‘화’를 ‘와’로 오청하면서부터 연속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화+안은 → 와+안은 → 와:는 → 와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 음이 연속될 때 특히 심하다. 예문 ③에서 ‘미 사단’은 ‘미 2사단’의 오청이다. ‘미 2’를 ‘미’로 청취한 것이다. 때로는 ‘12일’을 ‘10일’로, ‘KEDI(한국교육개발원)’를 ‘KDI(한국개발연구원)’로 기록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말에서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흔히 []로 발음하는 이들이 많다. ‘주의’를 ‘주이’로, ‘정의’를 ‘정이’로 발음한다. 그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문 ④는 그러한 우리말의 특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정의+입니다’를 ‘정+아:버니다’로 청취하고 ‘정입니다’로 기록한 것이다.

- ⑤ 양곡의 무상 지급, 농어민의 중고생 수험료 면제 등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⑥ 그동안 정부가 화해·교류·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 滯船 滯貨

북한도 7일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해 나가는 등 나름대로 개혁 개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대로 기록이 많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자음동화 같은 음운 현상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들리는 대로 기록해 놓고도 전혀 인지를 못 하는 것이다. 지식수준이 미치지 못할 때 그러한 현상은 특히 더하다. 속기사가 만물박사일 수는 없다. 당연히 ‘7·1 경제 개선 조치’를 모를 수 있다. 그러나 ‘7일’과 ‘7·1’ 사이에는 음운상 미세한 차이가 있다. 속기사는 그 미세한 차이에서 의미의 차이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음운 현상에 남다른 예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 예문을 바르게 기록한 것은 다음과 같다.

- ⇒ ⑤ 양곡의 무상 지급, 농어민의 중고생 수업료 면제 등 가뭄 피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⑥ 그동안 정부가 화해·교류·협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북한도 7·1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해 나가는 등 나름대로 개혁 개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필수 조건

속기 업무의 이런 특성 때문에 속기록의 검토 편집 업무에는 절대적으로 풍부한 속기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위와 같은 속기사들의 갖가지 실수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읽어 보

II. 논고

면 모두 다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아 내듯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실무상의 실수들을 잡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갖가지 음운 현상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의 시대적 추세는 그것만으로도 속기록을 제대로 편집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 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원자로 건설을 위해서 40억 불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된다 이거지요.
- ③ 자회사가 현재 약 40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역량을 육성한다, 코어 컨피던스(core confidence)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공기업 분야로 남는 자회사에 대해선 엄격한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일상의 가벼운 대화 중에서도 계속 외국어를 섞어 씌므로써 상대방을 피곤케 하는 이들이 있다. 말하는 이는 자신의 유식함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일 테지만, 이를 정확히 청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긴장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쌀밥에 누 섞이듯 외국어가 끼어들면 예문에서와 같이 가끔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문 ①에서 ‘앞으로 어찌할 것인지’는 ‘어프로치(approach)할 것인지’의 오칭이요, ②에서 ‘써야 된다’는 ‘셰어(share)해야 된다’의 오칭이다. 예

* 필자의 기억에 의해 재생한 문장임

문 ③은 우리를 더욱 어이없게 한다. ‘코어 컴피턴스(core competence)’를 ‘코어 컨피던스(core confidence)’로 오칭하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 어설픈 영어 실력 탓이다. 갈수록 외국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 가는 우리의 언어 현실에 비추어 이제는 ‘외국어 능력’도 속기사의 필수 조건인 시대가 된 것이다.

풍부한 어휘력과 폭넓은 지식, 논리 전개에 대한 이해력, 거기다 날로 그 필요성이 더해지는 외국어 능력—결국 속기사는 지식인이어야 한다. 속기술의 습득 이전에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위에 음성언어에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음운 현상이나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발음이라도 이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살려낼 만한 언어 감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언어 감각은 대체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체득해 가는 것이다.

2. 운필 능력

발성과 동시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음성언어를, 그 발언 속도를 따라가면서, 속기문자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운필 능력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이 ‘속기의 전부’로 알고 있는 스피드 능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기사를 간단히 기능인으로 치부하면서도 이 스피드 하나만큼은 무척 부러워한다. 말하는 대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쓱쓱쓱 받아 적으니 부러워할 만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운필 능력은 속기를 배운다고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속기술이 여타 기능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일례로 운전면허는 한두 번 실패한다 해도 몇 번 시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허증을 취득한다. 직중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

II. 논고

는 있겠으나 기능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러나 속기술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소질 없는 사람은 몇 년을 매달려도 도저히 1급에 도달을 못 한다는 점이다.

노래는 누구나 배우고 또 즐겁게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직업 가수가 되려면 노력 이전에 뛰어난 가창력과 함께 연예인으로서의 타고난 끼가 필요하다. 속기술도 이와 꼭 마찬가지다. 누구나 속기술을 익히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편리하게 써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문 직업 속기사로서의 운필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노력 이전에 타고난 소질이 필수적이다.

써 놓고도 못 읽는 사람들

그 타고난 소질이란 우선 빠른 손놀림이다. 손이 빠르면 속기사가 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속도 연습할 때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손이 빠른 사람들이 간혹 있다. 다른 사람들은 낭독하는 속도를 따라가기도 힘들어하는데 약자니 약법이니 싹 무시해 버리고 거의 기본문자만 가지고도 여유 있게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다. 그들이 기본문자만 쓰는 이유는 이론 학습 과정에 소홀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손 빠른 것 하나로 충분히 언어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다. 참으로 부러울 정도의 빠른 손놀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손이 빨라서 다 써 놓긴 했는데, 기껏 다 써 놓고도 읽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부호 식별 능력이 안 따라 주기 때문이다. 속기문자라는 것이 앞뒤 문맥을 짚어 가면서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풀리기 마련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이는 그 사람의 속기문자가 부정확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속기문자가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습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연습도 충분했고, 속기문자도 정확한데 읽지 못하는 것은 언어 감각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써 놓은 속기문자는 너무나도 정확해서 옆 사람이 보기에 그냥 읽어지는데 정작 본인은 읽지를 못하는 것이다. 언어 감각은 속기 실무 시에만이 아니라 속기 이론의 학습이나 속도 연습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속기 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그 적용 능력 또한 탁월하다.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여러 해 동안(82~97학년도) 강의를 맡아 가르친 적이 있다. 그때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빠른 손놀림과 언어 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등생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어 감각은 좀 떨어져도 손놀림이 무척 빠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손놀림은 좀 떨어져도 언어 감각이 남보다 앞서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우등생이라 함은 평소 속도 연습 과정에서 치러지는 테스트에서 꾸준히 90% 이상의 정확도를 올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런 우등생들도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다. 2, 30명 중 한두 명꼴이니까.

언어 감각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속기 이론 과정은 기본문자 → 변자 → 약법 → 약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 중에 매일같이 과제물이 주어진다. 이론을 철저히 숙지시키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때 제출된 과제물을 검토하다 보면 참으로 각양각색의 속기문자가 나타난다. 같은 시간에, 같은 강사에게,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들었지만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속기문자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같은 어휘라도 가장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부호를 찾아내어 기록하는 이들은 그만큼 언어 감각이 앞서는 사람들이다. 이런 언어 감각을 가진 사람은 실제 속도 연습에 들어가면 순간순간 언어를 분석, 부호화해 내는 능력이 아주

II. 논고

뛰어나다. 이런 사람이 손놀림까지 빠른 편에 속한다면 금상첨화다. 아주 탁월한 속기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번문 실력 또한 우수해서 평소에도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당시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입학 경쟁률이 평균 5 대 1 이상이 될 정도로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이런 ‘도사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 3년에 한 명 정도였다.

청취 능력과 운필 능력의 상관관계

속기사 자격증 취득까지는 빠른 손놀림과 언어 감각이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막상 속기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 운필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속기사 자신의 청취 능력이다.

30여 년 전, 처음 속기사가 되어서 농수산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었다. 다른 게 아니라 농약 이름이었다. 그때만 해도 서울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도 가끔 내려가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농약을 비롯해서 각종 농자재 이름을 좀 알고 있었다. 알파딘, 네오아소진, 사단에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약 이름을 왜 이렇게 모두 외래어로만 지어야 되는 걸까. 이런 농약 이름을 부름인 나는 익히 알고 있었기에 약자로 간단히 받아 적으면서도 정확하게 번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무는 오히려 반대였다. 기본문자로 기록을 하고서도 정확한 번문을 못 하는 것이었다. 알파딘, 네서진, 사다니스……

그 후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교대로 투입되면서 경험이 쌓이는 가운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고향에 내려가는 일도 뜸하게 되었다. 그때 다시 농수산위원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예전의 그 주무꼴이 되었다. 농약 이름만 나오면 헤매게 된 것이다. 낯

선 외래어로만 되어 있는 고유명사의 정확한 음을 잡아내려니 자꾸 손놀림이 뻑뻑해지는 것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실사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를 정확한 음으로 새겨들을 수 있고 순간순간 약자화할 수 있으니 운필이 수월하지만, 모를 경우에는 발음이 아무리 정확해도 청취는 부정확하고 기본문자로만 쓰게 되니 운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나중에 번문할 때에도 그 정확한 음을 확인하느라 또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여러 위원회 가운데에서 특히 어렵게 느꼈던 곳이 재무위원회와 상공위원회였다.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 위원회는 속기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운필이 별로 어렵지 않을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발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속기를 하게 됐던 것이다. 해당 위원회에 자주 드나들면서 용어에 익숙해진 탓도 있지만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재무행정론 공기업론 등을 몇 번 읽어 본 것이 청취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는 ‘말’이 들리지 않고 ‘소리’만 들릴 때가 많다. 자연스럽게 발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리’를 의미를 가진 ‘말’로 새겨들으려면 자신도 모르게 멍침멍침하게 된다. 초당 5, 6음절 이상의 고속도 발언이 계속될 때는 이런 멍침거림이 더욱 심해진다. 자연스럽게 운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운필 능력이 떨어지면 뭘가 모르게 쫓기는 심리가 되고, 속기문자는 더욱 부정확해지게 된다. 그럴 경우 1~2mm 차이로 의미를 달리하는 속기문자의 특성상 번문할 때 뜻하지 않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II. 논고

“국제 금융시장은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경제상품의 개발 또 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특별히 어려운 용어는 없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오류를 눈치 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발언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운필 능력이 따라 주지 않았고, 그에 따라 속기문자가 흐트러짐으로써 변문이 잘못 된 흔적이 남아 있다. 녹음을 대조하여 바로잡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금융시장은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화 및 규제 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신금융상품의 개발 또 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피 말리는 집중력

청취 능력 못지않게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또 있다. 속기술의 절대 조건은 순간순간 쏟아지는 말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된다. 내용이 어려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집중력은 더욱 요구된다. 속기라는 것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음절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어나 어절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기술이다. 단어나 어절은 최소 1음절로도 성립이 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3, 4음절이요, 많으면 5음절 이상으로도 구성된다. 속기사는 음절 하나하나를 순간순간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나 어절들이 수많은 순열 조합에 의해서 구성해 내는 말을 이해하면서 기록을 한다.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속기사는 10음절 이상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속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의 순열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음성언어를 분석해 가면서 가장 표기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20~30 음절 정도 뒤따라가면서 속기를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 외부적 충격으로 자칫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 20~30 음절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참으로 아찔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한밤중까지, 또 몇 날 며칠 사무실과 회의장을 오가면서 계속 속기 업무에 매달릴 때 그 집중력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에 비례하여 또 청취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무 속기사 시절, 야근을 하면서 속기한 노트를 번문하려고 하면 말이 성립이 안 될 때가 많았다. 할 수 없이 녹음을 대조하여 보노라면 정말로 얼토당토않게 기록한 적이 많았다. 한 번은 ‘정말입니다.’가 문맥상 이상하여 녹음을 확인한 결과 너무나 또렷하게 ‘천만의 말씀입니다.’로 들리는 것이었다. 집중력의 저하는 이처럼 청취 능력에 치명적인 오류를 초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속기사, 그 평생의 고통

음성언어가 발생 순간 언어로 새겨듣기 어려울 때는 일단 ‘소리’만이라도 기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곤 나중에 번문을 하면서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속기과 사무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들이 오갈 때가 많다.

“선배님, 혹시 조수환 의원이라고 아세요?”

“조수환 의원? 글썄... 언젠적 사람인데?”

II. 논고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 조병옥 박사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혹시 ‘조소앙’ 의원 아닌지 모르겠네. 녹음 한번 다시 들어 봐요.”

녹음을 다시 들어 본 후배가 한시름 놓은 듯 웃으면서 말한다.

“선배님, 맞아요. 확실히 조소앙이라고 들리네요.”

때로는 ‘말’로 알아듣고 기록했는데, 사실은 ‘소리’를 기록하게 될 때도 있다. 그리고 번문을 하면서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수도 있다. 하루는 임시본 회의록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이 보였다.

“명백하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많은 군을 전선에 대비하고 있고 또 군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속기사에게 물었다.

“○○○ 씨, ‘많은 군을 전선에 대비하고 있고’란 말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많은 군을 대비한다’ 그게 안 이상해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녹음을 확인하던 후배가 다시 말했다.

“선배님, 이것 한번 들어 보세요. 분명히 ‘대비’라고 하는데요.”

“다시 들어 봐요, 혹시 ‘배비(配備)’라고는 안 들리는지.”

“‘배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 보는데……”

잠시 후 후배가 풀이 죽어서 말했다.

“선배님, 죄송해요. ‘배비’라고 들리네요. 제가 그런 말을 미처 몰라서……”

“(웃으면서) 나한테 죄송할 건 없지. 이제 ‘배비’란 말도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유명한 강해 설교집 『산상수훈』 서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이 책이 활자화된 데에는 이 설교가 전해질 때 거의 기적으로 속기에 답을 수 있었던 F. 허칭스 부인과 나의 여식 엘리자베스 캐더웃의 수고에 힘입었습니다.”

현대 속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피트맨과 그레그의 나라요, 의회민주주의의 선진국답게 영국에서는 속기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모든 설교 내용을 속기록에 ‘거의 기적으로’ 답을 수 있었던 것은 속기하는 분들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탁월함은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과 기독교 교리에 박식했고, 목사님의 평소 설교 스타일이나 이론 전개 방식에 익숙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발언 내용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청취하여 완벽한 속기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다.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 박학다식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니까. ‘기적’이란 평생에 어쩌다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반복된다면 그건 이미 기적이 아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 모두 답을 수 있는 운필 능력은 그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II. 논고

발언 속도가 빠르다. 이해할 수 없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것은 바로 우리 속기사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들이다. 그것도 한두 시간이나 몇 날, 며칠에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고통이다. 속기사란 바로 그러한 고통과 정면으로 부딪쳐서 ‘완벽한 속기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내려고 발버둥쳐야 하는 직업인인 것이다.

평생에 걸쳐 그러한 기적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속기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누구라도 속기술이란 기능만 익히면 속기 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속기사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이어야 한다.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속기록에는 속기사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오칭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전문직 속기사로 살아가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에 못지않게 역사의식이 투철한 사명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척박한 우리의 속기 현실에서 좌절하기 쉽고, 그 좌절은 자포자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날 속기록의 품질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3. 수문 능력

미국 대통령 문서록 편집장인 마이클 설리번 씨는 대통령 문서록 편집 작업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한다.

“대통령이 쓰고 말한 대로 정확하게 신는 것이다. 몇 년 후 누군가가 연설문을 찾을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두점과 문법과 문체를 바르게 챙기는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정확성이다.”*

속기록 작성·편집의 원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말이다.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은 ‘말한 것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말한 대로 기록’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기록에는 속기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정말은 정말대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실수는 실수대로, 무식한 말은 무식한 대로, 품위 없는 언어 구사는 품위 없는 대로, 논리상의 모순은 모순 그대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잘못 사용된 용어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 말한 대로 정확히 기록하면 된다. 속기사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구에도 이 대원칙을 양보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 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더욱더 가릴 수도 없고요.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② 여성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성 차별 의식에 대한 증진입니다. 성 차별 의식을 증진하고, 또 여성 권익 사업을 증진하는 일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문 ①에서 해와 태양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예문 ②에서 ‘성 차별 의식을 증진하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속기사는 이런 발언을 대할 때마다 고민한다,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리고 그런 것은 고쳐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적절한 용어로 고쳐 주거나 삭제해 버리는 이들 또한 많다. 그러나 그것은 속기사의 월권이다. 발언자가 사용한 단어, 발언자가 구사한 어투나 어법 또는 발언 내용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이나 시시비비는 금

* 미국에도 史官 있다(신동아, 1997. 11.)

II. 논고

물이다. 일단 뱉어 놓은 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발언자의 몫이다. 발언의 실수나 무식한 발언까지도 그대로 기록하여 국민과 후대들이 발언자의 진면목을 그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다만 음성언어의 의미가 과연 문자언어로 제대로 살아나 있느냐를 속기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살아나지 않았으면 살아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수문(修文)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문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구두점*을 바르게 챙겨 주고, 문법을 바르게 챙겨 주고, 문체를 바르게 챙겨 주는 것이다. 음성언어를 ‘일언일구 정확하게’ 문자화해 놓고 보면, 얼른 의미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다. 때로는 의미가 달라지거나 정반대의 뜻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축어적으로 정확하게 옮겨 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한낱 기능적 받아쓰기일 뿐이요, 그러한 기능적 받아쓰기는 속기록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정확성을 훼손하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한데 문제는, 이러한 수문 작업 역시 속기를 배웠다고 저절로 터득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청취 능력과 마찬가지로 속기술이 1급이라 하여 수문 능력도 따라서 1급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다. 청취 능력에는 풍부한 어휘력과 이해력이 요구되듯이 수문 능력에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국어 지식’이 요구된다.

3.1. 문장 부호를 바르게 챙긴다

온점, 반점, 쌍점, 쌍반점, 물음표, 느낌표 따위를 일컬어 문장 부호라 한다. 그러한 문장 부호는 왜 필요한가? 문장의 뜻을 돕거나

* 이하 한글 맞춤법에 따라 ‘구두점’이란 용어를 ‘문장 부호’로 통일한다.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음성언어의 의미나 의도 또는 감정을 제대로 살려 내는 데 있어 문장 부호의 사용은 아주 효과적일 때가 많다.

- ① 해외 자료 조사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② 해외 자료 조사비(2억 2800만 원)를 증액한 것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외 자료 조사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과 ‘해외 자료 조사비(2억 2800만 원)를 증액’은 어떻게 다른가? 전자는 기존의 예산 외에 새로 증액한 예산이 2억 2800만 원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기존의 예산과 새로 증액한 예산을 합하여 2억 2800만 원임을 뜻한다. 문장 부호의 사용에 따라 문자언어의 의미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 문장 부호의 사용 효과는 그것만이 아니다.

- ①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압력을 가중하는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 ②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압력을 가중하는, 재래식 무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반점 하나만으로 속기록이 훨씬 쉽게 읽힐 수 있게 되었다. 즉 가독성이 확 살아난 것이다. 문장 부호의 사용에 따라 가독성이 달라지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 ① 지난 6년 동안, 99년부터 2004년 동안 교육재정은 연평균 27

II. 논고

조 2000억 이상을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 ② 서해안 개발을 무시할 수 없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인천, 군산, 법성포, 목포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문장 모두 축어적 기록의 전형이다. 문장 부호의 사용에 따라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라.

- ⇒ ① 지난 6년(99년~2004년) 동안 교육재정은 연평균 27조 2000억 이상을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 ② 서해안 개발을 무시할 수 없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인천-군산-법성포-목포, 이렇게 벨트 형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장 부호의 활용에 따라서 문장이 이처럼 깔끔해지고, 내용의 이해도 쉬워질 수 있는 것이다. 시각적인 효과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예문은 성격이 또 다르다. 음성언어를 정확히 문자화해 놓긴 했는데 읽으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 ③ 이런 추가 조치 수용이 바로 미 2사단 재배치의 신중한 고려 및 추진, 한국 경제의 신인도 보증과 맞물려서 조인된 문구 조항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위 예문에는 외래어가 하나 있다. 예문을 읽으면서 그 외래어를 인지했는가? 인지했다면 그는 한미 관계의 전문가임이 분명하다. 속

기록에서 이런 이해하지 못할 문장을 보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

⇒ ③ 이런 추가 조치 수용이 바로 미 2사단 재배치의 신중한 고려 및 추진, 한국 경제의 신인도 보증과 맞물려서 조인(join)된 문구 조항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내용의 발언일지라도 발음에서 의미를 파악할 때가 많다. 속기사는 모름지기 그러한 발음의 차이를 구별할 만한 언어 감각의 소유자라야 한다. ‘조인(調印)’과 ‘조인(join)’은 발음상 분명히 차이가 있다. 청취 능력이 갖추어진 속기사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동시에 속기록에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기해 주었을 것이다. 속기사의 언어 감각, 문장 부호의 활용 여부에 따라 속기록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문이라 하겠다.

3.2. 문법을 바르게 챙긴다

문법은 본래 남의 말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말과 글을 좀 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속기인들은 남의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새겨듣고, 문자언어화하기 위하여 문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 각 단어의 품사나 문장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수문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① 우리가 너무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는 인색했거나 또는 법조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I. 논고

너무 훌륭한 법조인? 참으로 생똥맞은 문장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문장 부호를 챙겨 주도록 해 보자.

⇒ ① 우리가 너무,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는, 인색했거나
-(후략)-

문장 부호를 챙겨 주는 것만으로도 음성언어의 의미는 한결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문법을 챙겨 주면 내용 파악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그것은 어휘 상호간의 호응 관계를 따져 어순을 재배열하는 것이다. ‘너무’라는 부사가 수식하는 용언은 어느 것인가? 그 용언 앞으로 자리를 옮겨 보자.

⇒ ① 우리가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하는 데는 너무 인색했거나 -
(후략)-

사실 이런 정도의 문장은 굳이 문장 부호나 문법을 챙겨 주지 않아도, 가독성이 문제일 뿐 문맥상 충분히 그 뜻을 읽어 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음성언어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말한 대로 옮겨 놓고 보면 부사어와 그에 호응하는 용언을 판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② 법제실하고 입법 지원 조직을 분명히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인력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문에서 부사 ‘분명히’는 누가 봐도 ‘통합하면’이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성언어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와 ‘통합하면’이란 말을 뒤바꾸어 발언한 것이다. ‘분명히’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를 수식하는 부사인데, 말한 그대로 옮겨 놓고 보니 마치 ‘통합하면’을 수식하는 것처럼 돼 버린 것이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질서는 이렇게 다르다. 이때 속기록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를 명료하게 밝혀 놓을 필요가 있다.

⇒ ② 법제실하고 입법 지원 조직을 통합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후략)-

그런데 음성언어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문장 부호와 문법을 같이 챙겨 주어야 한다.

③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사용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에 의해서 개별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저해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사용자의 불법 파업”

손배 가압류가 사용자의 불법 파업인가? 그리고 사용자도 불법 파업을 하는가? 속기록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러한 생뚱맞은 문장은 음성언어를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옮겨 놓는 데서 초래되는 오류이다. 먼저 문장 부호부터 챙겨 보자.

II. 논고

⇒ -(전략)-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사용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후략)-

이렇게 문장 부호를 챙기고 보니 ‘권한 행사’라는 어휘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연이어 겹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문장 부호를 챙길 것은 어느 것이고, 문법을 챙길 것은 어느 것인가. 속기록의 작성 시에 속기사는 이에 대해 판단을 가해야 한다.

⇒ ③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후략)-

실수는 실수대로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발언 순간 이를 인지하고 새로이 고쳐서 말을 할 때도 있다. 그것은 글을 쓰다가 잘못되었으면 새로이 고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때는 먼저 한 말은 걸러 내고, 새로이 고쳐 말한 뒷부분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고쳐 말했을 때 실수한 것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얼른 이해가 안 되거나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④ 이상으로 의사를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외환위기에서 회복될, 회복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바로 오늘 IMF 스탭 리포트에서 발표했습니다.

예문에서 실수한 부분을 걸러 내면 문장은 각기 다음과 같이 명료해진다.

- ⇒ ④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 ⇒ ⑤정부의 시장 개입이 외환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바로 오늘 IMF 스탭 리포트에서 발표했습니다.

3.3. 문체를 바르게 챙긴다

음성언어에는 발언자 특유의 어투나 어법이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투는 발언 중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된다. 어투는 발언자의 순간적 감정이나 회의장의 분위기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반면에 어법은 발언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어투나 어법이 문자언어에서는 문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체를 챙기려면 발언자의 어투와 어법을 꼭 살려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어투나 어법을 말하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보면 문장이 부자연스럽거나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속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어투나 어법을 말한 대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호에 따라 바꾸어 기록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속기록의 작성은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장으로서의 불완전하거나 비문법적이더라도 발언 내용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발언자의 어투와 어법을 살려서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현행 국회 속기록의 작성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속기록의 문장을 무조건 깔끔하게 다듬어 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래 속기록 원문과 이를 다시 확인하여 바로잡은 예

II. 논고

문들을 비교해 보라. 과연 같은 의미의 말들이라 할 것인지.

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국법상의 행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신다든지 할 때 말씀하신 것 자체가 국법상의 행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② 이른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 가지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민 게 맞지 않습니까?

⇒ ② 이른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이런 것들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 가지고 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민 게 맞지 않습니까?

예문 ①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와 ‘기자회견을 하신다든지 할 때’의 의미가 같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데도 ‘하신다든지’를 빼 버렸다. 발언 내용에 상관없이 문장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예문 ② 또한 마찬가지다. 발언한 대로 살려 놓은 문장에서 ‘이런 것들’은 군더더기 말이 아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만이 아니라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 갖가지 합의를 체결해 놓고 있다. 그 모든 합의를 일일이 거명하는 대신 ‘이런 것들’로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문장으로서는 산뜻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발언 내용은 완전히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체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줄여 쓰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의 단문을 복문으로 만들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① 성실성이 검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이 사람은 걸증을 안 하고 성실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 ① 성실성이 검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이 사람은 걸증을 안 하겠다, 안 해도 이 사람은 성실한 것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② 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편식, 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피가 있는 것으로 공공성을 보여 줘야 될 국책은행이 시중 상업은행과 유사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하고 뭐가 다른니까?

⇒ ② 우량등급 회사채에 대한 편식, 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공성을 보여 줘야 될 국책은행이 시중 상업은행과 유사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하고 뭐가 다른니까?

줄여 쓴 문장과 말한 대로 기록한 문장이 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어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말맛에 따라 듣는 사람은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줄여 쓰는 방식이 때로는 어감상의 차이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GM대우 차가 실질적으로 시보레 브랜드로 나가는데 미국 내 판매에서는 한국 차 판매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 ③ GM대우 차가 실질적으로 시보레 브랜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내 판매에서는 한국 차 판매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예문 ③ ‘나가는데’에서 ‘는데’는 설명형 연결어미이지만 문장에서

II. 논고

의 느낌은 마치 방임형 같다. 그리고 앞말과 뒷말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말한 대로 살려 놓은 두 개의 단문을 보라. 앞말과 뒷말의 인과관계가 아주 분명하다.

세 번째는 구어체의 특성인 준말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냐, 아니면 본말로 바꾸어 문어체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는 속기인들 사이에 좀체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속기록을 들여다보노라면 문체가 수시로 바뀔 때가 많다. 속기사가 바뀌면 어투도 따라서 바뀌어 기록되기 때문이다.

- ① 17대 국회 개원부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람직한 국회,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상생하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 ② 세 차례에 걸쳐서 명함 250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배부했다는 겁니다.
- ③ 그래, 명함 250장이 큰 겁니까?
- ④ 불우소년소녀가장 모임에 참석해 가지고 직원 중의 1명이 10만원 줬다는 것입니다.
- 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⑥ ‘주요 지지 기반과 지역 활동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써 내게 되어 있어요.
- ⑦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 ⑧ 네 차례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이거예요.
- ⑨ 그런데 피의자 진술도 안 받아 보고 이 체포동의안이 여기 올라온 겁니다.
- ⑩ 체포·구속동의안, 이것을 가결해 버린다면 저는 사실 제 양심

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 ① 면책특권은 그 책임이 영원히 면해지는 것이지만 불체포특권은 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예문들은 제247회 국회 제4차 본회의록에서 박계동 의원의 어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어투의 변화로 볼 때 박계동 의원의 질의는 최소한 네 사람의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인의 발언인데도 속기사의 선호에 따라 어투가 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속기록치고 이처럼 동일인의 어투가 수시로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한글 맞춤법에서는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제33항).”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 그건 / 그것이 ↔ 그게 / 그것으로 ↔ 그걸로 / 나는 ↔ 난 / 나를 ↔ 날 / 너는 ↔ 넌 / 무엇을 ↔ 뭇을·무얼·뭘 / 무엇이 ↔ 뭇이·무에

본말이나 준말이 맞춤법에서는 모두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준말은 본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시나 소설, 수필, 신문 칼럼 등에서 사회적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다. 속기록이라고 굳이 준말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 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 ② 일종의 압력이랄까 강권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③ 천도란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전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II. 논고

④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말 그대로 기록해 놓은 발언들인데 이상할 것도, 이해를 못 할 것도 없다. ‘거’는 국어사전에도 엄연히 의존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말하는 그대로 기록하자. ‘것’이라고 하면 ‘것’으로, ‘거’라고 하면 ‘거’로!

글을 쓸 때는 몇 번이고 퇴고를 거듭하면서 보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말을 할 때는 그럴 수가 없다. 한번 뱉어 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것을 말한 대로 기록해 놓으면 얼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때로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때는 문장 부호나 문법을 챙겨 주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살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생생한 구어체가 문장으로서는 부자연스럽거나 매끄럽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거나 줄여 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속기사는 발언의 분위기나 내용이 제대로 살아 있는가만 판단하면 된다. 그 이상 손을 대고 싶더라도 참아야 한다. 속기록의 작성은 작문을 하거나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의회속기록 작성의 원리와 실제』(2008)



인터스테노와 대한속기협회

이경식 이사장



1. INTERSTENO : 국제속기타자연맹 개요

인터스테노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속기에 관계하는 전 세계 속기인의 결속, 정보 교환, 연구 보고, 친선 도모와 속기인의 권익 신장을 강구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근대 속기(modern shorthand)’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1887년 런던에서 4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록 1887년 결성 당시에는 전문적인 속기술(professional shorthand)을 사용하는 속기인이 주축이 된 조직이었지만 지난 세기 동안의 기록에 관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기술적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기록에 관련되는 모든 직종, 즉 전문 속기사, 비서 그룹, 의회 속기사 등을 포괄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현재 인터스테노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자마이카, 중국, 체코,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3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인터스테노 역사

1887년 9월 26일 런던 지질박물관의 커다란 강당에서 인터스테노 첫 모임이 열렸다. 이 회의는 현대 속기 탄생 3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John Gilson경의 제안에 의해 열렸으며 400명의 참가자들이 일주일 동안 의회와 법원에서의 속기, 속기가 교육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그 당시에는 라디오, 녹음기 등의 매체가 없었고 타자 기술 또한 걸음마 단계로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속기술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유능한 속기사들이 의회에서의 토론을 기록한 것이 신문들을 통해 보급되었고, 전보를 통해 그 기록 본문을 받는 등 속기술이 중요한 소식 전달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인터스테노 첫 회의에서의 개회사에서 이 회의가 단발성의 행사가 되지 않고 오래도록 전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희망과, 이 회의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통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3. 인터스테노의 구성

- 1)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경기대회 심사위원, 과학위원회 위원, 2명의 특별 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중앙위원회는 각 나라의 대표로 구성된다.
- 3) 총회는 중앙위원회 회원들과 투표권을 가진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 수는 참가국 회원 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며, 회원 개인들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 4) 국제경기대회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회 운영을 맡는 다른 회원들로 구성된다.
- 5) 과학위원회는 위원장과 최소한 3명의 다른 회원들로 구성된다.
- 6) 회계감사위원회는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4. 대한속기협회의 활동

대한민국 속기계의 총집결체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는 1980년부

II. 논고

터 동 연맹의 사무국 및 임원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속기계와 서신 연락 등으로 한국의 가입 문제를 교섭하여 온 결과 1982년 8월 동 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국의 가입안을 제35차 총회에서 제안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후 1983년 3월 동 연맹 조직위원회로부터 총회 참석 초청장을 받아 1983년 7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개최된 제35차 총회에 참석하여 스물다섯 번째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 1995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매 2년 내지 3년마다 열리는 총회 혹은 매년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꾸준히 참석하여 왔으며, 2009년 중국에서 열린 베이징대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속기경기대회에 7명의 경기자가 참가하였다.

그동안 인터스테노 관계자들은 한국 대표가 참석할 때마다 회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왔었다.

베이징대회에는 25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IPRS에서 처음으로 한국 속기계의 현황과 속기 현실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록 입상은 못하였으나 7명의 선수가 리얼타임 부문과 스피치 캡처링 부문에 참가하여 좋은 경험을 쌓았다.

베이징대회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우리에게 더 큰 기여와 요구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속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속기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리얼타임 부문에서 준우승(김봉철)을 수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속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편, 우리나라 기계속기의 현황과 발전상을 보여 주기 위한 CAS

기계속기를 전시함으로써 세계 속기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또한 프랑스 총회에서는 기록 업무에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용이한 기록 수단을 지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IPRS(의회속기사부) 미팅에서는 우리나라 의회와 의회 기록 담당 부서의 업무 현황을 소개, 발표함으로써 한국은 의회가 생긴 이후의 모든 기록을 갖고 있고, 이를 중시하는 기록 문화를 갖고 있음을 각국 의회 담당자에게 주지시킨 바 있다.

특히 유럽 의회와 달리 많은 속기사가 일하는 한국 의회의 특수성과 업무 집중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도모하였다.

부스에서 전시된 한국의 스마트CAS속기의 현대화된 발전상은 세계인의 눈을 놀라게 하였다.

그동안 인터스테노에 참가할 때마다 우리 측에 발표 내지 경기대회 참가를 권유하였던바 그 걸음마를 떼었으니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인터스테노의 일원으로서 기여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금년에 프라하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Fausto Ramondelli 회장과 체코의 Jaroslav 부회장 그리고 Danny 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 서울에서 2016년 중앙위원회 개최에 대한 의견 타진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통지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2013년에는 제49차 인터스테노 총회가 벨기에 겐트에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II. 논고

역대 국제교류협력사업

* 인터스테노 총회는 2 내지 3년마다 1회, 중앙위원회는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차수	장 소	일 시	참 석 자	주 요 의 제	비 고
35	루체른 (스위스)	1983.7	박권흠 회장 신세화 이사장 조영창 회원	규약개정 중앙위원선임 회장 등 선거	한국 가입
36	소피아 (불가리아)	1985.7	박권흠 회장 김주성 부장	규약개정 연구논문발표 등	
중앙 위원회	부르즈 (벨기에)	1986.6	김기영 이사 이동근 지도위원	경기대회 규칙개정 등	
37	플로렌스 (이탈리아)	1987.6	김인영 이사장 이정구 부장	100주년기념 각종대회 및 행사 등	
38	드레스덴 (동독)	1989.7	박권흠 회장 내외	회장 등 임원선출 1990년 중앙위원회의 건	
40	이스탄불 (터키)	1993.7	김은숙 부장	중앙위원회 및 총회 *강우혁 회장 중앙위원 피선	의회속기사 부 가입
41	암스테르담 (네델란드)	1995.7	불참	중앙위원회 및 총회	
중앙 위원회	리에즈 (벨기에)	1997.9	지대섭 회장 권용태 부회장 염덕훈 국제이사 조영기 회원	중앙위원회 참석 및 차기 총회지, 일시 결정	
42	로잔느 (스위스)	1998.7	김진기 고문 성천영 이사장 황인하 감사 이경식 총무이사	중앙위원회 및 총회 차기 총회지, 일시결정 IPRS차기일시 결정	
IPRS와 NCRA 100주년 기념회의	보스턴 (미국)	1999.7	김창진 연구위원장 김영중 재정부장 김미라 회원 신종식 회원	·IPRS회의 참석 ·NCRA100주년 기념회의 참석 ·일본속기협회 방문	IPRS-의회 속기사부 NCRA-미 국속기연맹
	캔버라 (호주)	2000.7	김덕진 사업부장 장미경 홍보부장	캔버라 호주연방의회 방문	

차수	장 소	일 시	참 석 자	주 요 의 제	비 고
	동경 (일본)		손속자 연구위원장 서현숙 회원 이동준 회원	브리즈번 주의회 방문 일본 중의원 방문	
43	하노버 (독일)	2001 7/28-8/3	홍순관 무임소이사 김란희 홍보이사 한기수 회원 이기옥 회원	하노버 인터스테노총회 참가 독일 연방의회 방문 이태리 의회 방문	
중앙 위원회	마드리드 (스페인)	2002 7/14-23	회기와 겹치는 관계로 불참. 신희동 이사장 이주성 회원이사 유순태 회원 윤승희 연구부간사 김정아 아주부장 김영태 달서구의회	북경시 속기사협회와 싱가폴의회 방문	
44	로마 (이태리)	2003	불참		
중앙 위원회	헬싱키 (핀란드)	2004 9/1-7	최황수 부회장 손재옥 이사 박순필 이사 문선희 홍보부장		
45	비엔나 (오스트리아)	2005 7/22-29	박정호 이사 이순영 국제이사 홍기표 회원 황은화 회원 이봉선 재정부장		이경식 이사 자비참가
중앙 위원회	안탈라 (터키)	2006 9/22-25	채강희 회원 최예숙 이사 김점동 이사 고경효 이사 고석광 이사 정재웅 회원		
46	프라하 (체코)	2007 7/19-28	홍은주 회원 이현숙 회원 오근순 사업부장 유미형 총무부장	2008년 중앙위원회 (Council meeting) 폴란드 티히에서 9월 중 개최 결정. 체코 의회 방문	

II. 논고

차수	장 소	일 시	참 석 자	주 요 의 제	비 고
IPRS MEETING	헤이그 (네덜란드)	2008 8/19-26	최성주 감사 강지유 연구위 간사 유점임 홍보부장	총회 기간 외에 별도로 마련된 IPRS 최초모임 네덜란드 의회 방문	
47	베이징 (중국)	2009 8/15-21	이경식 이사장 권영찬·황은화· 김은경·이혜정· 김현진·김나영· 조미래· 이화경 회원 (수원시의회)· 박진우 회원 (해운대구의회) 자비 참가(김점동 이사, 손숙자 이사, 카스협회팀)	·총회 및 국제경기 대회 참가(최초) ·IPRS 미팅시 주제 발표(최초) ·중국 전국인민대표 대회(NPC) 방문	1. IPRS 미팅시 이사장 주제 발표 2.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 부문 참가 3. CAS 속기전시
중앙 위원회	부다페스트 (헝가리)	2010 9/28-10/5	조영기 회원 최윤정 국제이사, 김점동 이사, 이동준 회원	중앙위 1·2·3차 세션 참가 →인터넷 경기대회 규칙 및 2011년 파리 총회에 대한 세부사항 점검	
48	파리 (프랑스)	2011 7/9-16	이경식 이사장 (자비참가) 김덕진 총무이사, 정란 자격심사· 연구위원장, 간찬기·조미경· 김말말 회원 자비참가 (김점동 이사, 카스협회팀)	·총회 및 국제경기 대회 참가 ·IPRS 미팅시 주제 발표	·리얼타임 부문에서 2위,4위, 10위 획득 ·CAS 속기전시
중앙 위원회	프라하 (체코)	2012 9/29-10/2	이승철 회원, 정순화 홍보이사, 정명순 회원, 경상남도의회 직원 1인	·Council meeting (2016년 중앙위원회 한국개최 제안) ·IPRS 미팅시 주제발표	김학순 회원 (자비참가)

중국의 속기...탕야웨이(唐亚伟)

북경일보 장홍안(張洪安)

中国速录

제47회 인터스테노 총회 및 속기·타자 경기대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그 규모의 성대함은 물론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냈다. 대회를 준비하고 운용한 많은 인사들이 있으나 그 밑바탕에는 속기에 일생을 바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탕야웨이(唐亚伟) 선생이다.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속기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며 거둔 달콤한 열매가 없었다면 이 잔치는 없었을 것이다.

탕야웨이 선생은 2012년 12월 18일 서거하였다. 이 글은 국경을 넘어 속기에 인생 전부를 바친 선생을 위해 한국 속기계가 그를 기

II. 논고

리는 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속기계에 이 글을 전제하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한국의 속기인들에게도 매우 뜻 깊고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내용은 2008년 3월 중국중문신식학회속기전업위원회가 주관하고 북경시속기협회 속우편집위원회(주임 탕커량)가 편찬한 속우(速友) 창간호에 실린 내용이며 사진은 여러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글쓴이는 북경일보 장홍안(張洪安)이다.



편집자의 말

“탕야웨이(唐亚伟), 일생추구한 사업, 속기(速记), 새로 생겨난 업종, 속록(速錄, 速录), 중국어속기 혁명, 뒤떨어짐에서 세계로 앞장서 나간다!”

당신이 이 관련자들을 하나로 연결할 때, 분명 집단, 사회 더 나아가 민족출현의 영향과 존재의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개인의 생명존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좇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생존환경을 개선하려 할 때, 한 노인은 오히려 자기사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 지혜와 생각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전기를 창작해내었다!

2007년 2월 27일, 북경인민대회당(北京人民大会堂), 중공중앙(中共中央), 국무원(國務院)이 성대히 소집한 국가과학기술상 수여대회에서, 정신이 정정한 노교수가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과 국가의 영도자가 상을 받은 수여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 후진타오(胡锦涛) 총서기는 그의 손을 잡고 공손히 물었다 : “연세가 어떻게 되셨지요?” 그가 바로 야웨이속기(亚伟速记)의 창시자, 중국 속기 권위자의 영예를 가지고 있는, 92세 고령의 노과학자 탕야웨이(唐亚伟) 선생이다.

중국속기사업을 위해 70여 년을 분투하신 후, 야웨이중문기계속기 기술과 보급으로 영광스러운 국가기술발명 2등상을 받게 되었다. 사실 이번 특수영예를 받기 전 야웨이속록기술(亚伟速录技术)은 또한 북경 시급최고과학기술상과 전문기술영역의 최고영예를 획득했다. 2005년 5월, 북경과학기술대회에서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공북경시위원회 서기 리우치(刘淇)는 탕야웨이 교수에게 북경시과학기술 1등상 영예증서를 수여하였다. 2006년 11월, 제1회 “치엔웨이장(钱伟长 : 중국 근대역학, 응용수학의 창시자) 중문정보처리과학기술수여대회”에서 탕야웨이 교수는 1등상을 획득하였다. 이외 중국속기계의 권위전문가로서 국제속기협회는 탕야웨이 교수에게 평생업적상을 수여하였다. 국제속기계에서 탕야웨이 교수는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은 유일한 분이다.

II. 논고

중문속기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다. 지난 30년대 중문속기를 발명한 분이 바로 탕야웨이이다. 이번에 받은 상은 “야웨이속록(亚伟速录)”인데 간단히 말하면 실시간으로 언어정보수집을 진행하는 핵심기술이며, 그것은 전문키보드와 전문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언어정보와 함께 기록하며, 아울러 문자로 변환하게 된다. 중문정보처리는 부족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정보화를 실현하는 기초로 된다.

중국어속기발전사의 두 번의 큰 단계는 모두 탕야웨이 선생이 뛰어넘은 것이다.



2007년 2월 중국총리 후진타오가 탕야웨이 교수를 반갑게 접견하다.

중국속기의 시작을 열어젖히다.

속기원로들은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제1회 전국문화대회(全国文代会)에서 모택동 주석이 문예종사자들을 접견할 때 카메라의 조명이 너무 눈부셔 속기사가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모 주석이 이런 상황을 보고 연설을 멈추고 기자들에게 “뒤로 한발 물러서 속기사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한번은 주은래 총리가 외빈을 접견하는데 진행자가 속기사의 자리를 문 입구에 배치하였다. 거리가 멀어 속기사는 연설내용이 불확실하게 들렸고, 총리가 이것을 살피 파악한 후 즉시 속기사를 가까이 불러 그의 뒤에 앉게 하였다. 그 이후 속기사와 통역사는 주최자와 손님 뒤에 앉게 되었으며, 외사활동의 고정형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주은래 총리는 여러 번 지시하였다. “언론종사자나 통역사들은 속기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일찍이 UN부 비서장을 지냈던 지자오쥬(冀朝铸)는 50년대 주 총리의 지시를 받들어 열심히 속기를 배워 당시 중국속기 속도가 가장 빠른 속기사였다.

그 당시 헌책방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던 작은 책 “전음쾌자”(传音快字)가 야웨이속기의 탄생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

탕야웨이(唐亚伟) 본명 “탕공한”(唐恭汉), 1915년 출생, 호남(湖南)형산사람(衡山人). 노동자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어릴 적 가정형편이 불우했지만 그의 천재적 자질과 근면함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글씨를 잘 써서 일찍이 당시의 강서성(江西省) “안시르후이”(安息日会) 회장 서기로 추천을 받게 되었다.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그는 문자를 쓰는 방법에 대해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그는 남창(南昌) 헌책방 거리에서 중국에서 가장 시기가

II. 논고

빠른 속기에 관한 서적 “전음쾌자(传音快字, 蔡锡勇 著)”를 접하게 되었다. 바로 남의 시선을 끌지 못했던 이 책이 그에게 큰 계몽의 전환을 가져다준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의 일로 선택하였고, 일생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뜻을 세워 바꾸지 않는 목표를—중국속기학을 위해 헌신하다—세우기로 결정한다.

탕야웨이(湯亞偉)가 이 책을 연구할 때 채석용(蔡锡勇)의 중국속기부호는 영국속기체계를 기초로 하였고, 붓의 거친 필체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국은 이미 펜이 출현하게 되었고, 글을 쓰는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탕야웨이는 또 영문의 “피터만속기”(Pitman, 皮特曼速记)와 “꺼루이꺼속기”(Gregg, 葛瑞格速记)를 찾아내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인의 속기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길 희망하였다.

매일 학교장이 구술한 많은 문서와 편지를 기록하려고 탕야웨이는 간단한 부호를 대표문자로 사용하여 시도해 보았는데 글을 쓰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의 구조, 독음, 어법학, 어휘학원리를 결합하고, 동시에 국제속기학원리를 흡수하여 마침내 1934년 “유선체 중문속기음부총표”(流线体中文速记音符总表)와 “자부약법표”(字符略法表)를 만들어낸다.

이 발명은 당시 획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중문속기의 신기원을 열었다. 옛일을 언급하다보면 탕 선생은 흥미진진해한다. 그는 “실천은 참지식에서 나온다. 우리 조상들은 문자가 있기 전에 끈을 엮어 매어 기록하여 이해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당연히 가장 오래된 문자 부호이다. 후에는 또한 ”창지에“(仓颉, 중국 황제시기 문자를 만들었던 사관)가 문자를 만들었다. 사실 그렇게 많은 문자를 창지에(仓颉)한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멋대로 상상해내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고대 사람

들이 실천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다. 창지에는 이것들을 가공 처리하는 일을 하였다. 속기의 출현, 역시 실천노동에 기원한다.”

그는 과학적 창조 범위를 실천노동에 대한 가공과 정리에 두고, 그 가운데의 고생, 고락은 곡절의 경험에 용해되어 있다는 것을 견지한다. 1938년, 그는 정식으로 “규격화야웨이중문속기학”(规格化亚伟中文速记学)을 출판한다.

각계 대중의 요구에 의거하여 탕야웨이는 학교를 설립하고, 속기를 보급하는 일을 시작한다. 1939년, “야웨이중문속록학사”(亚伟中文速录学社)가 정식 설립되고, 1942년 봄, “야웨이속기학교”(亚伟速记学校)로 이름을 개명하게 된다. 평위상 장군(冯玉祥 将军)이 학교이사회 이사장을 맡게 되고, 타오싱즈(陶行知), 리공푸(李公朴), 구즈중(顾执中) 등이 이사를 맡게 된다. 1945년, 탕야웨이 선생은 중경(重庆) 야웨이속기학교 건립과 속기교육기금 모금대회에서 평위상 장군(冯玉祥 将军, 중화민국시기 군사가)이 “속기의 기능과 발전 절차”라는 제목으로 군사적 승리를 불러오는 “신속, 정확, 비밀”의 세 가지 특징을 결합하고, 속기의 중요기능과 효과를 분석하고 강조하는 연설을 발표한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나는 모든 초등학생이 3학년부터 시작하여 당연히 속기를 배워야 하며, 이것이 학생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밝혀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자쾌속기록법”(汉字快速记录法)을 만든다

신 중국 성립 후, 특별히 지난 50년대는 중국속기의 발전이 고조된 시기이다. 당시 중국은 소련을 배우고, 특히 소련은 속기학을 중시했다. 소련의 모든 부서에는 또한 속기사 직책이 있으며, 그래서

II. 논고

중국의 모든 부서에도 속기사 직책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에는 14명의 속기사가 있고, 중앙당학교(中央党校)에도 10여 명의 속기사가 있다. 각 부서 위원회에도 속기사가 있다. 야웨이속기학교(亚伟速记学校)는 북경에 학교총부가 있으며 상해, 남경, 항주, 란주, 중경, 신강, 홍콩에도 분교가 있다. 북경야웨이속기학교에는 한 개의 전문수료반이 있는데, 각 기관에서 위탁인원을 받아 교육을 시켰고, 1995년까지 반년에 1회씩 모두 13회를 실시하여, 줄곧 국가를 위해 많은 전문속기사들을 배양해냈다. 외교부는 특히 속기를 중시했는데 부서 내에 속기반을 만들어 탕야웨이의 제자가 직접 교육을 시켰다.

1955년, 천이(陈毅) 부총리의 비준을 받아 중국에 정부가 개설한 첫 번째 속기학교가 설립된다. 북경속기학교(北京速记学校)는 여전히 야웨이속기법 교재를 사용한다. 비록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속기방식이 다양화되더라도 야웨이속기법은 가장 광범위한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단지 구소련, 독일이 국가통일적 속기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미국, 일본은 모두 여러 속기방식이 병행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널리 보급한 방식은 “꺼루이꺼”(葛瑞格)이다. 탕야웨이 교수는 그가 꺼루이꺼방식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으며, 체계, 시스템상에서 이 방식과 서로 상통하는 곳이 있다고 인정한다.

지난 60년대, 중소 관계의 파열로 속기업무도 소원해지게 되었다. 각 부서 속기사의 직책은 비서직책으로 바뀌었고, 혹은 비서와 속기사를 겸하게 되었는데 속기업무는 이미 중시받지 못하게 된다. 특별한 문화대혁명 중 북경속기학교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되었고, 속기부호는 “암호, 이단(异端)”으로 취급받아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천이(陈毅) 부총리는 여전히 외교부에 속기반을 개설하는 것을 지지하였

으며, 세계 도처의 대사관에서 속기사들이 중국 외교사업을 위해 공로를 세우고 있었다.

천이(陈毅)는 “속기와 타자는 외교상의 투쟁무기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회담에서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쉽게 손해를 보았고, 그래서 외교부는 줄곧 속기업무를 지지했다. 키신저가 비밀 방문했을 때, 두 명의 속기사를 데리고 왔다. 주은래 총리도 두 명의 속기사를 동반했는데 한 사람은 리엔정바오(廉正保), 다른 한 사람은 후핑시엔(胡凤仙)이다.

현 외교부 문서보관 관장은 리엔정바오(廉正保)동지를 회상하면서, 1973년 주 총리는 키신저가 데리고 온 속기사가 사용하는 기계를 보게 되고, 손을 사용하며 건반을 치듯 기록업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흥미를 표시했다. 회담 휴식 때 주 총리는 내 쪽으로 와서 키신저를 바라보며 나에게 “우리도 증문속기기계를 만들 수 있지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때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 총리는 “그러면 좋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생각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세요, 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실제로 이후에 또한 이것을 증명해내게 된다. 8, 90년대, 나는 대부분 시간 외교, 영사관 업무를 하고 있었다. 1998년 나는 귀국 후 탕야웨이 교수가 많은 전문가들을 이끌고 “야웨이중문속록기”(亚伟中文速录机)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건반을 치기만 하면 컴퓨터 모니터상에 직접 중국어가 표시될 수 있으며 속도와 효과도 그 당시 영문속록기(英文速录机)보다 또한 좋았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탕 선생은 만들어냈으며 주 총리의 생전의 염원을 실현하였다! 당시, 그들 모두가 사용한 것은 야웨이속기이다.

II. 논고

옛날에 주은래(周恩来) 총리, 천이(陈毅) 부총리는 야웨이속기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각별했었다고 탕 선생은 말한다. 비록 속기교육이 멈추었을지라도 속기사업은 결코 방치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바로 “5.7간부학교”(五七千校, 문화대혁명 중 모택동의 지시로 지식분자들이 농촌으로 가 노동을 하던 장소)에서의 나날 탕야웨이 교수의 머릿속에는 “속기”(速记)가 전부였다. 그는 수필속기는 너무 느려, 타자를 사용하던 방법으로 수필속기를 대체하고, 정확도를 높여 업무강도를 낮추게 하고 싶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 생각하고 연구하여 마침내 설계초안을 구상해내었다. 이와 동시에 탕야웨이는 “한자쾌속기록법”(汉字快速记录法)를 만들어냈고, 그의 멈추지 않는 탐구는 그치지 않았다.



장쩌민(江泽民)주석이 속록사 왕치우잉(王秋颖)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다

피아노연주에서 얻은 발상으로 중문속록기(中文速錄機)의 탄생을 재촉하다.

개혁개방시대는 중국속기사업의 제2봄날이다. 사람들의 관념에 변화가 발생하고, 속기에 대해 더욱 중시하게 된다. 탕야웨이 교수 역시 새로운 청춘의 열정을 발산하여 속기에 대한 연구를 다그쳐 부단히 새로움을 창안해내고 있다. 그는 전에 “타자속기법”(打字速記法), “ABC 기록법(ABC记录法)”, “속기기계연구”(速記机研究) 등 설계방안을 완성했으며 속기기계화, 전자화를 위한 길을 개척하였다. 1981년 그는 북경시속기협회 이사장 겸 학술위원회 주임으로 추천 선임되었다. 그는 한편으로 속기방면의 지도에 종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술기술연구 개발에 종사하였다. 또한 일본, 캐나다, 미국 등 나라들의 속기학자와 학술교류를 진행하여 국제속기학 발전의 새로운 변화를 부단히 이해, 연구하여 중국속기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후진타오 총리가 속록사 왕치우잉(王秋颖)과 다정히 악수하다

II. 논고

90년대 들어와서 컴퓨터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컴퓨터를 이해한 이후 탕야웨이(唐亚伟)는 줄곧 어떻게 속기와 컴퓨터를 결합하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번잡한 일을 컴퓨터에 맡길 수 있는지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속기 이후에 번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러면 속기를 보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한 노인으로 말하자면 이런 어려움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탕야웨이 선생이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속기를 병음(拼音)에 따라 완전히 쳐낼 수 있는가이다. 당시 그는 표준자판을 이용하여 한 건반에 한 타, 즉 한 손으로 성모(声母)를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운모(韵母)를 치는 창조적 입력방법을 설계하였다.

한자의 기본은 모두 성운(声韵)결합이기 때문에 두 손은 소리(声)와 운(韵)을 분담하기에 좋다. 이런 발상에 의하면, 매분 200자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두 손이 너무 바쁘게 되었다. 탕 선생은 중국어 속에 쌍음단어(双音词)가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쌍음단어의 특색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빠른 컴퓨터속기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피아노연주에서 피아노를 치는 한 손으로 주선율(主旋律)을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음(和音)을 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차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계몽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컴퓨터속기는 완전히 두 손으로 동시에 건반을 쳐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두 손으로 동시에 자판을 두들기기 때문에 기록하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확연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불러일으킨 다음 문제는 반드시 현재의 컴퓨터자판을 버려야 하며, 완전히 새로운 일종의 신형 속록자판을 연구 제작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오한 속기의 기초, 풍부한 부호화 능력과 견고한 병음(拼音)작업에 근거하여, 탕 선생은 새롭게 자판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26개 자모(字母)를 상대로 소리부호는 몇 개의 건반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음운부호는 몇 개의 건반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건반을 누르는 상호간의 관계 등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가 매일 연구하고 다듬는 중점으로 되었다. 1993년, 그는 하나의 완전한 컴퓨터속기 부호방식과 속록자판 설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속기는 당시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듣기에 낯설었다. 또한 동업자와 협력 개발하던 일이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후에는 결국 뜻이 맞는 합작회사를 찾게 된다.

1994년에 이르기까지 몇백 번의 밤낮을 거쳐, 속록기(速錄機)는 마침내 북경전람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시대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30분의 연설 후 업내인사가 문을 나설 때 모든 사람들이 따끈 따끈한 속보성 신문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속록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순식간에 원고를 완성한 것이며, 그리고 다시 고속인쇄기로 한 장 한 장의 신문을 인쇄해낸 것이다. 그것은 당시 전람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1995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1회 국제속기연합대회(国际速记联合大会)의 전람관에서 각국대표는 중국이 이미 자신만의 중문컴퓨터속기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라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문자는 “네모난글자”(方块字)라서 컴퓨터속기를 이용하는 것은 필경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난점을 극복해서 중문컴퓨터 속록(速錄)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탕야웨이(唐亚伟), 국제속기계에 널리 알려진 이름, 또한 그들의 시야로 들어온-야웨이중문속록기(亚伟中文速錄機)

건강비결을 털어놓다 : 속기는 청춘을 붙들어 매게 했다.

나는 탕선생과 일문일답을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쪽에 앉아있는 미스 왕이 야웨이중문속록기를 사용해 짐작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노트북컴퓨터 모니터에는 나는 이야기를 중국어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내었다. 나는 이런 신기한 기록방식에 놀랐으며, 탕 선생은 오히려 편안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속록기(速錄機)는 많은 건반을 같이 두드리고, 다음에는 몇 개 건반을 누르고, 두 손으로 모아치는데 한 번 두드리 두 개의 한자(漢字)가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개의 손가락을 함께 두드리는 방법은 인체 생리적으로 완전히 가능한 것이다. 피아노를 치는 것이 바로 일레이다. 우리들이 병음방식(拼音方式), 좌우가 대칭하는 자판을 사용하여, 한 손으로 하나의 성운(聲韻)이 결합된 한자(漢字)를 쳐낼 수 있고, 두 손으로 함께 누른 다음 두 개의 한자(漢字)를 쳐낸 것이 바로 하나의 쌍음단어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며 완전히 언어속도를 따라갈 수 있고, 심지어 보면서 입력할 때는 매 분 200자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한 사람 연설이 매분 대략 180자 정도인데 속록기(速錄機)는 완전히 감당해낼 수 있다.”

탕 선생은 사람들의 구어(口語, 대화체)와 서면어(書面語, 문어체) 연설에는 차이가 있는데 구어는 좀 말이 많다고 알려주었다. 중국 언어학자이며 교육출판사 사장 장즈공(張志公) 선생은 그 자신이 강연한 기록을 한번 보며 “이것이 바로 속기록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녹음테이프에 의존해서 한 자, 한 구씩 구어체로 정리한다면 볼 방법이 없고 너무 산만하다. 훌륭한 속기사는 일정한 작문소양을 갖춰야 비로소 높은 수준, 높은 질량의 원고를 기록해낼 수 있다.



탕아위 선생의 장남인 탕커량(唐可亮) 북경대회 인터스테노 총재, 북경속기협회 이사장(가운데)

탕 선생의 아들 탕커량(唐可亮)은 “부호화 난관을 극복하는 나날 속에서 노인네는 규모가 작은 방에서 연구실험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중관촌(中关村, 중국의 IT 전자산업의 중심지, 전자상가와 연구소밀집지역, 북경대 근처) 컴퓨터상가의 젊은이들 틈에 끼어 분주히 상가를 돌아다니기도 하셨다고 보충 설명을 한다.”

탕 선생의 명함에는 상당히 많은 직함이 있다. 중국 인민대학언어연구소(中国人民大学语言所)교수 겸 고문, 중국노교수협회(中国老教授协会)이사회 이사, 중국어문현대화학회(中国语文现代化学会) 고문, 복단대학 북경학교위원회(复旦大学北京校委会) 고문, 북경국제서화예술교류센터(北京国际书画艺术交流中心) 고문, 중국문헌정보속기학회(中国文献信息速记学会) 회장, 북경속기협회(北京速记协会) 이사장 겸 교육센터(培训中心) 교장, 중국중문정보학회(中国中文信息学会) 상무

II. 논고

이사 겸 속기전문위원회(速记专业委员会) 주임, 북경샤오쥘사무설비유한회사(北京晓军办公设备有限公司) 명예이사장, 9·3학사북경시위원회(九三学社北京市委) 고문 등등.

나는 그의 심신건강비결을 깊이 있게 시험하고 있었는데, 그는 웃으면서 진지하게 “그것은 속기와 관계가 있다,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속기하다보니 청춘을 붙들어 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이 농담으로 그 증거를 열거했는데 노인이 70여 세가 되었을 때 늘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한 번은 자동차에 밧쳐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었다. 치료기간 그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친한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오히려 그는 분명하게 “속기”라는 글자만 말해낼 수 있었다. 병이 쾌유된 후 가족은 그에게 “당신은 육친도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속기만 아십니까?”라고 말하였다.

오늘 선생이 정말 안심하게 되는 것은 야웨이 중문속록기(亚伟中文速录机)가 이미 점차 중국인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광범위하게 각 영역에 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정식으로 전국 법원에서 야웨이중문속록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널리 보급하고, 법정심판기록 컴퓨터화를 실현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전국에 이미 3000여 법원이 이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 널리 보급하고 있다. 중국 CCTV는 여러 차례 이 설비를 사용하여 회의기록을 정리하였다. 심지어 TV연속극 부서는 7, 8명 극작가를 초청해서 대본 회의를 하고, 구성 설정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속기사를 불러 연습 진행과정을 기록하게 한다. 한 군사작가(军事作家)는 자신이 30만 자의 장편소설을 녹음하였는데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속기사들의 도움을 받은 결과 단지 5일의 시간만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탕 선생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샤오쥘회사

(晓军公司)는 속기서비스부문을 전문적으로 설립하였고, 각 부문의 회의 기록을 하여 문서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느라 대단히 바쁜 편이다.



야웨이식 중문수필속기교재



한어병음(汉语拼音)타자속기법(원판 복사본)

II. 논고

비록 탕야웨이 교수와 그의 야웨이속록기(亚伟速録機)는 이미 사회 각계의 보편적 인정과 중시를 받았지만, 속기라는 이 오래된 기술도 새로운 면모로 세인들 앞에 다시 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령노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속기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 야웨이속록기술(亚伟速録技术)의 역사적 사명과 신성한 책임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속기로 하여금 중화문명(中华文明)의 계승과 인류문명(人类文明)의 전승(传承)을 위한 더 새로운 큰 공헌을 만드시 해내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젊은 시절의 탕야웨이 선생



최근의 모습



III
특별기고

01. 사회 일반이 본 속기관 정준(민의원 의원)
02. 전시회 개최에 기(壽)함 이재학(민의원 부의장)
03. 속기사와 독서 신현경(민의원 도서관장)
04. 내가 보는 속기계 김대곤(신동아 기자)
05. 속기까지 가르치는 국어교육이 필요하다 강성위(한국외국어대 교수)
06. 천 냥 주머니와 무죄 증명 이영애(여성동아 기자)
07. 국회의원과 속기사 양선모(국회의원 비서관)
08. 한국 속기 50년사 집필기 유순태 회원(도음사 대표)

사회 일반이 본 속기관

민의원이 본 속기사

정준(민의원 의원)

나는 속기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 그 까닭은 내가 매일같이 국회에서 속기사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내가 직접 속기기술교육을 지도 담당해 왔다는 과거를 가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나는 이처럼 인연이 깊은 속기사를 평소에 존경하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속기사의 사명과 공헌이 실로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속기사들은 국회를 비롯하여 지방회의와 각 기관에서 부지런히 그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다. 내가 본 속기사는 분명히 진실한 인간이다. 그들의 공적 생활에는 털끝만치의 거짓도 없다. 남의 연설과 담론을 그대로 문자로 그려낼 뿐 거기에 조금만치의 거짓 사견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속기사의 사명이라고 하면 속기사의 생활은 숙명적으로 거짓이 있을 수 없으며, ‘당위’ 그대로의 진실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속기사의 거짓 없는 진실성에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이다.

Ⅲ. 특별기고

제헌국회 초기에는 속기사에 대하여 나는 종종 불평도 하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속기문화가 유치한 단계에 있어서 속기 기술이 부족하여 국회의원의 연설 내용과 속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까닭으로 국회의원들이 불평을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유능한 속기사가 많은 까닭에 속기록을 전적으로 신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속기사를 위해서보다도 국회 운영의 향상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현대 정치제도 중 의회제도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거니와 국회의원이 의회생활을 통하여 의정단상에서 토의한 전부를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 국회의원들이 속기록을 통하여 자기가 행한 연설문을 검토하고 또 다른 의원의 발언 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세우며, 그 밖의 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속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즉 이처럼 귀중한 속기록을 작성하는 속기사의 노고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의사당 안에서 내가 본 속기사들은 순량한 양과 같다. 속기사들은 단정한 차림과 조용한 걸음으로 속기석에 나온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대한다. 남자 속기사나 여자 속기사나 조용한 표정을 지니고 있다. 속기 중에는 입을 쓰지 않는 것이 속기사의 특징 있는 매력이라고 할까? 그러므로 속기사의 표정은 더욱 평화스럽고 부드럽고 조용하여 보인다. 회의 중에 연설 내용이 문제화되어 속기록을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속기사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다. 그 낭독하는 음성도 역시 조용한 것이다. 속기사들의 얼굴은 언제나 평화스러워 보인다. 의사당 안에 불을 뿜는 듯한 정쟁의 폭풍이 휩쓸어와도 속기사들의 표정은 더욱 침착해지며 평화스러워 보이는 것이다. 속기사들의 이러한 악의 없고 순결한 마음씨와 얼굴을 바라볼 때 나는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된다.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생활이라는 것은 돌밭을 가는 농부와 같은 생활이며 그 일 자체가 지난한 것이요, 때로는 농부가 소를 때리고 제 마음을 썩이고 흥분도 하듯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란 대단히 곤란한 일인데 이러한 전투적인 정치인이 모여 들끓고 있는 의사당 안에 평화스럽게 행동하는 속기사의 생태는 분명히 이채롭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한국 의정사를 속임 없이 적어 내는 속기사의 위대성에 대하여 그 공적을 높이 평가치 않을 수 없다. 수백 년 후에도 속기사가 기록한 속기록은 도서관마다 비치되어 있어 후세인이 읽을 수 있는 사료가 될 것이다. 속기사의 사생활을 알 수 없으며 공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인으로서 손색이 없다.

속기사를 가리켜서 ‘거짓말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고 싶다. ‘거짓말을 모르는 인간’처럼 인간으로서 품위가 높은 인간은 없다. 정치인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인간이라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과 속기사, 나와 속기사, 이는 분명히 좋은 대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거짓말을 모르고 평화스럽게 행동하는 진실한 속기사가 많이 생겨야 한다. 하느님의 음성을 속기하는 진실한 종교가, 국민의 정당한 여론을 속기하는 언론인, 정의의 국리민복을 위하여 충실한 정치인, 정직한 경제인, 이 밖에 모든 부문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옳고 바른 주의 주장을 속기하여 이를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진실하고 거짓 모르는 속기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거짓 없는 진실한 속기사로부터 받는 인간 교훈은 나의 정치생활에 많은 플러스를 하여 주는 것이다.



전시회 개최에 기(壽)함

이재학(민의원 부의장)

사람의 총명이 둔필만 하지 못하다는 옛말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의정생활을 해 오며 기록에 여념 없는 속기사를 볼 때마다 그 말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기록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이 기록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은 곧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 미루어본다 하더라도 기록문화의 일익을 지니고 있는 속기문화야말로 중차대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전국의 우수 속기인들의 결합체인 대한속기협회 주관하에 속기전시회가 개최됨에 제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축의를 드리게 됨을 적어 기꺼이 생각하는 바이다.

한국의 속기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으나 10여 년 동안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속기문화 사상 공헌한 바가 지대하거나와 오랜 의회생활을 통하여 나는 누구보다도 속기사(速記史)와 인연이 깊다. 매일과 같이 국회에서 속기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속기록을 중

시하기 때문이다.

의원의 발언을 일언일구 누락 없이 기록하는 속기사들이야말로 추호도 거짓이 없는 진실 그대로이기에 그의 생활이 그럴 것으로 확신하여 나는 속기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해하려 한다.

각양각색의 사람의 말을 한마디도 빠치지 않고 기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라 믿으나 이 기회에 회원 각위에게 이 전시회를 통하여 앞날의 우리나라 속기문화 발전에 진일보하여 부동의 궤도상에 올려서 앞으로 속기인의 권익을 옹호하여 회원 각위의 향상이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더 한층 기록문화에 공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하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 『속기문화』 제5호(1960)



속기사와 독서

신현경(민의원 도서관장)

1. 국회에 있어서의 속기사의 위치

국회는 민주정치를 의도한 3권 분립의 원칙 밑에 꾸며진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반영시키기 위한 역할을 그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당정치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회는 그 배후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압력단체 등에 의하여(미), 또한 일상적으로는 정당에 의하여(서구) 좌우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 위원회에 있어서의 활동,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활동은 법률 예산 기타 중요 문제에 관하여 국내적 문제 또는 국제적 문제 등 그야말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민 전체의 공통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정권의 유지 획득을 위하여, 또는 차기 총선거에 있어서의 개인적 당선을 위하여 치열한 논의가 전개된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 걸친 의원들의 발언을 누락이나 착오 없이 이해하고 기록하는 국회에 있어서의 속기사의 위치는 익일 아침까지

인쇄되어 나오는 국회 속기록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차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속기록 출간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오로지 속기사의 다방면의 교양과 밀접히 관계된다. 그러므로 속기사는 다방면의 지식과 교양을 쌓아 의원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받아 쓸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즉 속기사는 일개 지방의 방언으로부터 외국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박식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따라서 받아 쓸 수도 없을 것이다.

속기사는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박식과 교양이 요구됨은 여기에서 더 말할 나위도 없겠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 활동에는 한도가 있으며, 그 발전 과정 역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 가면서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차츰 성장하는 까닭에 속기사가 국회 내에 있어서 임무상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이에 알맞은 적격자를 충원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속기사의 부단한 독서와 자기 교양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 오고 또한 자기 교양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쌓아 올려야 할 속기사로서 필자는 그 자기 교양을 위한 독서에 관하여 잠시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다.

2. 속기사와 독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박식과 교양이 요구되는 속기사, 특히 국회 속기사로서 유능한 여러 분이 있다는 말은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인간의 완전무결은 바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속기사로서는 아무리 유능한 속기사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 전부를 하나의 교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의

Ⅲ. 특별기고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기 교양에 의한 자기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자기 교육은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며 판단도 하는 일이 많으나, 현대 문명은 타인이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활자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고 있으며, 이것을 읽는 것을 독서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학자는 이 독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1)연구하기 위한 독서, (2)수양하기 위한 독서, (3)취미 및 오락으로서의 독서가 그것인바, 속기사의 경우에는 전 (2)자가 특히 요망된다.

첫째로 연구하기 위한 독서는 속기사의 처지에서 전공하여야 할 전문적인 분야, 다시 말하면 자기 주제의 연구이다. 속기학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불만한 부분은 독서를 통한 자기 교육으로서 보충된다. 이 독서는 무엇보다도 그 분야의 진리 탐구가 주목적이며, 그 진리를 탐구하고 머리에 축적하여 사계의 지식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조화되고 그 능력은 수요에 적응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수양하기 위한 독서인바, 먼저 인간으로서의 수양, 국민으로서의 수양, 그리고 특히 속기사로서의 수양 등을 들 수 있지만 전 (3)자는 속기사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속기사들로서의 수양을 위한 독서에 국한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국회의 속기사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정치 법률 경제 등 사회과학 부문을 비롯하여 종교 철학 예술 역사 과학 및 기타 각 분야에 걸친 학술용어도 사계의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문의 상식적 용어만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기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각 부문에 관한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도 국회도서관에는 활용가치가 많은 상당한 수량의 국내외 최신간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 교양을 위한 독서는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취미 및 오락으로서의 독서에 대해서 부언하고자 한다. 실은 이것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읽어 보는 독서라면 모르지만 자기 전공 분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계통적으로 집중적으로 경주한다는 것은 매우 유쾌함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문학자가 미급(未及)한 부분을 개척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우리들은 문학서에서 정치도 경제도 배울 수 있고 예술에서 고대 풍속을 찾아볼 수도 있으며, 역사에서 법률도 이해되는 일이 있으니 또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속기사는 다들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과 같이 독서를 통하여 자기 교양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정치가, 학자, 신문기자, 기타 국내 국외를 통하여 많은 역할을 할 속기록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함과 아울러 보다 훌륭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꾸준한 독서를 권하여 마지않는다.

— 『속기문화』 제5호(1960)



내가 보는 속기계

김대곤(신동아 기자)

업무상 속기사와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월간 『신동아』는 좌담회 대담 토론 등을 거의 매달 1편 이상씩 게재하는데 그때마다 속기사들의 신세를 지기 때문이다. 다른 매체의 경우 『신동아』처럼 속기계와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문의 경우 게재되는 기사의 양이 작은 탓인지, 그리고 다른 잡지의 경우는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신동아』에 근무하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속기계와 밀접해진 것은 확실하다.

『신동아』가 속기계와 계속 인연을 가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빠르고 정확한 데다 자세하기 때문이다. 나도 급할 때면 녹음기의 힘을 빌어 직접 좌담회를 푸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게 말하는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 재생이 힘들다는 점이다. 그런데 속기록을 받아보면 빠르고 정확할 뿐 아니라 그 자세함에 놀라게 된다.

사실 내 경우 속기사와 접하면서 놀란 게 여러 가지 있다. 첫 번째가 일단 신기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입사 후 속기하는 것을 처음 보

면서 느낀 ‘신기함’이 잊혀지지 않는다. 지령이 같은 이상한 부호를 그려(?) 가는데 저것이 나중에 글자가 되고 문장이 될지 영 미덥지가 못했다.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세요’ 하고 몇 번 부탁까지 했는데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하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속기사의 눈길이 기억된다.

두 번째가 앞서 말한 정확성이다. 지령이를 그리는(?) 손의 속도가 말하는 사람의 속도에 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끄적거리는 인상이었는데 나중에 원고를 보니 정말 입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재생돼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속기사의 해박한 지식이었다. 『신동아』의 경우만 해도 전문용어나 특수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 어느 경우 말하는 사람이 즉석에서 만드는 조어까지 있다 — 나도 처음 듣는 용어들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속기를 단순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던 내게는 작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속기가 결코 손가락 끝의 기능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작년 초에 잘 아는 속기계 친구로부터 속기협회의 잡지를 보고 네 번째 놀랐다. 속기협회가 그런 잡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 반가운 일이었음은 물론 한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나서 속기가 단순한 기능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분의 이름은 잊었지만 해방 직후 미군정 치하의 입법의원 시절부터 속기를 해온 분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그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서 광분하던 그때 한글속기를 연구했고 그 결과 해방 직후부터 속기가 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다운 민족정신, 애국이란 게 이런 면에서도 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선배들에 의해 자리가 잡힌 속기

Ⅲ. 특별기고

계의 공지가 어떠할까를 느끼게 해 주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의 속기계가 그런 공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다섯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속기가 이런 전통과 또 쉽게 성취할 수 없는 특수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고 또 속기사 스스로도 높은 공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여성지는 속기를 ‘학력에 관계없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소개한 적이 있다. 물론 그것은 일면 맞는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각종 학술세미나나 전문토론회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학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력이 바로 그런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기가 말을 속기 부호로 바꾸는 단순한 기능만이 아님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었다.

사실 속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사초의 하나인 국회속기록이 ‘손을 타는’ 경우마저 없지 않은 판에 사관의 공지만을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남의 떡만을 크게 보는 것 같은 태도는 그리 온당한 것이 아닌 성 싶다. 자기 떡도 남이 보기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속기계의 발전을 빈다.

— 속기계 제25호(1985)

속기까지 가르치는 국어교육이 필요하다

강성위(한국외국어대 교수)

나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 명색이 대학교수요, 그것도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글을 써 놓고 나서는 맞춤법에 자신이 없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글을 처음 배우는 과정인 국민학교를 일제시대에 다녔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글을 배우지 못했다. 해방 직후에 중학을 다니고 6·25의 격전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역시 우리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또 내가 학교교육을 받던 시기에는 사회만 혼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글도 매우 혼란했던 시대였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획기적인 반성이나 노력이 없는 앞으로도 이 혼란을 이겨내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완전히 통일된 어문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논란이 계

Ⅲ. 특별기고

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여간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어를 교육하는 데도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중·고등학교의 국어 수업 시간에서부터 알력과 갈등을 경험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들 한다.

사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나, 탄생 직후부터 ‘꾸어다 쓴’ 글자에 중독되어 민족혼까지 잃어버린 일부 고루한 사람들의 끈질기고 무자비한 탄압과 천대 때문에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완전히 말살되는 알곳은 운명마저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글은 500년이 넘도록 완전히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국어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자들이 ‘한글 전용’이다, ‘국한문 혼용’이다, 또는 전문적인 학술 논쟁이나 문법 논쟁 등에 전념하는 일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런 전문적인 학술 논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과 젊은이들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어문정책은 하루속히 통일시켜 우리의 어문생활을 현대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우리 말과 글의 현대화라 하면 맨 먼저 ‘기계화’ 즉 타자기나 컴퓨터 등을 연상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기계화는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크게 권장하고, 잘 교육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실업고등학교 등에서는 취미나 자기 자신만이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타자를 가르치고 배우기도 한다. 현재 글자의 기계화 덕택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계들은 원고를 쓰거나, 문서를 기안하거나, 출판이나 복사를 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어진’ 원고는 잘 처리해 낼 수 있으나 남의 말을 받아 적는 데에는 알맞지가 못하고, 받아 적은 것을 기계로 처리해 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기계는 받아 적는 것이 있어야만 쓰임새가 있는 제이차적인 장치라 할 수 있고, 받아 적는 것은 기계를 쓰임새 있게 해 주는 제일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글자를 쓰는 것이 역사 생활과 문자 생활의 첫 번째 단계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쓰기’란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글자 쓰기가 아니라 소위 ‘속기’ 즉 ‘빨리 받아 적기’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말한 어문 정책의 혼란 때문에 이 글자의 기능을 잘 발전시키거나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우리 말과 글의 현대화는 단순한 기계화가 아니라 바로 ‘빨리 받아 적기’로서의 속기다. 다시 말해 국어교육을 잘 하려면 학교에서 속기교육까지 했으면 하는 것이다.

몇몇 발전된 외국의 예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기까지 배운다. 그래서 대학생들, 특히 고급학년의 대학생들이나 학자들 또는 많은 지성인들 중에는 속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속기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속기란 남의 말을 빨리 받아 적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수나 연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강의나 세미나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서 오해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해 보면, 교수나 강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지 못하여 뜻밖의 오해가 생기거나, 연사가 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질문을 자주 들을 수 있고, 질문을 받은 연사도 질

Ⅲ. 특별기고

문자의 장황하고 조리 없는 질문을 미처 받아 적지 못하여 <동문서답>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세미나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거의 모두가 속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 해서 연사의 양해를 받아 녹음기를 가져다 댈다. 이 녹음은 어떤 면에서는 속기보다 더 정확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녹음은 다시 글로 옮겨져야 인쇄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따라서 ‘받아 적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속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번거로움만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러니 보다 더 일을 간단히 처리하자면 서양에서처럼 <속기·타자수>가 제격이다. 세미나는 물론 회사나 기타의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 타자를 치면 훌륭한 문서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신문들의 구인광고란을 보면 소위 <스테노·타이피스트>(속기·타자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들 중의 하나다. 속기를 하면 녹음도 필요 없고, 녹음을 ‘풀어 쓰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속기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나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아 시작할 엄두를 못 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속기를 배우라고 권하는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권유를 하면 대개는 우리나라에는 속기를 배워도 써먹을 곳이 없다고들 답한다. 또 속기를 해 봐야 국회에만 몇 명의 속기사가 필요하지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의 보답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말해 둔 바가 있다. 속기란 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화 학문 사회 생활 자체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취직을 위한 전망도 어두운 것이 아니다.

현재 속기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아무래도 국회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곳은 언론기관일 것이다. 방송회사의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들은 속기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의 말을 받아 적어 세상에 알리는 일이 매일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앞으로 국어교육, 즉 속기교육이 잘 되었을 때에는 신문기자들의 입사시험에는 속기가 필수과목으로 됨 직하기도 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비서를 뽑을 때에도 대개 학벌이나 용모를 중요시하나, 사회가 오늘날처럼 급진전을 하면 머지않아 속기가 비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기능으로 될 때가 곧 올 것이다. 사장이 편지나 지시 사항을 구두로 불러주면 받아 적어야 할 사람은 바로 비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이 외에도 속기가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언어 선진국들에서처럼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속기를 가르친다면 속기 교사나 교수로서의 길도 얼마든지 열릴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속기에 종사하고 있고 속기를 보급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속기의 필요성과 그 직업적인 전망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보다 더 손쉽게 속기에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기만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속기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쳐 국민 모두가 속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국어교육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글의 발전의 최후 단계는 속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 냥 주머니와 무죄 증명

이영아(여성동아 기자)

옛날에 네 사람의 장사치가 돈 천 냥을 모아 한 주머니에 넣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러 길을 떠났다. 산 중턱에 이르러 주막이 눈에 띄므로 갈증도 풀 겸해서 그곳에서 잠시 쉬는데, 돈 주머니가 아무래도 맘에 걸렸다. 안전하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주인 아주머니에게 돈 자루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잘 들으시오. 우리들 네 명이 같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이윽고 술상이 나오고 네 사람이 번갈아 잔을 돌리며 흥겹게 먹고 마시는데, 그중 한 명이 돈에 탐욕이 생기는지라 자리를 일어서면서 일행에게 이렇게 물었다.

“머리가 엉망인데 누구 빚이 없는가?”

“사내들에게 무슨 빚이... 아마 주인집 여자에게 물어보면 빚쯤 없겠나?”

자리에서 일어난 장사꾼은 곧바로 부엌에 들어가 주인 여자를 찾

았다.

“돈 주시오.”

“일행과 같이 오지 않으면 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장사꾼은 술을 마시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주인 여자가 내주지 않는다네.”

그러자 일행은 빗을 내주지 않는 줄로만 알고 다시 소리쳤다.

“내주시오.”

사나이가 주인 여자로부터 돈 자루를 받아들고 줄행랑을 쳤음은 물론이다. 이상은 우리의 전래 유머로 전해 오는 이야기 중 하나다. 한데 이 이야기는 다음 대목에 가서 또 다른 반전을 이룬다. 술상을 비우고 동료 오기만을 기다리던 남은 일행은 주인덕으로부터 그 사나이가 돈을 들고 내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판 싸우는 내용이 이렇다.

“(돈을) 내주라고 했잖아요?”

“누가 돈을 내주랬소? 빗을 주라 했지...”

“그 양반은 빗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관가까지 간 이 사건은 ‘주인 여자의 잘못이니 돈을 물어주라’는 사포의 명으로 일단락 짓게 된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주인 여자가 겨우 발걸음을 떼어 집으로 향하는데 동네 어귀에서 놀던 꼬마가 묻는다.

“아줌마, 왜 그래요?”

철도 안든 어린애의 말이라 지나치려는데 아이가 또다시 묻는다. 결국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만 주인 여자,

“그럼 좋은 수가 있어요. 옛 사먹을 돈 한 냥만 준다면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Ⅲ. 특별기고

“네 사람이 같이 오기 전에는 돈 자루를 내주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니, 네 사람이 같이 온다면 돈 주머니를 돌려주겠다고 하세요.”

주막집 여자는 그 길로 사또에게 달려가 앞서의 ‘조건’을 제시한다. 사또가 가로되,

“그대들과 이 여자 사이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같이 가서 달아난 한 사람을 잡아 데리고 오너라.”

전래 유머는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이 같은 ‘무죄 선고’ 장면을 끝으로 ‘천 냥’과 맞먹는 지혜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는 길어졌지만, 결론은 한 가지. 진실을 찾아내는 지혜의 힘, 이는 사실에 의해 더욱 그 힘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실된 힘이 무섭다는 것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일차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기록의 과정에 대해서 무한한 존엄과 가치를 느끼게 된다. 사실을 남기고 전함으로써 진실된 역사와 만나는 작업, 속기란 것에 대해서도, ‘천 냥 주머니’의 지혜가 꽃 필 수 있었던 것도 비록 구두이긴 하지만 사실이 현장에서의 사실 그대로 정확히 전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옛날 옛적의 이 이야기를 현대라는 시점에 놓고 떠올려 본다면 과연 어떠할까? 주막집 여인과 장사꾼들의 희비(喜悲)를 바꾸어 놓은 동네 꼬마의 지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물론 시대가 바뀌어도 ‘지혜의 얻음’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단서 한 가지를 붙일 수 있다면. 네 사람이 함께 와 청할 때만 돈을 내주라 하고, (빚을) 달라 해서 (돈을) 내주고..., 하는 행위를 문서로 남겨놓는 확인 작업만 따라 준다면.

속기는 바로 이런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인가, 신문에 이런 제

목의 기사가 난 것을 기억한다. 「기록의 마술사-‘귀하신 몸’ 됐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속기사가 최고의 인기 직종으로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그 무렵 해서 ‘가정 부업’ 또는 ‘달리는 여성’ 등의 부제를 달고 ‘속기사’라는 직업이 매스컴에 꽤 많이 등장했었다.

과연 속기는 왜 필요하며, 속기에 업(業)을 둔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서 살까, 잠깐 스치는 생각으로 속기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다. 나 역시 마감 때면 어김없이 ‘역지 속기인’이 되어 후다닥 원고를 넘겨야 하는 업을 지닌 까닭에.

한 여성 속기인은 직업인으로서 10여 년간 해 온 속기에 대해 한계를 느끼는 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속기 업무에 임할 때마다 엄습해 오는 긴장감과 2~3시간 연속 속기 후의 정신적·육체적 피곤, 각종 사투리, 신조어, 전문용어, 외래어와의 씨름, 치솟는 물가와는 상관없이 늘 답보 상태인 속기 용역비, 그리고 요즘같이 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에 과연 속기가 미래의 직업으로 얼마나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기의 ‘정체’를 좀더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데 그칠까. 비록 비전문가이긴 해도 단연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흐르는 강물을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정지 화면’의 기능처럼, 속기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고정 확보해 놓는 작업을 우선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속기와 녹음기와는 무엇이 다른가? 21세기의 첨단 기술은 인간의 음성을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그야말로 꿈같은 일을 현실로 증명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속기의 위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잠깐 앞서의 ‘천 냥 주머니’를 다시 펼쳐보기로 하자. 이 옛이야기

Ⅲ. 특별기고

에서 만약 화자(話者), 즉 주막집 여인이 없었다면 사실이 지혜의 힘을 빌려 위력을 나타내는 스토리 전개는 전혀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다. 만약 녹음기로 문자를 따내 이야기를 풀었다면 제2부에 속하는 반전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으리라.

속기는 바로 이 점에서 녹음과 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속기사는 옛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같은 존재, 실감(實感)의 존재인 것이다. 더불어 기(記)에 기(氣)를 넣어 우리의 삶을 빛내는 사람들의 작업, 속기가 있는 한 사실은 진실로 세상에 그 위력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 속기계 제31호(1993)

국회의원과 속기사

양선모(국회의원 비서관)

이 제목을 결정하고 나니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참새와 허수아비’라는 노래가 문득 떠오른다. 결코 하나의 연인이 될 수 없는 참새와 허수아비를 애절한 사랑 끝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연으로 승화시킨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 이런 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국회의원과 속기사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끄럽게도 속기사라고 하면 단순히 글을 빨리 적어서 기록하는 단순 기능 보유자라고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몇 분의 속기사들을 알게 되면서 속기사들의 직업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말을 잘하더라도 속기사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속기록에 잘못된 의미로 영영 남게 된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선수가 높은 의원들은 속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속기사에게 의미 전달이 정확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원들이야말로 기록의 중요성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때에

Ⅲ. 특별기고

는 국회의원과 속기사의 관계는 참새와 방앗간처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인다.

우리는 중국을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인들은 개인의 역사, 자기의 뿌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가족사,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 그리고 국가의 역사를 소중히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경우는 개인이나 가족사는 소중히 하면서도 고장사나 국가의 역사를 등한시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역사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정 활동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소중하다 못해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식구들 가운데 대다수가 속기사의 기능을 국회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아무래도 속기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속기사들과 만날 때마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에피소드의 보고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우선 어느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질의를 하는지, 그리고 국정감사 때 누가 가장 질의다운 질의를 하는지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국회의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속기사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향간에 시민단체의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속기사들의 평가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속기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한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 면에서 보면 대략 3선 의원을 능가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말하는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학은 물론 관련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속기사들의 경우, 말하기보다는 적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 과묵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내가 접한 속기사들은 유머 감각과 재치가 뛰어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말을 못한다는 편견이 없어지고 말았다. 아울러 속기사들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필요한 어학 공부나 전문지식의 습득에 꽤나 열성적임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듣다 보면 새로운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가 보다. 이런 면에서 속기사들은 항상 지적 면에서 자극을 받는 좋은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말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속기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국회 식구들이나 국민들은 속기록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우리들이 역사의 소중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낙후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의원들의 정확한 활동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도 국정감사나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부끄러운 생각마저 든다. 이것 역시 기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탈피하고 선진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기록에 의한 평가라고 본다.

말은 한번 입에서 떠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지만 글로 남기면 영원한 기록으로 남아서 평가의 자료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시민단체들이 회의록을 통해서 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려는 것은 바

Ⅲ. 특별기고

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회의록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항상 감시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국회의 선진화가 머지않아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속기사들은 국회의원과 국민, 그리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이 매개체가 없다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국민은 별개의 존재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서로 비판과 불신만을 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속기사들이야말로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연결해 주는 단단한 끈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속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새 천 년에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속기사들도 속기사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상기하면서 국민과 국회의원의 멀었던 거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많은 의정 참사들이 부지런히 방앗간에서 회의록을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 16대 국회에서 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속기계 제36호(1999)



한국 속기 50년사 집필기

유순태 회원(도움사 대표)

마지막 원고 감수는 끝났는데……

《한국속기50년사》의 마지막 원고 손질을 마치고 김진기 고문님의 감수를 거친 다음 권용태 편찬위원장님(협회 부회장)께 편집·인쇄 진행에 앞서 마지막 감수를 받기 위해 원고를 넘긴 후부터 10여 일간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순간순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사(社史)·회고록 집필을 전문으로 한다고 자기 PR을 해 왔고, 또 상당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목차 구성에서부터 탈고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이 이번처럼 까다롭고 두려움이 앞서는 집필 경험은 처음인 성싶다.

모르면 차라리 용감해진다고 했던가.

아무리 문외한적인 분야라 할지라도 일만 주어지면 서슴없이 덤벼들었던 배짱은 어디로 출장갔는지 언필칭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는 《한국속기50년사》 집필 참여는 처음부터 손대기가 두려웠던 게 솔직한 고백이다.

Ⅲ. 특별기고

짧은 집필 기간이 그러했고, 빡빡한 예산을 비롯한 작업 환경도 그러했지만 그보다는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현존해 있는 대선배들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1997년 4월 어느 날 신세화 부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박정호 계장(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 간사)과 자리를 함께하여 논의한 《한국속기50년사》의 주요 내용이 될 가목차 작성을 의뢰받으면서부터 필자는 《한국속기50년사》 편찬사업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말 속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한 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협회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국속기50년사》 편찬을 위한 편찬위원회는 1997년 5월 1일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용태 부회장의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편찬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에 권용태 부회장, 위원에 신세화·전해성·김순철·송기철·김기영·황인하·유순태, 간사에 박정호·간찬기 등으로 구성하는 한편 집필위원에 김선옥·김점동·김은숙·김치원·박정호·유순태·손재옥·장미경·한동춘·홍기표(가나다순) 등으로 구성하고 이들 집필위원 중 필자가 대표집필자로 위촉되었다.

아울러 제1차 회의에서는 미리 준비된 가목차에 대한 검토와 토론 및 각 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는 다음 이를 반영한 목차를 재구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이어 제2차 회의는 동년 6월 4일 제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권용태 편찬위원장 주재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새로이 작성된 가목차에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가한 후 그 목차에 따라 이미 내정된 집필위원에게 원고 초안을 시대별로 집필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내에 집필위원을 한 자리에 모아 보다 구체적인 집필 지침을 시달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편찬위원회는 7월 21일과 8월 4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

서 제1·2차 집필자 회의를 가졌다.

7월 21일 신세화 부회장(편찬위원) 주재로 가진 제1차 집필자 회의에서는 자료 수집 정리 및 원고 작성 지침이 정해졌고, 8월 4일 권용태 부회장 주재로 개최된 제2차 집필자 회의에서는 편찬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원고 매수와 집필 방향 및 원고 마감일 준수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한국속기50년사》 편찬 작업은 본궤도에 올랐고, 특히 8월 25일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김진기 고문과 신세화 부회장을 비롯, 전해성 자문위원, 김기영 이사, 황인하 감사 등 편찬위원 및 한동춘 이사, 박정호 이사, 손재옥 이사, 홍기표 회원, 간찬기 회원, 장미경 회원 등 12명이 협회 고문인 정원도 회원 자택(강서구 등촌동)을 방문, 생생한 회고담을 들었다.

이후 각 집필위원들은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갔고, 11월 7일과 12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제3·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제4차 회의에서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원고 접수를 마감키로 하고 그에 따른 편찬 방향 및 기타 사항이 논의됨과 동시에 원고 재구성 및 감수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예정과는 달리 원고 마감은 해를 넘겨 1998년 6월에야 완료되었다. 그리고 마감된 원고는 필자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이때부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수자에 의한 집필로 문맥의 불통일은 물론 중복된 내용에다 집필자마다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달라 본래 의도했던 편년체(연대순에 따른 다큐먼트식 서술 방법) 식의 스토리 전개에 어려움이 왔던 것이다.

1차로 가필·수정·삭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된 원고가 감수위원들에게 넘어간 때가 9월 중순.

감수위원은 권용태 부회장(편찬위원장 겸 감수위원장)과 김진기

Ⅲ. 특별기고

고문 및 신세화 부회장을 비롯하여 김성한·이강현·김기영·황인하·채강희 회원 등이었고, 10월 초순에 개최된 감수위원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또다시 원고의 재구성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 이때부터 필자는 회사 내의 모든 업무를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오로지 이 작업에만 골몰해야 했다. 밤낮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연락 가능한 등장인물들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밤낮없이 전화를 해야 했다. 때로는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어느 날 늦은밤 성천영 이사장님과 김기영 이사님, 박정호 이사님, 고태중 선배님이 사무실로 찾아와 베풀어 준 분에 넘친 격려의 음식 대접을 받고 크게 위로가 되었으며, 채강희 선배님의 희생적인 원고 보완 지원에 더욱더 힘을 얻었다. 특히 김진기 고문님의 지대하신 관심과 증언 및 격려가 없었더라면 “이 작업을 이 정도나마 완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고맙기도 했다. 혹시나 이 작업으로 인하여 필자가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밤 12시가 넘어서도 떠오르는 일화가 있으면 시외전화를 걸어 반 시간이 넘도록 말씀해 주셨고, 내용상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생기면 “누구누구에게 확인해 보라”는 식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진기 고문님께 돌리고 싶다.

이제 편찬위원장의 마지막 원고 감수로 대임은 끝났다.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진다.

혹시나 잘못 기술된 부분은 없을까. 그리고 헌신적으로 초고 집필에 임해 준 여러 집필위원들의 귀중한 원고들을 잘못 칼질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미완성인 것만 같은 염려 때문이다.

— 속기계 제35호(1996)



IV
언론 인터뷰

01. 말을 찍는 사진사 ‘국회 속기사’ 김진기 고문 인터뷰
02. 될 말, 안 될 말 그 가감 없는 기록을 위하여 홍기표 인터뷰
03. 국회 ‘여의도 시대’ 30년 최예숙 인터뷰
04. 국회 마을 30년 터줏대감, 속기사 3인 이경식·조영기·고경호 인터뷰
05. 5분 쓴 꼬부랑글씨 ‘해독’하는 데 50분… 엄의숙 인터뷰
06. 촛불 속기, 골목 속기 - 수필속기의 위력! 김미라 인터뷰
07. “의원님들 욕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백순정·박윤혜 인터뷰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제112화)

말을 짚는 사진사 ‘국회 속기사’

이 글은 KBS에서 김진기 고문을 인터뷰하여 2003년 1월 26일(오전 7:11~8:00)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임.

♠-나레이터 설명

() 안은 김진기 선생님 증언

- 자, 여러분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장 선거를 하는 회의이니 만큼 지금부터 선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임시로 사회를 보실 분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 그것은 너무 번잡하니까 사무총장이 그냥 투표용지를 돌리면 좋겠습니다.
- 그건 안 됩니다. 사무총장은 그냥 회의를 개회하면 책임이 끝난 거요, 후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임시사회를 볼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맞아요’ ‘웁소’)

IV. 언론 인터뷰

-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 사회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김규식 박사를 임시 사회자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좋습니다. (일동박수)

♣ 단기 4279년, 서기로는 1946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막을 올린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제1차 회의 장면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과도입법의원은 미 군정의 입법자문기구로 출범했던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기관은 1948년에 문을 연 제헌국회가 되겠지만 과도입법의원 의 이날 회의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회의로 기록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규식 박사는 총 53표 중에서 4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열렸던 그 과도입법의원 의 제1차 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57년이나 지나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헐리고 없는 옛 조선총독부 자리에 들어 있던 과도입법의원 의 부속사무실.

- 아이고, 진땀 뻘네.
- 글썄 말이야, 시골에서 올라온 의원들이 어떻게나 사투리가 심한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 아직 미 군정 치하이지만 그래도 일본 말이 아닌 우리말로 회의하는 장면을 보니까 해방이 되기는 됐구나 실감이 나고 가슴이 뿌듯하던걸.
- 그래그래.
- 그건 그렇고, 속기를 일단 일본 말로 해 놓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선 말로 옮겨쓰지?

- 그러면 일단 그 속기 내용을 일본 말로 풀어 쓴 다음에 다시 우리말로 옮겨 써야지.
- 이봐, 거기 견습생?
- 예, 선배님.
- 속기 번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속기록을 보고 천천히 부를 테니까 일단 일본 말로 받아 적는 거야.
- 알겠습니다.
- 열심히 배워 두어야 견습생 너희들도 정식 속기사로 채용되어서 회의장에 들어갈 것 아니야?
- 예, 알겠습니다.

♣ 이 견습생이 오늘 우리에게 국회속기사들의 활약상을 들려 줄 장본인이다.

금년 일흔다섯 살의 김진기 씨.

(일본 속기를 하던 분들이 우리나라 속기를 연구하고 가르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언한 것을 일단 일본 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다시 또 한국 말로 번역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나는 양성소에서 처음부터 우리말 속기를 배운 것이고 입법의원에서 정식 속기사로 있던 분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속기를 하던 분들이어서 그런 식으로 속기를 했어요.)

♣ 과도입법의원에서 일하던 속기사들은 일본어 속기를 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의원들이 우리말로 발언을 하면 그것을 일본식 속기로 받아 적었다가 일본 글자로 옮겨 적는 번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서 옮겨적는 방식으로 속기록을 작성했다는 얘기가.

지금은 경기도 남양주군에 있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IV. 언론 인터뷰

보내고 있는 김 씨는 과도입법의원에서의 견습생 시절을 거쳐 1948년에 개원한 제헌국회 때 정식 속기사로 채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의정 활동의 기록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데 그러나 평생 동안 국회속기사라는 외길을 걸어온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제헌국회 때 들어갔는데, 그때 6·25 전쟁이 나 가지고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 갈 때 같이 못 가서 9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정직되었다가 국회가 다시 서울로 수복을 해 가지고 왔을 때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5·16 군사혁명이 나 가지고 또 국회가 해산되어서 3년 동안 놀다가 65년도에 다시 들어왔고 80년도에 또……)

♣ 1980년에 신군부에 의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해직되었고 89년도에 복직되었다가 정년퇴임을 했다. 국회 속기사로서 그가 살아온 곡절 많은 삶이 해방 후 우리의 의회정치가 걸어온 내력과 엇비슷하다.

골목 많았던 우리의 의회정치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했던 속기사들의 애환과 그 활약상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우선 속기사들이 어떤 부호를 가지고 속기를 하는지 김진기 씨로부터 그 원리를 간단하게 들어보자.

(기본문자라고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이것이 다 있지만 기본문자만 가지고는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축자를 해서 단어를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동사 형용사 등을 자꾸 축소해 가지고 빨리 쓰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죽 굿기만 하면 그게 ‘합니다’입니다. 그리고 ‘합니까’라고 하려면 ‘합니다’ 죽 그은 것 위에 점 하나만 찍으면 되고…… 뭐 이런 방식이지요.)

♣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말들은 일일이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한 덩

어리의 어휘를 간단한 부호 하나로 나타낸다는 얘기다. 따라서 능숙한 속기사들의 경우 국회의원이 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 적는 동작도 끝나치게 된다.

제헌국회 때는 의원들 간의 다툼으로 속기사가 속기록을 즉석에서 낭독하는 일도 있었다.

- 어디서 그따위 발언이야!
- 아니, 내가 언제 국무위원들한테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트집이야, 트집이!
- 아니, 뭐라고? 다른 의원들이 다 들었는데 계속 잡아떨거요? 국무위원들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잖아! 발언 당장 취소하고 사과해!
-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 이봐요 의장, 조금 전 박 의원이 한 발언을 속기사한테 한번 낭독해 보라고 하세요!
- 그렇게 하세요.

♠ 그렇게 해서 속기록 낭독 제의가 통과되면 속기사는 글자가 아닌 부호로만 받아쓴 속기록을 들고 일어나 큰 소리로 낭독을 하게 되었다는데……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야당이면 야당에서 발언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끄러우면 의장이 즉석에서 속기사를 불러 가지고 지금 발언한 의원의 발언을 낭독해라, 그러면 속기 원문을 가지고 발언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낭독을 하면 그 발언에 대한 시비가 판결이 나는 것이지요.)

- 빨리 낭독을 해 봐!

IV. 언론 인터뷰

-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하셨던 발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문제가 참 많아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했던 약속을 두 번씩이나 어겼어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이때 의석에서 발언취소 등 소란이 있었음.” 이상입니다.
- 그것 봐,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 어디에서 잡아떼려고 해!

♣ 그러나 속기록 낭독으로 불리해진 쪽이든 유리해진 쪽이든 자신들이 했던 발언을 부호문자로 된 속기록을 보고서 거침없이 낭독하는 속기사들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속기사들은 2인 1조로 회의장에 들어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속기한 다. 한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빠뜨린 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 속기사들 사이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을 귀로 들으려 해서는 안 되고 손끝으로 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보통 10분 동안 발언을 하면 글자 수로 따져서 3000자 내외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 적다 보면 우선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금세 피곤해진다. 그래서 10분 단위로 교대를 한다.

그 2인 1조 중에서 경험이 많은 베테랑 속기사를 주무라 하고 그를 보조하는 속기사를 부무라고 한다. 제헌국회 때는 지금의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라고 불렀는데 속기사가 통틀어서 1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속기사들이 본회의에만 참석을 했고 분과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그 시절에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는 요점을 정리해 놓은 회의록 형태로는 남아 있지만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상세히 적어 놓은 속기록은 작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속기사들로 하여금 진땀을 흘리게 만든 국회의원이 있었다. 3, 4, 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선태 의원이었는데 속기사들 사이에서 그는 속사포로 통했다.

- 오늘 본회의 몇 시에 열리지?
- 예, 10시 반입니다.

- 가만 있자, 오늘 본회의 발언자 명단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그런데 민주당 김선태 의원이 나오잖아? 자네들, 잘 걸렸어. 그 속사포 만나서 어디 진땀 한번 흘려 보라고.
-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 운동경기 중에서 농구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말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김선태 의원의 발언속도는 그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당 의원이라면 보통 흥분할 일이 적어서 발언이 차분한 데 반해 그는 자유당의 독재와 부패를 질타하는 데 선봉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속기사들이 기록하기에는 더욱 애로가 있었다.

1961년 4월 21일 국회 본회의장

(만일 정당에서 공안위원회 구성을 다 해 버린다고 하면 매일같이 지금 국회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여야가 대립해 보고서 하나 작성할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을 바라볼 적에 공안위원회를 만일 정당이 대표해 구성해 버리면 여야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경찰력은 마비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근심하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 속기 잘 했어?
- 못 받아 적은 것이 많은데 큰일났네.
- 저기 김진기 씨?
- 예.
- 당신 거 한번 가져와 봐, 김선태 의원이 한 발언 중에서 중간 부분 공안위원회 문제점 거론한 거 말야.

IV. 언론 인터뷰

- 저도 그 부분은 못 적었는데요.
-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내일 아침에 김 의원님 사무실로 찾아가서 보여 주고 빠진 부분은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 다행히 김 의원은 자신의 말이 빠르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혹 빠뜨린 부분이 있더라도 속기사들을 탓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빨라도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속기할 수 있는 능력이 10분간 약 3000자 정도인데 김 의원은 녹음을 해 가지고 재 보니까 4500자 내지 5000자를 발언해요. 그 사람 별명이 속사포였는데 하여간 쓸 수 있는 데까지 써 가지고 앞뒤로 말을 연결시켜서, 그러다가 정 모르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랬어요. 완전 속기는 못 했어요. 그분이 하도 빨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김선태 의원이 나오면 속기사들은 야, 이거 또 걸렸구나 하고 바짝 긴장을 했지요.)

♣ 속기사들이 속기를 일반 문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전날 했던 발언을 보충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또 있었다. 사투리가 심한 의원들의 경우였다.

- 정부의 잘못된 농정 때문에 우리 농민들 마 다 죽게 생겼다 아닌져, 식량 증산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카이. 구호식량 안 준다카이까네 농민들이 전부 시겍해가 굶어죽겠다고 야단인데 농림부장관, 한번 답변해 보이소.

♣ 속기체계가 표준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모두 표준어로 올라 있다. 그러나 의원이 발언한 사투리가 무슨 뜻인 줄 알아야 표준어로 옮겨 적을 것 아닌가?

(전혀 듣지 못했던 사투리가 많았지요. 속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깊은 지식보다도 넓은 상식이 필요해요. 자기가 아는 말을 해야 정확히 쓰지 자기가 모르는 발언은 그 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영어를 발언할 적에 그 음대로 쓰려고 하면 못 쓰거든요. 그 뜻을 모르니까요. 사투리 같은 것도 각 지역마다 다른 사투리를 속기문자로 전부 약자화할 수가 없어요. 다 못 해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본인한테 물어 가지고……)

♣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속기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속기록을 함부로 고칠 수도 없을뿐더러 고쳐 달라고 하는 압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다.

1950년대 초 부산 피난시절 국회사무처 속기과.

- 아니, 장관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 관찮네……

♣ 속기과 사무실을 불시에 찾아온 사람은 조병옥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다.

- 어제 장택상 부의장 발언 기록해 둔 속기록 좀 볼 수 있나?
- 예.
- 장덕근 씨, 어제 본회의 주무였지?
- 예, 제가 속기했습니다.
- 장택상 부의장이 했던 발언 정리됐으면 좀 가져와 보게.
- 예, 장관님 여기 있습니다.
- 장택상,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아무 근거도 없이

IV. 언론 인터뷰

의정단상에서 나를 모욕하는 이런 발언이나 하고 말이야. 이견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구만.

♣ 그래서 조병옥은 국회 부의장이던 장택상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고 장택상은 자신이 전날 했던 발언을 취소하겠다고면서 속기와 직원 장덕근을 부의장실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장 부의장이 속기사 오라고 해서 부의장실에 장덕근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런이런 부분은 삭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삭제 못 합니다’, ‘의장이 삭제하라는데 왜 못 해’, ‘의장이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때 金泳三 씨가 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김 비서를 오라고 하더니 ‘이놈의 자식이 의장 말을 안 듣는다, 빨갱이다, 뒷조사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겁이 나서…… 그때는 살벌한 시대였어요. 아무나 막 잡아갔거든요.)

♣ 당시에 속기사 장 씨는 그 일로 심한 노이로제에 걸렸고, 물론 그 사건 때 문만은 아니지만 얼마 후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김진기 씨의 증언이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국회 속기록을 열람해 보면 군데군데 괄호를 치고 ‘장내 소란’이라 적어 놓은 부분이 나오는데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는 의원의 경우야 속기록에 그 내용을 담겠지만 의원들의 발언이나 국무위원의 답변 때 회의장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는 어떻게 처리할까?

(속기를 하면서 누가 발언했는지를 확실히 알면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의 내용을 속기하면서 그 저쪽에서 발언한 사람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록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떠들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장내 소란’이라고 하고요, 또 한 사

람이 일어나서 잘 들릴 수 있게 얘기하면 (「뽀뽀」 하는 이 있음) 이렇게 쓰지요. 정식 발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름은 못 넣고 (「뽀뽀」 하는 이 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우면 속기록에 '장내 소란'이라고 쓰고 누군가 의석에서 한 얘기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가령 '(「발언 취소해」라고 외치는 이 있음)'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가.

제헌국회 시절에는 워낙 속기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회 소속이면서도 행정부에 불려가서 속기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김진기 씨 역시 공보처에 파견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속기로 받아서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1949년의 어느 일요일.

- (전화벨 소리)
- 여보세요, 김진기입니다. 예? 공보처장님이시라고요? 어디를 가야 하는데요?
- 지금 진해에 내려가야 하니까 빨리 옷을 갖춰 입고 공보처로 출근해요.
- 진해요? 경상도 진해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로……
- 진해에서 각하하고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이 회담을 하시는데 속 기사를 속히 내려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 예,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 공보처로 올 것 없이 여의도 비행장으로 바로 나오라고요.

(공보처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공보처장이 두 사람을, 그때 국회에 있던 속기사 두 사람이 공보처에 촉탁으로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진해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해요. 그때

IV. 언론 인터뷰

는 민항기도 없을 때였거든요. 하여간 트럭을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그때 여의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고 비행장만 있었어요. 사람은 밤섬에만 몇 집이 살았는데 여의도 비행장에 가니까……)

- (비행장)

- 김진기 씨, 당신은 이쪽 비행기에 타고 이 사람은 저쪽 비행기에 타요.

♣ 변변한 여객기 한 대 없던 시절이라 일반인들이 비행기를 타 본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였다는데……

남다른 직업을 가진 덕분에 김진기 씨와 또 한 명의 속기사는 조종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밖에 탑승할 수 없는 경비행기 2대에 나누어 타고 진해까지 날아가는 행운을 누렸다고 한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다.

(군에서는 의정부에서 격퇴했으니까 서울시는 안심하라고 했고, 그러다가 28일인가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수도 결사사수 결의를 했어요. 결의하니까 서울시민들도 피난 갈 생각을 안 했고 우리 직원들도 피난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의한 그날 바로 대통령도 남하했고 국회의원도 연락받은 사람은 남하했어요. 우리 직원도 자기들끼리 연락된 사람들은 피난을 갔어요.)

♣ 속기사들도 일부는 부산으로 내려갔으나 김진기 씨 등 일부는 서울에 남아 숨어 지내야 했다. 그러다 9·28 수복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던 국회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 아니, 무엇을 심사한다는 거죠?

- 그러니까 피난 못 가고 서울에 남은 사람들이 적 치하에서 부역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것을 심사한다는 얘기인데……
- 김진기 씨는 어디에 있었어?
- 어디 있기는요, 고향에서 숨어 지냈지요.
- 젠장, 피난 가지 말고 안심하랄 때는 언제고 피난 안 간 사람들을 심사하겠다는 얘기는 또 뭐야……

♣ 그러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1·4후퇴 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의 의정 활동상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 아주 없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

국회의 각종 서류들을 서울에서 수원으로, 거기에서 다시 천안으로 이송했다가 부산으로 실어가게 되었는데 서류 수송을 담당하던 국회 직원이 서류 수송 트럭에다가 자신의 개인화물을 싣고 가 버리는 바람에 입법부의 중요 서류를 운송할 방법이 없어서 버린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천안인가 조치원인가 어디에 갖다 놓고는 그 트럭에다가 자기 개인 짐을 실었어요. 그 바람에 천안에서 지키고 있던 직원 하나가 적은 자꾸 쳐 내려오는데 트럭은 안 오니까 생각다 못해 그 서류를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은 못 가져가도 속기록은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속기사는 아닌데 속기록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지고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류는 다 없어졌지요.)

♣ 당시만 해도 제헌국회 시절인데다 본회의 내용만 속기록에 담았기 때문에 부피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속기록을 짚어지고 부산에 간 그 직원은 표창을 받았고 서류 운송 책임자는 면직처분을 당했다는 것이 김진기 씨의 증언이다. 물론 김진기 씨 자신도 1·4후퇴 때는 피난 길에 합류했다. 6·25 전쟁 당시 국회 속기사들은 대부분 부업으로 통신사의 일을 겸했는데 순전히 속기사들에 의해서

IV. 언론 인터뷰

운영되던 통신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RP통신이었다.

(전쟁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보가 일본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 의장단에서도 정보를 빨리 얻으려면 일본 방송을 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속기사한테 일본 방송을 속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말을 아는 사람이 일본 말로 속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좀 확대되어 가지고 RP통신이라고……)

♣ 전황 파악이 어렵던 시절 속기사들이 일본 방송을 속기해서 그 내용을 정부기관은 물론 언론사에도 제공했는데, 그것을 라디오 프레스, 즉 RP통신이라고 불렀다.

민주적 의회정치나 건전한 토론문화의 전통이 일천한 관계로 국회의 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의 격한 다툼이 잦았는데 그 영향이 속기사들의 수난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제헌국회 때의 얘기다.

- 왜 방해해! 끝까지 들어 봐!
- 들어 봐요.
- 지금은 본 의원의 발언 시간입니다, 반론이 있으면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참고 들어 주지! 그만 내려오지 못해!
- 그래요!

♣ 이런 소란 상태가 계속되는가 했는데 한 의원이 의석에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명패를 단상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런데 날아간 명패가 단상 못미처 속기석에 떨어졌고 속기사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히고 말았다.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의 명패가 옆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길게 세우게 되어 있었어요. 이름을 세로로 썼거든요.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그게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이준수 의원이 막 내려오라고 야단을 치더니 갑자기 명패를 들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의원한테 휘 던졌어요. 그런데 그 명패가 속기사한테 맞은 거예요. 명패로 이마를 맞은 속기사는 아프니까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서는 계속 속기를 했지요.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는데……)

♣ 한 손으로는 피가 줄줄 흐르는 이마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의원의 발언을 기록해야 했으니 그 속기사의 심사가 어떠했겠는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명패를 가로로 써서 놓혔고 아예 좌석에 고정시켰다고 한다. 그렇다고 집어던질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었다.

- 아이, 참 나.
- 아예 집어치워!
- 똑바로 하지 못해!
-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예이, 아……

♣ 재떨이었다. 당시만 해도 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좌석마다 유리 재떨이를 비치했는데 흥분한 의원들이 그것을 집어던졌고 애꿎은 속기사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리 재떨이를 양은 재떨이로 바꿨는데… 흥분한 의원들이 그 양은 재떨이를 던지면 회의장 허공으로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진풍경이 연출되곤 했다. 물론 회의장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종류의 소란 중에서 가장 압권은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 사건이었다. 그때도 속기사들이 그 오물을 뒤집어썼다.

IV. 언론 인터뷰

(그 당시는 발언대가 여기에 있으면 속기사가 그 밑에 있었고 그 옆으로 국무위원이 죽 앉았거든요. 지금은 발언대와 국무위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옆에 있었다고요. 그때 정일권 국무총리와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해서 죽 앉아 있었는데 밀수하는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봐준 당신들도 똑같은 범죄인이라고 하면서 깡통인데 풀어 가지고 확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속기사가 뒤집어쓸 수밖에요.)

♣ 이제 우리의 의정사를 돌아볼 때 빠뜨릴 수 없는 이른바 날치기 파동에 얽힌 속기사들의 애환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1958년 12월 24일

- 자, 여러분, 지금 자유당 의원들이 모처에서 야당 탄압과 비판적 인사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할지 모른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오늘밤도 밤을 새서 의사당에서 농성을 계속합시다.

기존의 국가보안법만 해도 간첩 잡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안법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이적행위의 개념을 확대한다, 이것은 곧 부패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 야당과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책입니다, 여러분!

- 웁소!

♣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당 의원들의 강행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임시 경위 300명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 경위 복장

을 입혀서 국회를 전부 점령했어요. 그래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농성하는 것을 끌어내고,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네 명이 달려들어서 양쪽 팔을 잡고 끌어내서 지하실 계단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여당 의원만 들어와 가지고 각종 법률안 중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과 그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원래는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회의장에서 12개 분과위원회를 전부 다…… 여기는 법사위원회, 여기는 무슨 위원회, 여기는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데……)

♣ 야당 의원들은 강제로 끌려나가고 여당인 자유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300명의 무술경관들이 의장을 겹겹이 둘러쌌다.

- 자, 속기사들, 다 준비됐지? 그러면 전부 완장들을 차라고. 완장을 차야 본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 우리는 국회 직원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완장을……
- 지금 무술경위들이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완장이 없으면 입장을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놓인 화판을 하나씩 목에 걸고 나가도록 해요.
- 그럼 그리는 화판을 목에 걸고 나가라고요?
- 아이 참,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완장 두르고 화판 매고 얼른 가자고요.

♣ 어깨에는 완장을 차고 목에는 야유회 사생대회에 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 처럼 화판 하나씩을 매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광경인데, 그러나 그안에서 벌어질 일들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IV. 언론 인터뷰

(화판 몇십 개를 사다가 속기사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완장을 차고…… 국회 직원들도 얼씬 못 하게 했거든요. 경위라고 하는 경찰이 와 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으니깐요. 완장을 찬 사람만 거기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완장을 차고 화판을 매고 들어가서 위원회별로 두 사람씩 서서 무슨 법안 통과시킵시다 하면 그것을 쓰고, 그다음에 그 12개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또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했는데……

법안 하나가 의결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순서였는데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실에 갔다가 다시 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 군데군데 무슨무슨 상임위원회 하는 식으로 12개 상임위원회를 정해 놓고 몇 걸음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던 것이야.)

♣ 속기석을 따로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기사들은 화판에다가 종이를 대고 선 채로 기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속기 원문을 탈취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 중요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심의를 하다니, 어이 속기사, 어디 그 기록 좀 내놔 봐!
- 의원님, 이것은 속기 원문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 원문이든 아니든 이리 내놔 보라니까!
- 안 됩니다, 의원님.
- 이리 못 내놓겠어!
- 이건 무효야, 속기록 필요 없어!

♣ 그 야당 의원은 속기록을 낚아챈 다음에 즉석에서 찢어서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속기사는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보안법 파동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데 야당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해 가지고 극한 반대를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날치기로 막 통과를 시켰는데 속기사가 그 통과시키는 것을 속기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이 와서 속기 원문을 확 뺏었다고요. 국회의원이 뺏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의원은 그것을 찢어 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었어요.)

♣ 그 속기사는 큰일 났다 싶어서 찢어진 조각이라도 다시 찾으려고 그 의원을 졸졸 따라다녔는데 여당 측의 날치기에 흥분한 그 야당 의원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날치기 통과와 무효를 주장하고 다녔고 그러는 중에 찢어진 속기록 조각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물론 속기사는 그 조각들을 재빨리 주워 테이프로 이어붙여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던 뒤 그 속기사는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으면 속기록부터 우선 품속에다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그 속기사의 이름이 김백곤이었다.

보안법 개정안이야 그래도 일개 법률안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에게 3선의 길을 터 주기 위한 이른바 3선개헌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1969년 9월 14일 저녁.

당시 속기과 계장이었던 김진기 씨는 국장의 부름을 받고 국장실로 들어갔는데……

- (똑똑똑) 국장님, 부르셨습니까?

-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키고 김 계장 외에 속기사 4명만 대기시켜.

IV. 언론 인터뷰

-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고……
- 어허, 속기과장한테는 얘기할 게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 알겠습니다.

♣ 태평로에 있는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이 당시의 국회의사당이었고 그 맞은편에 제2, 제3의 별관 건물이 있었는데 속기과는 제2별관에 있었다.

- 아, 그 대기하라는 속기사들 어디 있어?
- 예, 이쪽에 다 있습니다.
- 바깥에 불빛 새 나가지 않게 등화관계 확실히 하고 조용히 대기하고 있으라고.
-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 등화관계를 하고 쥐죽은 듯 기다리라니…… 전쟁이 터진 것은 아닐 테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우리는 전혀 몰랐지요. 다 퇴근시키고 속기사 4명만 대기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는 바깥에 불이 비치지 않게 했어요. 그때 우리는 2별관에 있었는데 사무실 불을 켜 놓으면 바깥에 불빛이 나가니까 별관 불을 다 끄고 구석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되니까 어디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4명을 데리고……)

- 의사국장님, 지금 저희가 어디에 가는 길인지……
- 조용히 하라고, 지금 건너편에는 신민당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 저쪽 제3별관으로 가는 거야. 속기사는 회의가 열리는 곳이면 시간 불문, 장소 불문하고 가서 임무한 수행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 아니, 이 새벽에 3별관에서 무슨 회의가 열립니까?
- 가 보면 알아.

(사람이 다니지 않던 문을 열어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에다가 회의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들어오더라고요. 이효상 국회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그냥 통과시킨 거죠. 통과시키고 나서 여당 의원들이 나가니까 그때야 저쪽 본회의장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공화당에서는 다 피한 뒤이고……)

♣ 물론 속기사들이야 직속 상관인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면 그뿐이겠지만 변칙과 날치기 등 파행적인 의회 운영의 현장 목격자로서 개인적인 느낌이 남다를 텐데……

(나도 그렇지만 그 당시 국회 직원들, 특히 속기사들은 전부 야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야당이 옳았거든요. 말하자면 독재 치하이니까 속으로는 여당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업무를 할 때는 개인 감정을 떠나서 하는 것이고……)

♣ 제2공화국 시절 김진기 씨가 참의원 속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는 간첩에게 국회속기록을 넘겨 주었다는 혐의로 치안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전에 속기사로 있던 분이 법률신문사라는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했어요. 편집국장이 친구였고 언론사에 속기록을 배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간첩한테 속기록을 주었고 마침 그 간첩이 붙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냈느

IV. 언론 인터뷰

냐, 누가 주었다, 그때 그 친구는 간첩 혐의로 붙잡혀 가서 7년을 살고 나왔어요.)

♣ 김 씨는 혐의가 없어 풀려났는데 뒷날 자신을 취조했던 형사를 우연히 만나 술잔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 형사로부터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 김 형, 그때 그 일, 나한테 고마운 줄 아쇼!
- 멀쩡한 사람한테 간첩하고 내통하지 않았느냐고 으박지르던 사람한테 뭘 고마워해요?
- 모르시는 말씀, 실은 이 정부에서 보안 관계법을 개정해서 강화시키려고 국회침투간첩단 사건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씨가 그 희생양이 될 뻔했고……

♣ 그 형사의 말은 괜한 공치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김진기 씨의 얘기다. 치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우선 상사인 국회 의사국장에게 찾아갔었는데……

(의장실에 갔어요. 운영위원장하고 같이들 앉아 있었는데 내가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치안국에 연행되어 갔고 아무 일도 없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장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무부차관이 의장한테 ‘간첩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 크게 보도해 가지고 이런 간첩이 국회까지 침투했으니까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 지금은 의원들의 발언을 직접 손으로 받아 적는 수필속기사는 양성소 자체가 없어서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컴퓨터속기라는 게 등장해서 속기부호를 컴퓨터로 치면 곧바로 문장으로 변환된다고 한다.

정부 수립 이후 곡절 많은 우리 의정사의 면면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보고 기록해 온 속기사 김진기 씨.
컴퓨터로 속기부호를 두드리기만 하면 일반 문장이 되어서 출력될 정도로 속기 기술이 발달한 지금 그 기술의 향상만큼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문화 수준도 한층 높아졌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정리: 문선희)
— 속기계 제40호(2003)



될 말, 안 될 말 그 가감 없는 기록을 위하여

홍기표 인터뷰



‘말의 전당’ 국회에서 ‘묵언수행’해 온 홍기표 주사의 속기인생 30년

국회는 한마디로 말의 전당이다. 그러나 그 말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자 스스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직 묵묵히 기록해 나갈 뿐이다. 이 ‘침묵의 기록자’는 눈에 띄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묵언의 기록자가 없으면 국회는 공허한 거품의 전당일 뿐일 터, 말의 거품을 법으로 세우는 일을 맡고 있는 무언의 기록자가 속기사다.

허공을 떠도는 그 수많은 말들을 잡아채 역사로 형상화하는 일이 속기사의 몫이다. 다언과 묵언의 음·양이 교직해서 빚어낸 말과 글의 전당이 바로 국회일 것이다. 속기사로서 30년. 태평로 의사당에서부터 그 수많은 될 말, 안 될 말을 남김없이 기록해 온 20년 주사 홍기표 씨. 그의 귀에 들린 국회는 어떤 것이며, 보태고 뺄이 없는 기록이란 또 어떤 것인지, 마침 법률제명 띄어쓰기 원년을 맞아 평생 속기사의 ‘귀 아닌 입’을 열어 보고 싶었다. 우리 인체에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처럼, 국회에서 가장 많은 말을 소화해 내면서도 스스로는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속기사들이 바라보는 말의 전당은 어떤 모습일까?

이진섭 금년부터 우리나라 법률제명의 띄어쓰기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국회 속기 업무를 맡아 오시면서 우리말을 정리하는 어려움을 절감하셨을 텐데, 특히 ‘띄어쓰기’는 우리 한글이 가진 가장 난해한 요소인데, 띄어쓰기로 가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홍기표 (웃으면서)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이런 말씀 드

IV. 언론 인터뷰

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전히 문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의’, ‘및’, ‘에 관한’ 같은 우리말이 나올 경우 외에는 여덟 자 범위 내에서는 붙여 쓰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진섭 가독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덟 자까지는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붙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아직은 ‘붙여 쓰기’와 ‘띄어쓰기’의 절충형이랄까….

홍기표 예, 그런데 「기술개발촉진법」은 일곱 자니까 붙여 쓰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은 아홉 자니까 띄어쓴다는 게 좀 어색하고요,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은 「진흥법」을 붙여 쓰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띄어 쓰고 있단 말이지요. 기준이 애매해요. 그리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은 「한국 진돗개보호·육성법」으로 맞춤법이나 구두점을 함께 챙겨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몇 번 열려 봐야 되겠지요.

승진 마다하고 ‘평생 주사’로 남기를 택한 까닭은

이진섭 올해로 국회에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홍기표 금년 5월 말이면 만 30년이 됩니다.

이진섭 그동안에 오로지 속기과에 근무하시면서 주사로서도 20년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사무관 시험을 포기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승진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간절한 소망이요, 보람일 텐데….

홍기표 (웃으면서) 재작년에 아예 욕심을 버리고 필수요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지 않

습니까. 속기사무관으로 속기록 원고 취합하라 행정 보랴 일에 파묻히기보다는 차분히 속기 편집 일을 보면서 전문성을 살려 나가는 게 제 적성에도 맞고, 자료 수집도 할 수 있어서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이진섭 편집 업무라면 다른 분이 작성한 속기록을 교정보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준다는가 그런 겁니까?

홍기표 속기록의 편집이 일반 편집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속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취 능력입니다. 그런데 간혹 청취상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지요. 편집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 오류를 찾아내어 바로잡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바담뽕’을 ‘바람 풍’으로 새겨들어야 진짜 속기사

이진섭 청취상의 오류라고 하면 청취자, 즉 속기사가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하는 사람,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잘못 알고 발언했을 경우, 또는 발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경우, 이런 여러 경우를 모조리 잡아내야겠네요?

홍기표 아니,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은 ‘말한 그대로’입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논리의 비약은 논리의 비약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다만 속기사에게 청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잘못 들었을 때는 문제가 다르지요.

이진섭 청취는 비록 ‘바담뽕’으로 했더라도 속기사는 이를 ‘바람 풍’으로 새겨들고 그렇게 기록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 30년 속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우스꽝스런 일화들이 많겠습니까.

홍기표 부끄럽지만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속기 초년병 시절 장관의 답변을 한참 기록하는데 ‘OK 탄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

IV. 언론 인터뷰

중에 주무에게 확인해 보니 ‘옥계탄광’을 오칭한 거예요(웃음). 참 어이도 없고 얼굴이 화끈 하더라고요.

이진섭 청취 능력이란 단순히 귀만 밝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교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홍기표 그렇지요. 알아들어야지요. 청취 능력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요. 첫째는 풍부한 어휘력입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차계산(利差計算)’을 ‘2차 계산’으로, ‘AT&T’를 ‘ATNT’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진섭 누구나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요. 외국어도 아는 만큼 들리지 않습니까?

기능인이 아니라 ‘지식인’이 앉아야 할 속기석

홍기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폭넓은 이해력입니다. 이견예문을 들어 설명드리지요. 이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난 9월 말 가양대교 및 한강 둔치 지하수를 측정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 6ppm보다 5배가량 높은 29.5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알아듣고 청취를 했다면 ‘가양대교 및’을 ‘가양대교 밑’으로 기록해야 마땅하지요.

이진섭 아, 가양대교 아래에 있는 한강 둔치 지하수를 측정된 결과, 이런 말이군요?(웃음)

홍기표 그렇지요. 발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정확한 기록이 불가능하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고도의 청

취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속기사는 지식인이야 된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속기석은 기능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지식인이 앉아 있어야 해요.

이진섭 발언하는 사람보다도 지적 역량이 더 우수한 사람이 받아 써야 잘못 얘기한 것까지도 다 새겨듣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

흥기표 예, 80년대까지만 해도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분이 한자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이재민(罹災民)’을 ‘나재민’으로, 기호품(嗜好品)을 ‘노호품’으로 읽는 경우지요. 그러나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속기하면서 충분히 새겨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날조(捏造)’를 ‘훤조’라 하고 ‘수회(收賄)’를 ‘수유’라 할 때는 웬만한 한자 실력이 없어서는 무슨 소리인지 종잡을 수가 없겠지요.

이진섭 때로는 회의 석상에서 보좌진들이 바로바로 질의서를 작성해서 전해 받기도 해서 문맥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흥기표 하지만 질의서를 급히 작성하느라 글씨를 흘려서 쓰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흘려 쓴 것을 정확히 못 읽고 또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한번은 ‘부동산 투기 조절 대책’이라고 발언을 해요. 부동산 투기를 ‘조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짐작대로 ‘근절’이더라고요.

이진섭 당연히 ‘조절’이 아니라 ‘근절’이라고 알아먹어야 된다는 말 씀이겠네요. 예컨대 ‘전라남도 광주’를 ‘전라북도 광주’라고 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흥기표 ‘전라북도 광주’라고 했다면 그건 명백한 실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명백한 실수는 고쳐 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절대 고쳐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수는 실수대로

IV. 언론 인터뷰

그냥 기록해 두는 거지요. 다만 독자들이 그 실수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경우에는 주(註)를 달아 준다고 합니다.

이진섭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은 말한 대로 써 주는 것일 테지만 말의 본뜻을 정확히 살려주는 것 역시 청취 능력 못지않게 중요할 텐데... 신문사의 교열부에서 하는 역할 같은, 때로는 살짝 운문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흥기표 운문은 부적합한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바꾸어 주고, 거친 어투를 세련된 어투로 고쳐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속기록에는 절대로 그렇게 손을 대서는 안 되지요. 발언자가 사용한 어휘나 어투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발언자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음성언어를 그대로 ‘문자화’하라는 건 아닙니다. 문자화가 아니라 ‘문자언어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속기 용어로 ‘수문(修文)’이라 합니다. 말한 대로 기록하되 문장부호와 문법, 문체를 바르게 챙겨 주는 거지요.

임금과 설전도 불사했던 사관의 기개가 아쉽다

이진섭 ‘말한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속기사가 사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옛날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은 당대 임금은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었다지요.

흥기표 예, 그 사초 때문에 사화도 여러 번 겪었고...

이진섭 그렇지요. 또 사관이 없이는 누구하고도 절대 독대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걸핏하면 속기록에서 지워라 말아라, 때로는 속기록의 삭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의 사관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이 됐어요.

흥기표 사관들은 정확한 사초를 남기기 위해 임금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목숨을 걸었던 거지요. 그만큼 사명감이나 역사의식이 투철했고 기개가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관들의 그런 전통과 정신이 일제시대에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그 위에 속기술이 보태어졌더라면 오늘날 우리 속기록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전생애를 걸고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한 우물을 파는 속기인들이 몇 사람이라도 나왔더라면 속기사의 위상도, 처우도 오늘날과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진섭 중국의 사기를 쓴 사마천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사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치스런 궁형을 감수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속기사가 바로 사마천과 같은 사관의 원형이랄 수 있잖습니까.

흥기표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기록문화를 사랑하는 우리지만 제헌국회 이후에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헌국회 때 속기를 하셨던 강준원 선생님께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속기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까짓 서기는 배워 뭐 해?” 속기는 서기(鼠技)다, 쥐장난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걸 쥐장난으로밖에 안 보더라는 거지요. 그때 이미 한국에서는 속기문화가 제대로 자라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진섭 그러나 역대 의원 중에는 속기사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분들도 영 없지는 않았겠지요.

흥기표 예, 13대 때 국정감사를 마치고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이름

IV. 언론 인터뷰

을 날리던 노무현 의원과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수고했다고 식사 대접과 격려를 받은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출입기자 출신 속기사? 한국선 상상도 못할 일

이진섭 중국이나 일본 또는 구미의 경우는 속기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역할 같은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홍기표 속기사의 처우는 나라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속기 종주국이랄 수 있는 영국의 경우는 그 처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에 속기과 직원 한 사람이 영국 의회 속기사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원래는 국회 출입기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서재에 들어가 보니 책이 산같이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독서가더라는 거지요. 속기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독서를 해야 돼요.

이진섭 알아야 면장이듯이 속기사야말로 알아야 속기사이군요. 그런데 지식·교양·상식의 함량은 물론이지만, 말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손동작 또한 두뇌회전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빨라야 될 텐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요?

홍기표 언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속기 능력을 운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가 많거나 말이 빠른 경우에는 참 고통스럽지요.

처음에 제가 속기사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선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기는 3고(苦)이 직업이다, 배우기 힘들고, 자격증 따기 힘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속기 실무다, 앞으로 너 30년 이상 속기사 생활을 할 텐데 아무리 빨라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잘 들리지 않아도 무조건 써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것처럼 사람 피 말리는 일이 없다고요.

어떻든 속기하는 순간만은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언어란 것이 어투에 따라서, 제스처에 따라서, 얼굴 표정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하게 바뀌고….

공승제도 폐지가 되레 한우물 파는 계기 됐다

이진섭 맞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반어법이나 강조법, 강약과 완급에 따라 그 뜻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충분히 다 감지해서 그 본뜻이 훤히 살아나게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남의 말을 바로 따라 적는다는 게 피를 말리는 일이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기사는 견문이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승진시험에는 무척 유리했겠습니다.

흥기표 옛날에 공승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승진 자리가 나면 행정직 속기직 경위직 기술직 모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속기사들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했지요.

이진섭 그렇게 독식해 버리니까 속기사가 다른 직종들로부터 시샘이라고 할까 미움을 받았겠네요?

흥기표 그렇게 되자 결국은 84년도 이후 그 제도가 폐지되다시피 됐지요. 선배들도 공승제도는 이미 물건너 갔다고 하더군요.

이진섭 그 당시 흥 선생께서는 사무관 승진 시험 칠 자격이 없었습니까?

흥기표 예, 그때는 저는 자격이 없었고 몇 년 지나면 곧 시험 칠

IV. 언론 인터뷰

자격이 주어질 것 같아서 저도 막 공부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행정직으로는 문이 닫혀 버린 거지요.

이진섭 그래서 소위 같은 직종에서만 승급이 가능한 특승만 남고 공승은 없어졌군요? 실망이 크셨겠습니다.

흥기표 저로서는 오히려 그때부터 한 우물만 파서 우리 국어에 대해 보다 천착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5년 속기 실무를 하다 보니까 속기가 이런 것이구나, 어렵פות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문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하고 문법 참고서를 다시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속기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속기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복잡한 음성언어를 문법을 따져 가면서 문자언어화해 가는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본의 아니게나마 속기를 천직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웃음).

이진섭 당초 속기를 배우게 된 것은 무슨 취미나 인연이 있었습니까?

흥기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1년간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 암만해도 내 실력 갖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마침 국회속기사양성소 학생 모집 광고가 났기에 응시했는데 요행히 합격이 되었지요.

이진섭 속기란 정말 입이 아니라 자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직업이구먼요.

흥기표 그런데 속기 배우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이 워낙 느린 탓에.

이진섭 보통 남자 분이 여자 분보다 손이 좀 느릴 테고, 그런 의미로 느리다는 겁니까?

흥기표 저도 제가 손동작이 느리다는 것을 속기 배우면서 처음 알

있습니다. 양성소 수업 첫 시간에 선생님이 각자 손이 어느 정도 빠
른지 테스트해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분 동안 시간을 쯤
테니 1, 2, 3, 4...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써 봐라 그래요.
그런데 손이 빠른 사람은 1분간에 120~130까지 쓰는데 저는 기껏해
야 85까지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손이 느렸습니다.

이진섭 그렇게 손이 느린 사람이 속기계에서 장인이 되셨으니 역
시 작은 재주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각성이 더...

홍기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손 빠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속기 잘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호 식별 능력이 부족하다
고 할까요, 언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몇 자 풀면 그 뒷부분은
자동적으로 죽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기에 눈뜨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 각별해져

이진섭 속기를 하면서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속기는 했는데 도저
히 무슨 말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기표 그것은 나중에라도 발언한 본인한테 확인을 해서 보완해
주어야지요. 지금은 녹음기를 보조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녹음 없이 완전히 속기 노트에만 의존했
거든요.

이진섭 녹음기를 병용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홍기표 그게 5공 들어서고 한두 해 지나고부터였지요. 그걸 도입
하게 된 이유가 그전 의원들은 대개 메모해 가지고 발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5공 때는 기성 정치인들이 다 묶이고 신진들이 대거 들어
왔거든요. 그때 써 갖고 고속 낭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IV. 언론 인터뷰

이진섭 그러면 원고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었겠네요?

홍기표 예, 의원님들 중에는 발언 원고를 꼭 속기석에 전해 주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발음이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5공 때 어느 의원은 하도 발음이 안 좋아서 한번은 보좌관 불러다 녹음한 것을 그대로 들려 주었어요. 녹음을 듣더니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일일이 원고 작성해서 발언하시게 하고 그 원고를 꼭꼭 속기사에게 전달해 주었지요.

이진섭 특별히 속기하기 어려운 의원은 없었나요?

홍기표 유신 때 박모 의원이라고 기억나네요. 충청도 분이신데 어찌 그렇게 속기하기 힘든 단어만 정확히 골라서 발언하는지 속기사들이 애를 참 많이 먹었지요. 한번은 “과수덕 살강 밑에는 탐새기만 수북이 쌓여 있고...”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그것을 알아들었지요, 고향이 충청도니까. 그런데 같이 속기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탐새기라는 말을 몰라 가지고...(웃음) ‘과수덕’이니 ‘살강’이니 ‘탐새기’니 그런 말은 완전히 기본문자로만 써야 하거든요. 그만큼 힘이 들지요.

이진섭 예컨대 ‘대한민국’ 이런 것은 부호 하나로 써 버리지요?

홍기표 예, 한 부호지요. 빈도수가 높은 것은 대개 약자나 약법이 있어요.

이진섭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공승제도는 없어지고 특승만 있게 되니까 처음에는 불만을 느끼시다가 오히려 속기에 내 일생을 한번 걸어 보자...

홍기표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요(웃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 때문에 속기 업무의 본질적인 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속기가 뭘지 눈을 뜨게 되면서 우리말에 더욱 관심

을 갖게 됐던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영웅 선생님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서 문법을 비교적 철저히 배웠거든요. 그 덕분인지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속기 실무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문법과 맞춤법의 상관관계라든가 문장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이론으로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이진섭 방송통신대학은 나중에 가셨지요?

홍기표 방통대는 82년도에 갔습니다. 그것도 공승 시험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간 거지 크게 공부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요(웃음).

그러면서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음성언어에 담긴 의미를 문자언어로 정확히 살려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속기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끊임없는 재충전 요구하는 속기환경의 변화

이진섭 속기 환경이 변해요? 어떤 의미에서 변한다는 거지요?

홍기표 속기 환경이 변한다는 건 언어가 변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변한다는 건 곧 사회가 변한다는 얘가지요. 현대는 국제화 시대요,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는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각종 신조어, 약어, 전문용어를 쏟아 내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속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속기록에 담아야 할 내용은 날로 전문화되고 방대해져 가는 겁니다.

IV. 언론 인터뷰

이진섭 최근에 나타나는 신조어나 약어 중에서 별난 것이 있습니까?

홍기표 얼른 생각나는 것이, ‘외투기업’이라는 말이 있네요. 외투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약어입니다.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이니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하부 구조)니 하는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외래어들이 이제는 심심찮게 속기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DVD니 플로피디스크니 하는 용어들은 모두 최근년에 생겨난 것들이지요.

이진섭 계속 재충전을 해야겠습니까. 국회 자체 또는 속기사협회 같은 데서 재교육 기회가 많습니까?

홍기표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재교육 제도의 하나로서 속기사도 하고 있을 뿐이지 특별히 속기사를 위한 재교육은 없었습니다. 다만 속기과 자체적으로 국어 교육은 몇 번 있었지요.

이진섭 지금은 본회의록 편집 업무를 하시는데 편집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제목을 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표 그것은 의사일정이 상정되면 그 상정된 안건이 제목 역할을 하지요. 속기록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청이나 문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그 질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무 속기사들도 그런 걸 잡아 주는데 때로는 경험 부족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문장은 좀 더 그 의미를 살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직후에 아주 개략적인 수사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음성언어를 말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아주 개략적인 수사 대상’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진섭 예, 좀 그렇긴 한데….

홍기표 여기에 수문을 가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최도술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직후에 ‘수사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아주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진섭 훨씬 내용 전달이 명료해졌군요. 말할 때는 이렇게 문법하고는 상관없이 앞뒤가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지요.

흥기표 예, 그래서 바로 문장부호나 문법을 챙겨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하나 더 보시지요.

“적어도 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권리는 어느 지역에 살든 동일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아주 말 되는 것 같지요. ‘그것이 정(情)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의(正義)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은 속기 실무 경력이 없고서는 아주 힘든 겁니다, 아주 탁월한 언어 감각의 소유자라면 몰라도.

이진섭 그렇겠습니다. 속기를 많이 해 본 분이려야지 ‘나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도 같은 실수를 했구나’ 해서 감이 아무래도 좀 빠르겠습니다.

흥기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래밭에서 바늘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속기하는 것 못지않게 진이 빠지는 작업이지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어야 하니까요.

속기사의 위상과 처우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이진섭 기록문화의 엄중성이라고 할까, 정확성이라는 의미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제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지요.

흥기표 ‘충명이 둔필만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기록이 중요

IV. 언론 인터뷰

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부정확한 기록은 차라리 남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역사를 왜곡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일생을 걸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어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기록을 담당해야 하는 거지요. 속기록의 정확성과 품질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고요. 그러자면 그 위상과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제가 속기인생 3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그겁니다. 서울 가 본 사람하고 안 가 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 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지요. 속기를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절벽을 느낍니다. 피상적으로 그저 속기는 기능이다, 편집이 뭐 할 게 있느냐...

이진섭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속기는 21세기에는 사양직종 중의 하나라고 하던데, 속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표 예, 맞습니다. 우선 속기의 종주국인 영국 의회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속기록 대신 녹취록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 의회에서도 앞으로 녹음을 푸는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빨리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힘들어요, 언어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게.

운필과 청취는 기계화해도 수문은 여전히 사람의 몫

이진섭 앞으로 속기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회의록 작성 시스템도 바뀌어야 할 테고...

홍기표 속기나 속기사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업무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속기라는 건 음성언어를 부호문자로 정착시켰다가 다시 일반 문자로 풀

어내는 것 아닙니까. 녹음이라는 것 역시 녹취된 음성언어를 다시 일반 문자로 풀어내야 하는 과정은 똑같은 거지요. 그럴 때 속기사의 3대 구비 능력 중에서 운필 능력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지,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는 거예요. 언젠가 음성 인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청취 능력까지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장부호를 챙겨 주고, 문법을 챙겨 주고, 문체를 챙겨 주어야 하는, 이런 수문의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또 남게 될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요. 결국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문자언어로 재생해 내려면 어문에 밝은 전문 인력은 여전히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진섭 그간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나 변칙 처리가 좀 많았습니까? 의장석, 위원장석을 서로 점거하려고 난투극을 벌이는 와중에 손바닥이나 책으로 사회봉을 대신하면서 ‘통과됐습니다’ 운운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텐데, 그러면 나중에 각 당에서 통과됐다 안 됐다는 속기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기술할 것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속기인의 비애나 무력감 내지 사관으로서의 분노까지 통절히 느껴셨을 법한데.

홍기표 그런 일례는 제가 아직은 일일이 다 말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섭 의정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은 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그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우리 의정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투를 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국회 ‘여의도 시대’ 30년

최예숙 인터뷰



«2005년은 국회의사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 들어선 지 꼭 30년이 되는 해. 현재 서울시의회 건물로 쓰이는 서울 중구 태평로 옛 의사당에서 반구형 지붕의 여의도 의사당으로 국회가 옮겨진 게 1975년 9월 2일이었다. 처음에는 한강의 섬에 토사를 메워 만든 땅이라 풍수가 좋지 않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의도라는 지명이 국회의 대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다. 격동의 여의도 시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국회 사무처 속기와 최예숙(崔禮淑·53) 서기관은 29일 지난 30년을 ‘국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기간’이라고 요약했다.»

최 서기관이 국회사무처에 9급 속기사로 들어온 1972년은 어쩌면 국회의 위상이 가장 추락한 해였다. 유신 선포로 국회가 해산됐기 때문. 최 서기관은 “국회가 해산된 줄도 모르고 출근했다가 국회 간판이 떼어지는 것을 보고 동료 속기사들과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총회기 일수 규정이 있던 1987년까지 국회는 1년에 100여 일 외에는 스스로 회의를 열고자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가 1년 내내 열리다시피 하면서 속기과 직원들이 여름휴가 일정을 잡기가 곤란한 지경이 됐다.

단순히 회기 일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속기 업무가 필요한 각종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최 서기관은 “속기사 수는 그대로인데 업무는 폭증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는 속기사가 100명 정도 있으며, 과거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성비(性比)가 역전됐다. 속기사 업무는 극도로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

청문회 도입도 국회의 위상을 올렸다는 게 최 서기관의 평가.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증언을 받아 적으면서 ‘내가 바로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생각에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

최 서기관은 “국회 위상이 올라가면서 안으로도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여당이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법안을 날치기하기 직전 속기사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제 법안 처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만 할 수 있다.

IV. 언론 인터뷰

법안의 변칙 처리가 줄어들면서 속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안전'해졌다고 한다. 태평로 시절에는 본회의장에서 흡연이 가능해 의석마다 유리 재떨이가 있었고 무거운 나무 명패도 고정식이 아니어서 유사시에 이런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아찔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인간미가 있던 옛날과 달리 “다른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도 잘 어울리지 않는 걸 보면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최 서기관은 33년 동안 속기 업무를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를 들었다.

“후배 속기사들이 가져온 원고를 최종 인쇄 직전에 몇 번씩 검토하며 읽는데 등에서는 비지땀이 줄줄 흐르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기록이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한번 한 발언은 절대 속기록에서 삭제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에게 말을 천금(千金)같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금 한 말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속기록 삭제에 합의했다’는 말씀도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 그런 발언까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장강명 기자
— 동아일보(2005. 12. 30.)

국회 마을 30년 터줏대감, 속기사 3인

속기록 삭제, 삭제 하는데
그건 법으론 금지된 일

이경식·조영기·고경호 인터뷰



고경호·조영기·이경식(왼쪽부터) 속기사는 여의도 국회 33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보고 기록으로 남긴 산증인들이다.

IV. 언론 인터뷰

“선수(選數)로 치면 제가 의원님들보다 오래됐다고 말하곤 해요.”

조영기(51·여) 서기관의 말에 이경식(53) 과장도, 고경효(50·여) 사무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세 사람 모두 30년 이상 국회의 모든 것을 기록해 온 속기사들이다. 이 과장은 태평로 의사당 시절부터 근무했다. “사무실이 의사당 건너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오가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엔 속기사 제복도 양복점과 양장점에서 맞춰 줬다. 남성에게는 양복에 와이셔츠·넥타이·구두를, 여성에게는 투피스 정장과 블라우스·구두까지 1년에 두 벌씩 제공했다. 현재는 양복과 투피스만 기성품으로 1년에 한 벌씩 준다. 1995년부터는 해외 국정감사에도 속기사가 동행하다 보니 자비를 들여 여벌을 맞춰 입는 속기사도 있다. 제복은 속기할 때만 입는다.

30년 세월 동안 속기 풍경도 바뀌었다. 직선과 곡선을 이용해 표기하는 수기(手記) 속기밖에 없었는데 95년부터 컴퓨터 자판과 유사한 기계속기가 도입됐다. 지금은 기계와 수기 비율이 7 대 3 정도다. 신입 속기사들은 모두 기계를 사용한다.

“지금은 수기속기를 가르치는 곳도 없으니까요.” 고 사무관은 기계에 연결할 전원이 없거나 서서 기록해야만 하는 장소에서는 수기속기가 꼭 필요하다며 아쉬워한다. 남녀 비율도 확 바뀌었다. 70년대 중반에는 12명으로 이뤄진 한 계에 1~2명이 여성이었는데 현재는 남성이 10%가량이다. ‘속기사=여성’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 신입 속기사들은 종종 “어느 부처에서 오신 (공무원) 분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숨죽여 다녀야 했던 11대 국회

“출근했는데 국회 앞에 탱크가 있었지요. 그때의 살벌했던 분위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고 사무관은 80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회 내에서도 신군부의 서슬이 퍼렷다고 기억했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이 속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거슬린다고 말해 속기사 전원이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밑창이 달린 구두를 새로 맞추기도 했다.

“상임위 내용을 녹음한 것도 11대 국회 때부터예요.” 조 서기관이 말을 거든다. 신군부의 등장으로 초선 의원이 대거 등장하면서 직업 정치인 특유의 즉석연설 대신 준비된 원고대로 읽는 의원이 늘었다. 나중에 상임위 회의록을 본 뒤 “내 원고와 조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녹음도 하게 됐다.

원래 속기는 말한 것을 100% 그대로 적지는 않는다. 문어체 형태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기 때문에 어법에 틀리는 말은 조금씩 고치기도 한다. 이를 ‘번문(翻文)’이라고 한다. 수기속기의 경우 작성한 시간의 8~10배, 기계 속기의 경우 3~5배의 시간이 번문에 소요된다.

‘패배(敗北)주의’를 ‘패북주의’로 읽는 등 한자 음독을 잘 못해 구설에 올랐던 전직 의원의 발언도 번문했는지 물었다. “당시에는 회의록에도 한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웃음과 함께 답이 돌아왔다.

87년 민주화가 바뀌놓은 풍경

이 과장은 87년 민주화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헌법을 만드는 현장에 있으면서 ‘아, 내가 지금 역사를 기록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지요.”

국회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국회가 상시로 열리게 됐고 국감이 부활됐다. 청문회 등 회의가 늘었고 군부독재 시절과는 달리 회의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원내 통제를 벗어난 발언도 종종 터져 나왔다.

“나라는 좋아졌고 일은 많아졌어요.” 고 사무관이 활짝 웃었다.

지방 국감에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두 사람이 한 조로 속기를 해야 했다. 토요일 아침에 시작해 일요일 오전 5시에 끝난 적도 있었다.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사망했을 때는 속기사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변장을 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외 국감의 경우 속기사가 한 명만 동행하기 때문에 속기사의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정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진입하면서 정치적 용어 대신 각 분야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했다. “외국 박사에 교수 하시던 분들이 늘면서 영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늘었어요. 어떤 의원님은 정말 조사만 빼고 다 영어를 쓰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 서기관은 약품 이름, IT 용어 등을 익히느라 따로 용어집을 만들기도 했다. 최근엔 쇠고기 특위에서 전문용어가 쏟아져 속기사들이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가장 속기하기 힘든 의원은 ‘사투리를 심하게 쓰고 말을 빨리 하는 의원’이다. ‘마카’(‘전부’ 강원도 사투리)처럼 애기한 의원에게 회의 후 다시 묻고서야 뜻을 알아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회의록엔 표준어로 번문해 기록한다.

명연설을 기록하는 일은 속기사의 즐거움이다. 이 과장은 “말씀 잘 하기로 유명한 의원을 속기할 때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번이 아닌 속기사들이 방청석에 들으러 갈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꼽은 ‘베스트 5’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 고건 전 총리,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김광일 초대 고충처리위원장, 홍사덕 의원. 발언을 그대로 적어도 문장이 되는 정연한 말솜씨에 호소력 있는 목소리, 적당한 빠르기가 공통점이다. 여성 의원 중에선 박영숙 전 평민당 부총재를 꼽았다.

웃음, 몸동작도 속기록에 담아

속기는 ‘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분위기도 함께 담는다. “표정 같은 걸 다 기록할 순 없지만 ‘(단호하게)’라고 써 넣는든지 ‘(웃음)’이라고 표기한다든지 최대한 현장감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조 서기관)

“예전에 중국에선 ‘좌동우언(左動右言)’이라고 해서 왼쪽선 천자의 동작을, 오른쪽선 천자의 말을 기록했어요. ‘(지도를 들어보이며)’라든지 ‘(고개를 끄덕임)’처럼 더 자세히 기록하려고 합니다.”(이 과장)

세 사람은 잘못 알려진 사실 두 가지를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자꾸 ‘속기록 삭제’라고 하는데 속기록 삭제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IV. 언론 인터뷰

요. ‘자구(字句) 정정’만 가능합니다.” 고 사무관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주억거리린다. “삭제해 달라”는 발언까지 모두 그대로 기재된다는 것이다.

“그 발언을 한 것은 이런 의도였다”고 해명하면 그 해명 발언을 그대로 실어서 삭제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원래 발언을 없앨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일본) 시네마현’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를 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정정 신청서를 받아 ‘시마네현’으로 수정한다.

속기록 ‘정정’에 관해 이견(異見)이 있다고 한다. “홍사덕 의원 같은 분은 고사성어를 잘못 쓰거나 한 경우도 의원이 발언한 그대로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조순형 의원계선 그래도 역사에 남는 것인데 틀린 것을 기록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셨죠.”

이들은 “국회의원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도 입을 모았다.

“국회에선 매일 싸움만 하는 줄 아는데, 우리 부서에 예전 회의록을 요청해 공부하는 의원이 많다”며 “특히 18대 국회의원은 어느 때보다 회의록을 많이 찾는다”며 기대를 걸었다.

구희령 기자
— 중앙선데이(2008. 9. 21.)



5분 쓴 꼬부랑글씨 ‘해독’하는 데 50분... 발음 나쁘면 신경 곤두서죠

엄익숙 인터뷰



IV. 언론 인터뷰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쏟아진다.

공무원과 의원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때마다 회의장 가운데 앉은 한 여성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진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 발언자의 얼굴을 확인할 뿐 펜을 잡은 손 외에는 어떤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귀와 손에 집중하며 회의장의 음성을 충실히 담아내는 그녀의 얼굴 역시 무표정 그 자체다. 15분쯤 흘렀을까 맞은편에 또 다른 속기사가 자리에 앉는다. 동료에게 무사히 바통을 넘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간다. 긴 회의 동안 그렇게 몇 번의 교대가 이뤄진다.

오후 8시. 마침내 감사가 종료되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속기사 엄의숙 씨(45)의 10시간에 걸친 펜과의 싸움도 끝이 났다. 일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하지 못한 엄씨를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 국정감사 기간이라 바쁘겠네요.

“국회 속기사에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요즘이 가장 바쁜 철이죠. 오늘은 그래도 일찍 끝난 편이에요.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 그때는 밤을 새우고 새벽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처녀 땐 젊은 여자가 허구한날 새벽에 귀가 하곤 하니까 이웃들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했죠. 속기사들은 결혼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가 열리는 2,4,6,8월을 피해야 하다

보니 5월에 가장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웃음).”

■ 어떤 계기로 속기사를 하게 됐나요.

“사실 제가 대학(이화여대 화학교육과)을 졸업하던 무렵(1988년)만 해도 속기사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았어요. 당시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5공 청문회가 연일 생중계되면서 매일같이 현장을 지키던 속기사도 자연스레 부각된 거죠. 저 역시 그래서 속기사에 대한 동경 같은 걸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우연히 국회 속기사 양성소 모집공고를 보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운 좋게 붙었죠.”

엄 씨는 1990년 국회 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속기직)으로 들어와 내년이면 근무한 지 만 20년이 된다. 그동안 승진을 거듭해 현재 직급은 사무관 대우인 6급이다.

■ 컴퓨터가 아닌 펜으로 속기를 하던데요.

“요즘에는 컴퓨터 속기가 일반화됐지만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수필속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국회에 따로 속기사 양성소까지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속기사가 됐죠. 하지만 1995년부터 컴퓨터 속기사를 함께 뽑기 시작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로 수필속기는 공식 폐지됐습니다. 지금도 외부에 속기학원은 남아 있지만 수필속기를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 컴퓨터가 아닌 손으로 어떻게 다 받아쓸 수가 있는 거죠.

“한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속기를 위한 언어체계가 따로

IV. 언론 인터뷰

있어요. 이 때문에 반드시 1~2년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해요. 일반인들은 속기사가 쓴 노트를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혹자는 아랍 문자 같다고 하기도 해요. 따라서 이렇게 속기로 받아쓴 것을 재정리하는 ‘번문’이라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5분 정도 속기한 것을 번문하려면 50분 걸려요. 컴퓨터 속기의 경우 번문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죠.”

■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나요.

“속기사 1급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최소한 1분에 320자 이상은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타수 기준으로 말하자면 1000타 정도는 쳐야 하는 거죠.”

■ 사투리나 부정확한 발음도 많을 텐데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욱 집중해야죠. 속기사는 남들이 다 같이 박장대소를 하더라도 절대 웃어서는 안 돼요.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 화를 내거나 슬퍼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발언자의 코멘트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까지 기록해야 해요. ”

■ 속기사를 특히 힘들게 했던 국회의원이 있나요.

“모 그룹 회장이기도 한 주모 전 의원이 속기사들 사이에 악명(?) 높았죠. 발음이 또박또박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버려 알아듣기가 좀체로 쉽지 않았어요. 상임위 내에 고정된 좌석도 속기석에서 가장 먼 곳이어서 입 모양까지 잘 보이지 않아 고생이 더했죠. 반면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김모 전 의원 같은 분은 발음이 정확한 데다 법

안 심사가 끝날 때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했는지 완벽하게 정리해 줘 신망이 높았죠. 김 전 의원은 보좌관들에게도 지시를 항상 세 번씩 반복해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배려를 잘 하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 20년 동안 국회를 지킨 역사의 산증인인데 에피소드도 많겠네요.

“1999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협과 축협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심의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열심히 속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흰 살결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축협 회장이던 친구범 씨가 허연 배를 드러낸 뒤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대로 그어버렸지요. 그러자 회의실에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자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러 댔고 저 역시 순간적으로 소리를 칠 뻔했어요. 하지만 제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꼭 참고 속기를 계속했지요.”

이 상황은 1999년 8월 1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에 ‘친구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장관석 앞으로 나오면서 할복 자해’라고 엄 씨에 의해 기록돼 있다.

■ 어떻게 그런 냉정을 유지하나요.

“집중력 덕분이겠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데 마음 둘 여유가 없는 거죠. 한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곳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떠한 돌발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꼭 해 온 점도 있고요.”

IV. 언론 인터뷰

■ 습관처럼 돼 버렸군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오래하다 보니 듣기만 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버릇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는 왜 얘기를 하면 대답을 잘 안 하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 남편도 속기사라면서요.

“결혼할 당시에는 둘 다 속기사였는데 남편은 업무를 바꿔 지금은 일반 행정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제 생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죠. 가사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나눠 하는 것처럼 생각해 주고요. 특히 지금은 중학생인 아이 둘을 낳아 기를 땀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죠.”

■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뭔가요.

“현대판 사관(史官)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20년을 한결같이 일해 왔어요. 앞으로도 제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곳을 지키고 싶어요. 또 점차 사라져 가는 수필속기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 나갈 생각이예요. 수필속기는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인데 컴퓨터에 밀려 사라지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김영우 기자
— 한국경제 「생생인터뷰」(2009. 10. 17.)



촛불 속기, 골목 속기 - 수필속기의 위력!

김미라 인터뷰



'베테랑' 의정기록관
김미라 씨(오른쪽)와 홍미지 씨

IV. 언론 인터뷰

여의도의 가을은 부끄럽다. ‘정치 1번지’라는 국회의사당에서 정기국회 100일 내내 정쟁(政爭)과 고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의원 299명 외에도 수천 명의 의원 보좌진과 국회 직원, 관련 종사자들이 묵묵히 근무하고 있다. 너무 바빠 ‘여의도에는 가을이 없다’고 말하는 11월 국회의사당의 다양한 사람들을 조선닷컴이 만나 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 치열하던 세종시와 4대 강 사업 논쟁에 갑자기 의원 3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굳은 표정으로 발언 내용을 볼펜으로 휘갈기던 김미라(43) 씨의 손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다. 맞은편에 자리잡은 홍미지(27) 씨의 자판을 두드리는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빨라졌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를 기록하는 의정기록관이다. 김 씨는 내년이면 경력 20년의 베테랑인 반면 홍 씨는 이제 갓 1년 차 새내기다. 회의에는 이렇게 ‘주무(主務)’라고 부르는 베테랑 1명과 ‘부무(副務)’라고 부르는 신참 1명이 함께 들어간다.

“난 아직도 옛날 사람”

홍 씨가 5kg짜리 기계를 두드리는 반면 김 씨는 볼펜으로 발언 내용을 쓴다. 현재 국회에서 일하는 의정기록관 82명 중 김 씨처럼 손으로 쓰는 수필(手筆) 속기사는 27명뿐이다. 국회는 1995년부터 기계 속기사만 채용하고 있다. 속기 학원에서도 더 이상 수필속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편리함은 기계속기가 앞선다. 워드 치듯 친 뒤 메모리카드를 빼 작업실 컴퓨터에서 손을 보면 끝이다. 보통 5분 동안 속기를 하면 정리된 의정기록이 나오기까지 30~40분이 걸린다. 반면에 수필속기는

손으로 쓴 것을 워드로 다시 쳐야 한다.

그러나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면 아예 회의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 국회 밖에서 회의가 열릴 경우 5kg짜리 기계를 이고 나가야 한다. 단, 전원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5년 9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의 한국전력 국정감사장. 김용갑 위원장이 갑자기 “전기의 소중함을 느껴 보자”며 회의장 전원을 내려 버렸다. 오전 10시였는데도 회의장은 어두컴컴했다. 김 위원장은 “들리면 되는 거 아이가?”라고 말했다. 기계속기는 전기가 끊겨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마이크도 꺼진 상황에서 김 씨는 20여 분 동안 사상 초유의 ‘촛불 속기’를 해야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재래시장에서 국감을 열기도 했다. 그는 대전 중앙시장 골목에 자리를 깔고 상인들과 시장 활성화 대책을 의논했다. 거기서도 수첩 든 김 씨만이 그들의 대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김 씨는 “돌이켜보면 수필속기가 활약할 기회였지만 당시엔 등에서 진땀이 줄줄 흘러내렸죠”라고 말했다.

수필속기, 1분에 320자 감당해야

의정기록과에서 15년째 근속자인 김 씨는 “국회 짬밥으로 따지면 5선 의원급이죠”라고 했다. 18대 국회의원 298명 중 6선 이상은 조순형, 박희태, 이상득, 정몽준, 홍사덕 의원 등 5명뿐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속기사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화여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교수 추천으로 한 제약회사 연구실에 들어갈 뻔했다. 하지만 “재미없으면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1988년 국회 속기사 양성소에 입학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

김 씨는 수업 첫날 “이건 완전히 다른 언어야!”라고 감탄했다고 했

IV. 언론 인터뷰

다. 1년 동안 갱지에 쓴 신문사설이 높이 2m에 달했다. 수료하자마자 속기사 1급 자격증을 땀다. 20여 명 수료생 중에서 혼자였다. 1급을 따려면 1분 동안 320자 이상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뉴스 앵커가 말하는 속도가 대략 1분당 300자 정도다.

당시 국회에서는 매년 40여 명씩 속기사 양성 인력을 뽑았지만 수료생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김 씨는 “속기의 매력을 느끼기까지 지루한 훈련과정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했다. 선배들이 읽어 주는 회의록과 신문 사설을 받아 적은 뒤 원본과 비교하는 일을 꼬박 1년을 해야 한다. 김 씨는 그렇게 1990년 국회에 들어왔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요즘 11월이 가장 바쁘다. 김 씨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2번이나 회의장을 들락거리며 일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각종 소위원회, 공청회 같은 게 없었다”고 했다. 다음날 바로 회의록이 나와야 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40명이 5분씩 나눠 맡는다.

회의 때마다 긴장, 20년 지나도 ‘소머즈’는 안 돼

김 씨는 “20년째 긴장하면서 회의장에 들어간다”고 했다. 속기는 ‘받아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에서 아이 둘을 둔 평범한 주부지만 회의장에 들어가면 진지하다 못해 날카로워질 때가 많다고 했다.

회의 때 목소리가 작은 정모 의원을 한참 노려봤더니 한 직원이 “잘 안 들려요?”라고 물었다. 김 씨는 그를 쏘아 붙이며 말했다. “제가 무슨 소머즈인가요?” 20년을 들었지만 그도 소머즈는 아니다.

발음이 안 좋거나 사투리를 진하게 써서 속기가 곤란한 의원들도

많다. 17대 신모 의원과 18대 백모 의원은 의정기록관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신 전 의원은 고령인데다 사투리가 센 편이다. 김 씨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 때 세계 여성 정치인들의 이름을 쪽 말씀하시는데, 아프리카 정치인 이름이 나올 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요”라고 했다. 이럴 때는 보좌관에게 주로 묻지만 보좌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그라미를 쳐 놓고 나중에 인터넷을 뒤지기도 한다.

가끔은 환호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의원들이 식사를 하자며 갑자기 정회를 선언할 때다. 은어로 “떡었다”고 한다.

아는 만큼 들려, 끊임없이 공부해야

김 씨는 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지만 생소한 위원회 회의에 들어갈 때 난감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1993년 율곡사업 관련 국방위원회 국정조사에서 한 잠수함 전문가가 잠수함에 대해 설명했는데 김 씨는 그날 해군에 문의 전화만 수십 통을 했다고 했다. 이럴 때는 다른 의정기록관들이 함께 ‘번역’에 참여하기도 한다. 한 법관 출신 의원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해 김 씨를 어리둥절하게 하기도 했다.

그래서 김 씨는 매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듣는다. 요즘 이슈에 대한 감각을 유지해야 속기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홍 씨도 “아는 만큼 들린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라디오를 들어도 꼭 직업병이 도진다. 김 씨는 라디오를 “아차” “아차” 소리 내며 듣는다. “내가 속기하면 놓치겠다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전화 통화가 더 어렵죠.”

의정기록관들은 동시에 여러 의원들이 발언해 누가 무슨 말을 하

Ⅳ. 언론 인터뷰

는지 알 수 없을 때 회의록에 ‘장내 소란’이라고 쓴다. 2005년 행정 중심복합도시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13분 동안 ‘장내 소란’이 16번이나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씨는 “장내 소란은 정말 불가피할 때만 쓰는 것”이라며 “선배들한테 혼난다”고 했다.

그럼 미국처럼 회의록에 ‘웃음’이라고 기록하는 경우는 없을까? 김 씨는 “우리는 국정감사 때 곤란한 질문에 장관이 멋쩍게 웃을 때 ‘웃음’이라고 쓴다”고 했다. 언젠가는 우리 국회도 미국 백악관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담아 ‘웃음’이라고 기록하는 게 김 씨의 작은 소망 중 하나이다.

최종석 기자

— 조선일보 「국회의사당 사람들」(2009. 11. 17.)



“의원님들 욕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백순정·박윤희 인터뷰



▲ 국회 속기사들은 회의장의 숨소리까지 기록한다. 경력 10년이 된 컴퓨터속기사 박윤희(오른쪽) 씨와 수기속기사 백순정 씨가 26일 오후 국회 한 회의실에서 활짝 웃고 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IV. 언론 인터뷰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잇달아 열리며 국회가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주목받진 않지만 국회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의 현장을 역사로 기록하는 속기사들이다. 26일 오후 국회 속기사 경력이 올해로 각각 10년과 20년이 된 국회사무처 의정기록 1과 소속 백순정(41)·박윤희(36) 속기주사를 만났다.

역사를 기록하는 그들의 방식

속기사는 크게 수기(手記)속기사와 컴퓨터속기사로 구분한다. 1995년 컴퓨터속기가 보급된 후 수기속기사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 소속 속기사는 총 75명으로 이 중 컴퓨터속기사는 52명, 수기속기사가 23명이다.

이들의 속기는 일반인이 타자를 치거나 필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속기사들은 “속기를 배우는 것은 새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수기속기는 발언 내용을 B5 크기의 노트에 손으로 받아 적는다. 수기속기사인 백 씨의 노트를 열어 보자, 노트에는 아랍 어처럼 보이는 글씨로 가득했다. 수기속기는 ‘가’를 ‘/’로, ‘/’를 길게 쓰면 ‘기’가 되는 등 모든 문자를 기호로 바꿔 쓴다. 전문(全文)을 쓰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10분 정도의 발언을 기록한 기호를 글자로 바꾸는 데는 1시간이 걸린다. 컴퓨터 속기사가 전체 속기사의 3분의 2를 넘지만 수기속기는 여전히 쓰임새가 많다. “전기가 없는 건물 밖이나 마이크가 없어 발언자 옆에서 기록해야 하는 상황 등에는 수기속기가 꼭 필요하죠.” 20년째 수기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백 속기주사의 말

이다. 기호를 완벽하게 체화(體化)한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백 씨는 “최고의 속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한 갯지가 자신의 키만큼 쌓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컴퓨터속기는 일반 컴퓨터의 키보드 모양으로 생긴 특수 컴퓨터를 이용한다. 이 컴퓨터 1대의 가격은 400만 원이 넘는다. 수기속기와 달리 컴퓨터속기는 기호를 글자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 없다. 컴퓨터 속기사 박 씨가 ‘ㅇㅈㅎ’라고 써 있는 자판을 동시에 누르자 기계 위 작은 화면에 자동으로 ‘존경하는’이라는 글자가 입력됐다. 박 씨는 “속기 컴퓨터에 들어 있는 메모리 카드를 일반 컴퓨터로 옮긴 후 띄어쓰기와 오타를 수정하면 정확도가 98%를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목에 거는 휴대용 속기 컴퓨터가 이용되고, 우리나라에도 휴대용 속기 컴퓨터가 보급되고 있어 수기속기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의원들 수준 많이 올라…쇼맨십은 자제를”

속기사들 사이에서는 “속기사가 ‘별로’라고 평가한 의원이 재선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지근거리에서 그들의 언행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해도 의원들이 하루 종일 질문 내용만 주절주절 읽고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새는 회의가 일문일답으로 알차게 진행되고 있어 ‘국회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고 느껴요.” 백 속기주사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쇼맨십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속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발언자의 알아듣기 힘든 발음과 작

IV. 언론 인터뷰

은 목소리다.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한 의원이 계속 발언을 해 입 모양을 쳐다보며 기록을 하는데 회의가 끝난 후 행정실 직원이 ‘왜 의원님을 째려보냐’고 하더라고요.” 박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크게 웃었다.

백 속기주사는 “기록에 남기길 원치 않는지 입을 가리고 말하거나, 일부러 마이크 옆에서 말하는 관료도 있다”고 했다. 임시회의록이 나온 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삭제해 달라”, “왜 내가 한 말을 넣지 않았느냐”고 하는 의원들도 종종 있다. 박 속기주사는 “직접 녹음 내용을 들려 준 후 불만을 수그러들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말다툼과 몸싸움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백 속기주사는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그럴 땐 회의록에 ‘장내 소란’, ‘청취 불능’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는 신발이 날아 오고 회의장이 울음바다가 돼 회의가 끝난 후 얼른 도망나왔어요. 그때 기억은 잊을 수 없죠.” 백 씨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말다툼이 심해져 의원들 사이에서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정기록과 권영찬 서기관은 “예전엔 ‘개새끼’라는 발언 등 욕설이 더러 나와 ‘○○○’으로 기록한 적도 있다”며 “요즘은 발언한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욕설하는 의원도 보기 드물다”고 했다. 권 서기관은 또 “삭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의회 기록은 절대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도 국회에서

국회 속기사들은 한 상임위원회에 약 2년간 배치된다. 뉴스 흐름을 따라잡는 등 전문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는 주 5일 근무이지만 주말과 휴일에 회의가 있으면 속기사들은 어김없이 자리를 지킨다. “예산안 처리가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몰려 있어 이런 명절을 가족과 보낸 적이 지난 10년간 두 번밖에 없어요. 동료들과 국회에서 재야의 종소리를 듣죠.” 자리에 꼴꼴이 앉아 온 신경을 집중해 기록해야 하는 속기사들은 허리나 목, 손목 관절에 이상이 자주 생기고, 늘 이어폰을 꽂고 있는 귀에도 무리가 많다.

그렇지만 사관(史官)으로서의 자부심은 크다. “국회에서 일하며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록한 게 모두 역사로 남는 거잖아요.” 박 속기주사가 웃으며 말했다. 속기사들이 기록한 국회회의록은 연말에 책자로 발간돼 보관된다. 1권에 600~1000쪽에 달하는 국회회의록은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2260권이 발간돼 중요한 사료(史料)로 보존되고 있다.

국회 속기사가 되려면 속기 자격증 공인 3급 이상을 취득한 후 국회사무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올 11월에 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30:1이다.

석남준 기자
— 조선일보 「Why」(2010. 10. 30.)



편집위원

이경식 흥기표
정순화 박정현
박소연 제신지
김나영 기자영

**의회속기록
관 련
자 료 선 집**

발 행 대한속기협회
편 집 홍보부
발행일 2012년 12월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비매품〉

※ 이 책자의 무단복제 및 전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